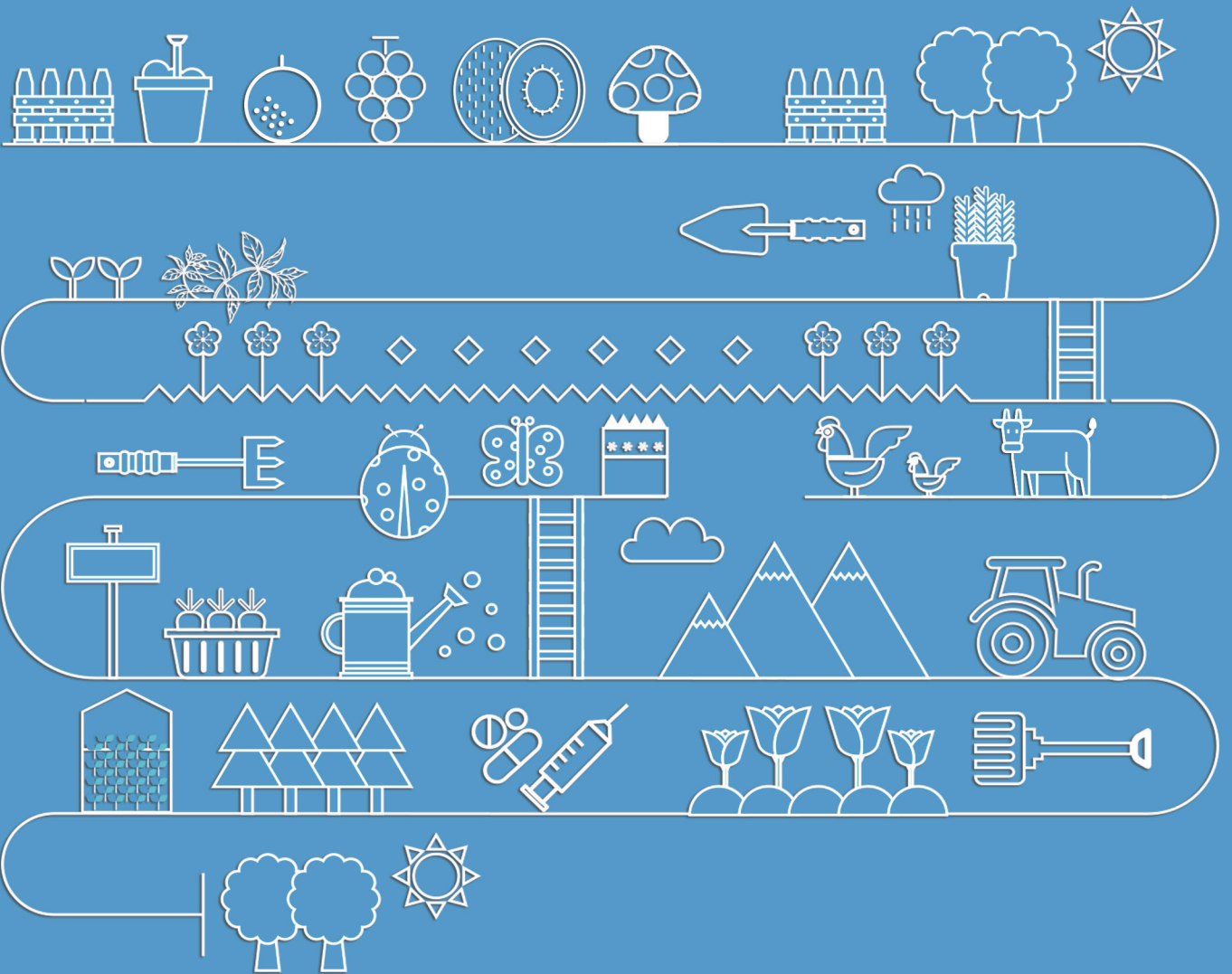


제2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 버섯 수출연구사업단

(동향보고서)



버섯 수출연구사업단

✓ 본 결과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o.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IPET) through (Export Promo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und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내용의 무단 복사, 인용을 제한하며 인용 시 대표 저자의 사전 승인을 요청함

주관기관명 : (사) 한국 농식품 미래 연구원

작성기관명 : (사) 한국 농식품 미래 연구원

# I 개요

## 1. 전체 버섯(HSCODE 0709.51 + 0709.59) 수입 현황

- HS CODE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ex. 양송이)
- HS CODE 0709.59 : 아가리쿠스(agaricus)를 제외한 기타 버섯 (ex. 새송이, 느타리, 표고 등)

○ 전체 아가리쿠스 버섯(HSCODE 0709.51)과 기타 버섯(HSCODE 0709.59)의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7년 전세계 수입량은 약 68만 톤, 수입액은 18억 5천 달러로 2013년에 비해 수입량은 3.68%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0.7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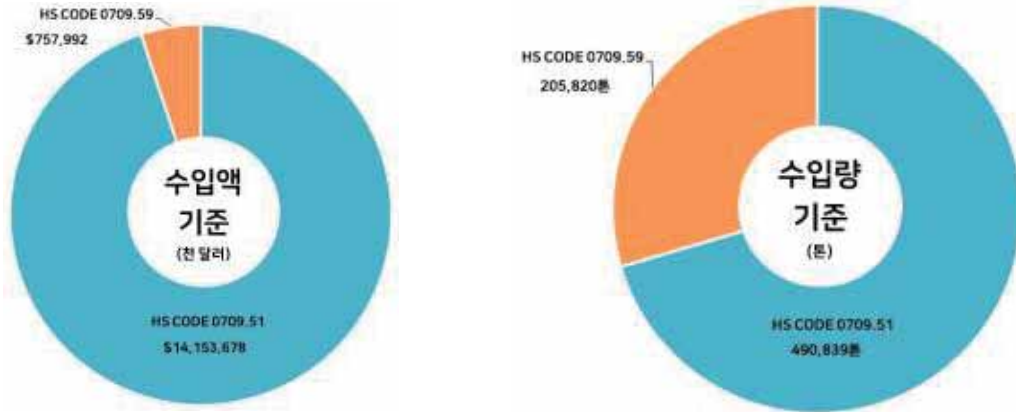
<표> 양송이버섯(HS CODE 0709.51)과 기타버섯(HS CODE 0709.59) 주요 나라 통계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656,069	14,080,268	715,157	13,642,265	696,659	14,911,670
1 미국	44,771	2,811,702	50,724	2,920,433	60,462	3,284,257
2 독일	83,613	1,806,959	91,332	1,723,123	95,397	1,838,912
3 영국	116,888	1,312,255	125,528	1,331,726	125,876	1,300,074
4 프랑스	44,664	1,044,340	44,505	963,739	43,506	1,065,415
5 캐나다	9,626	742,983	8,228	752,107	8,809	800,363
6 네덜란드	33,462	687,519	30,014	594,294	31,131	710,037
7 일본	5,613	531,884	3,592	445,794	3,113	458,976
8 이탈리아	17,564	360,831	16,584	353,365	15,576	412,194
9 벨기에	24,614	376,765	22,476	322,925	19,701	380,318
10 러시아	64,913	495,777	47,587	243,635	26,849	302,831

- 2017년 수입액인 18억 5천 달러 중 아가리쿠스 버섯은 11억 1천 달러를 차지해 60%를 차지하였고, 기타 버섯은 7억 5천 달러로 40%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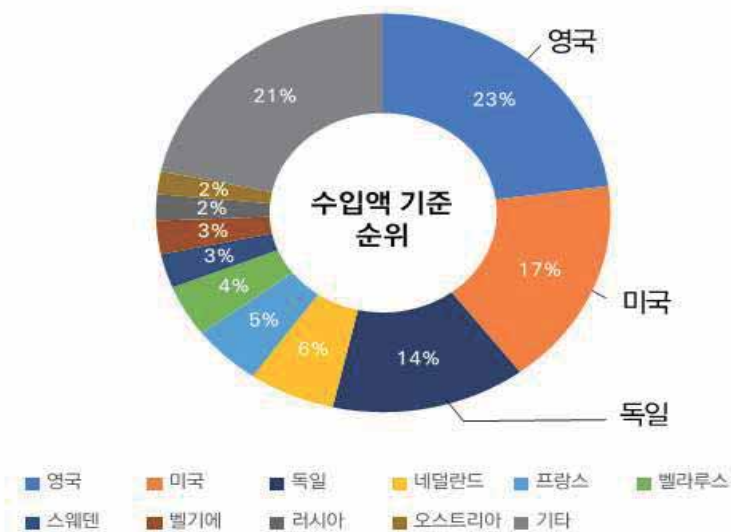
<그림> 전 세계 버섯 수입 현황



출처 : Ineterantioanl Trade Centre (ITC)

- 아가리쿠스 버섯(HS CODE 0709.51)의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액의 65%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5개국은 영국 23%, 미국 17%, 독일 14%, 네덜란드 6%, 프랑스 5%가 해당됨
-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많이 소비되는 아가리쿠스 버섯의 경우, 수입액 기준 순위에서 아시아 국가는 한 국가도 포함되지 않음

<그림> 아가리쿠스 버섯(HS CODE 0709.51) 수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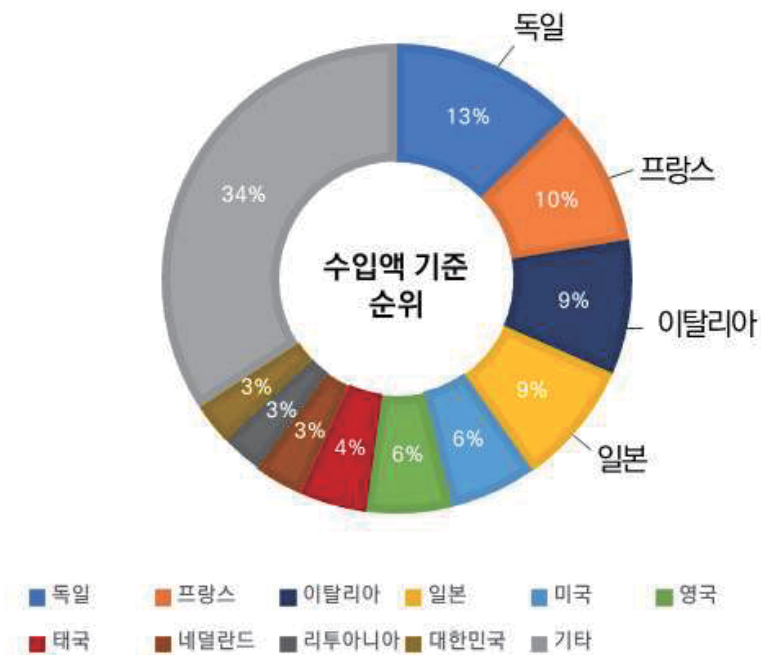


출처 : ITC Statistics

○ 기타 버섯(HS CODE 0709.59)의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액의 47%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5개국은 독일 13%, 프랑스 10%, 이탈리아 9%, 일본 9%, 미국 6%가 해당됨

- 기타 버섯의 경우 아가리쿠스 버섯 수입액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나, 상위 5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

<그림>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수입 통계



출처 : ITC Statistics

○ 전체 버섯(HS CODE 0709.51 + HS CODE 0709.59) 수입액 순위 기준, 상위 5개국의 품목별 수입 점유율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아가리쿠스 버섯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프랑스의 경우 기타버섯의 수입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표> 주요 5개국 점유율 비교

국가	HS CODE 0709.51 수입 점유율		HS CODE 0709.59 수입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영국	252,601	23%	44,404	6%
독일	153,154	17%	95,902	13%
미국	186,396	14%	45,093	6%
네덜란드	67,862	6%	25,628	3%
프랑스	55,407	5%	71,880	10%

출처 : ITC Statistics

<표> 양송이버섯(HS CODE 0709.51) 주요 나라 통계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473,262	13,330,489	522,745	12,908,578	490,839	14,153,678
1 미국	35,545	2,786,750	40,585	2,881,179	50,481	3,239,164
2 독일	65,579	1,709,532	70,263	1,629,080	72,306	1,743,010
3 영국	98,245	1,263,320	104,159	1,276,836	105,910	1,255,670
4 프랑스	22,688	960,276	22,696	890,460	25,515	993,535
5 캐나다	7,304	734,209	5,732	741,793	5,559	788,442
6 네덜란드	29,613	666,305	25,901	574,393	25,546	684,409
7 일본	1	447,095	14	386,673	5	394,307
8 벨기에	19,759	356,903	16,601	302,166	14,602	362,535
9 이탈리아	8,339	312,854	6,415	300,856	8,079	343,530
10 러시아	61,620	487,003	46,640	233,321	22,120	290,910

<표> 기타버섯(HS CODE 0709.59) 주요 나라 통계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82,807	749,779	192,412	733,687	205,820	757,992
1 독일	18,034	97,427	21,069	94,043	23,091	95,902
2 프랑스	21,976	84,064	21,809	73,279	17,991	71,880
3 이탈리아	9,225	47,977	10,169	52,509	7,497	68,664
4 일본	5,612	84,789	3,578	59,121	3,108	64,669
5 미국	9,226	24,952	10,139	39,254	9,981	45,093
6 영국	18,643	48,935	21,369	54,890	19,966	44,404
7 태국	9,846	18,145	16,670	27,098	21,047	33,763
8 네덜란드	3,849	21,214	4,113	19,901	5,585	25,628
9 오스트리아	6,443	28,181	4,278	23,857	4,022	23,229
10 베트남	717	5,313	1,026	6,695	13,360	22,529

## 2. 전체 버섯(HSCODE 0709.51 + 0709.59) 수출 현황

- HS CODE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ex. 양송이)
- HS CODE 0709.59 : 아가리쿠스(agaricus)를 제외한 기타 버섯 (ex. 새송이, 느타리, 표고 등)

○ 전체 아가리쿠스 버섯(HSCODE 0709.51)과 기타 버섯(HSCODE 0709.59)의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약간의 증감이 있음. 2017년 전세계 수출량은 약 64만 톤, 수출액은 17억 4천 달러로 2013년에 비해 수출량은 △0.45%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4.59% 감소함

<표> 전체 버섯(HS CODE 0709.51 + 0709.59) 수출 통계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643,851	1,820,756	646,926	1,640,514	640,984	1,737,267
폴란드	204,999	424,896	205,614	349,659	216,626	367,500
네덜란드	95,806	273,940	89,749	252,834	93,639	266,571
중국	44,185	150,363	55,080	157,441	78,092	176,662
캐나다	31,938	124,508	32,502	141,140	38,174	161,865
아일랜드	35,633	132,996	32,134	111,157	31,525	104,188
이탈리아	2,786	60,268	2,698	62,843	3,221	68,077
벨기에	30,952	76,077	25,596	60,190	25,348	57,152
리투아니아	33,436	87,324	18,634	53,491	17,165	51,895
벨라루스	27,965	43,925	53,215	37,218	24,624	50,305
독일	10,472	37,200	12,984	34,477	10,824	30,267

\* 2017년 세계 수출량은 추정치임

출처 : ITC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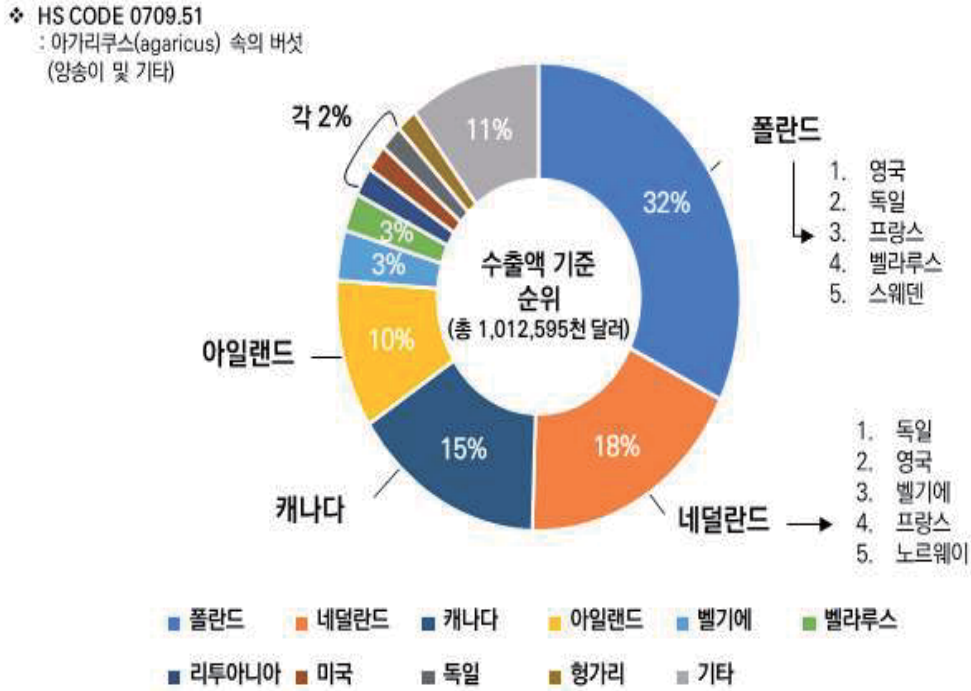


- 2017년 수출액인 17억 4천 달러 중 아가리쿠스 버섯은 10억 1천 달러를 차지해 58%를 차지하였고, 기타 버섯은 7억 2천 달러로 42%에 해당함



- 아가리쿠스 버섯(HS CODE 0709.51)의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9.6%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5개국은 폴란드 32%, 네덜란드 18%, 캐나다 15%, 아일랜드 10%, 벨기에 3%가 해당됨
- 아가리쿠스 버섯의 경우 수입통계와 마찬가지로 수출액 기준 순위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한 국가도 포함되지 않음. 이를 통해 생산 또한 미주 및 유럽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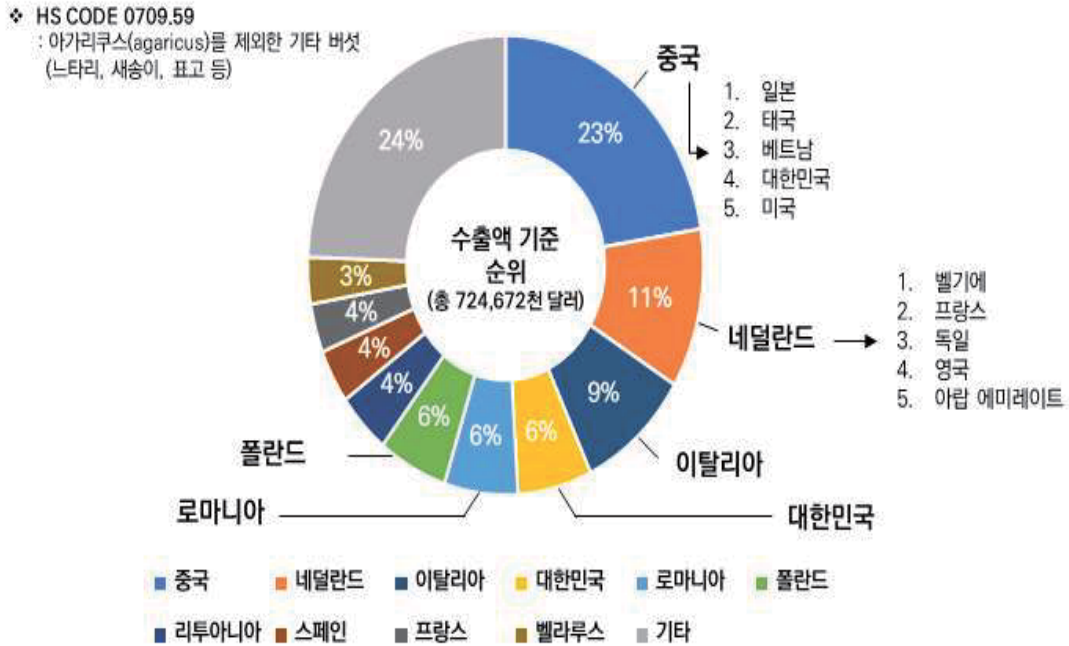
<그림> 아가리쿠스 버섯(HS CODE 0709.51) 수출 통계



출처 : ITC Statistics

- 기타 버섯(HS CODE 0709.59)의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상위 5개국인 전체 수입액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5개국은 중국 23%, 네덜란드 11%, 이탈리아 9%, 대한민국 6%, 루마니아 6%가 해당됨
- 2017년 기타 버섯의 경우,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23%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수출액 기준 5위로 약 4천 4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음

<그림>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수출 통계



출처 : ITC Statistics

○ 전체 버섯(HS CODE 0709.51 + HS CODE 0709.59) 수출액 순위 기준, 상위 5개국의 품목별 수출액 및 수출 점유율을 비교해 본 결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아가리쿠스 버섯을 더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중국의 경우 2개 품목 간 수출액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타 버섯에서 차지하는 수출액 점유율이 훨씬 크게 나타남

<표> 주요 5개국 점유율 비교

국가	HS CODE 0709.51 수출 점유율		HS CODE 0709.59 수출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폴란드	326,361	32%	41,139	6%
네덜란드	185,034	18%	81,537	11%
중국	155,407	15%	162,816	23%
캐나다	103,934	10%	6,458	0.89%
아일랜드	35,306	3%	254	0.04%

출처 : ITC Statistics



## 1. 버섯산업의 위치

○ 2017년 기준, 전체 농림업 생산액은 43조 2,77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버섯은 6,215억 원으로 농림생산액의 1.4%를 점유함

- 2016년 버섯 총 생산액 중 농산버섯은 3,836억 원으로 2008년의 4,765억 원에 비하여 70% 수준이며, 산림버섯은 2,379억 원으로 2008년의 89% 수준으로 하락됨

&lt;표&gt; 국내 버섯 농업 생산액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b>계</b>	<b>743,994</b>	<b>896,847</b>	<b>691,125</b>	<b>659,303</b>	<b>621,475</b>
<b>농산버섯</b>	<b>476,500</b>	<b>598,574</b>	<b>403,993</b>	<b>455,100</b>	<b>383,608</b>
양송이	66,815	152,130	61,578	78,980	59,035
느타리	144,977	150,079	110,143	162,403	128,031
영지	19,550	37,916	11,492	21,400	13,368
팽이	96,102	101,268	71,167	56,574	54,853
새송이	149,057	157,180	149,614	135,744	128,321
<b>산림버섯</b>	<b>267,494</b>	<b>298,268</b>	<b>287,132</b>	<b>204,203</b>	<b>237,867</b>
건표고	47,995	62,912	49,524	31,979	32,641
생표고	180,985	160,083	158,793	154,069	179,347
송이	30,672	64,471	52,300	12,773	19,185
목이	19	246	689	980	1,222
기타*	7,823	10,556	25,826	4,402	5,452

기타\* : 석이, 복령, 능이, 싸리, 꽃송이, 기타버섯 등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 1) 버섯산업의 특성<sup>1)</sup>

- 버섯산업은 씨를 뿌려 가꾸어 수확하여 공급하는 일반적인 농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버섯산업에 대한 논의는 버섯산업의 특징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
  - 수요적인 측면에서 버섯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좁은 의미의 식량에 포함되기 보다는 ‘별미’ 또는 ‘보다 나은’ 식생활을 위한 것으로 경기에 매우 민감한 농산물임. 또한 버섯은 단순한 먹거리나 음식으로서는 물론 기능성 및 약용작물로서도 큰 잠재력을 가진 매우 유용한 농작물임
  - 공급적인 측면으로는 버섯의 생산은 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종자나 모종으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생산보다 까다로운 기술집약적 작목임. 버섯의 상업적 생산은 자연적인 조건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는 격리시켜 배양-발이(發耳)-생육 등의 단계에 적합한 온도, 습도 등의 지배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즉 자본집약적 작목임

## 2) 버섯산업 생산동향

- 전체 버섯 생산량 변동추이( '05~' 16)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버섯 전체 생산량은 185,941톤으로 '05년 대비 △7.8%가 감소됨
  - 전반적인 소비침체에 따라 표고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의 생산량이 감소된 반면, 느타리 3.4%, 새송이 12.4%가 증가하였음

<표> 버섯류 전체 생산량 변화

(단위:톤)

년도	계(톤)	느타리	큰느타리 (새송이)	표고	팽이	양송이	영지	상황	기타
2005	201,756	56,866	43,230	38,936	40,161	18,985	448	512	2,406
2007	186,400	45,967	46,357	39,556	36,864	11,150	207	345	5,954
2008	198,209	40,071	45,906	39,466	55,231	10,822	306	209	6,198
2009	198,563	39,159	36,808	43,747	61,057	8,174	305	410	8,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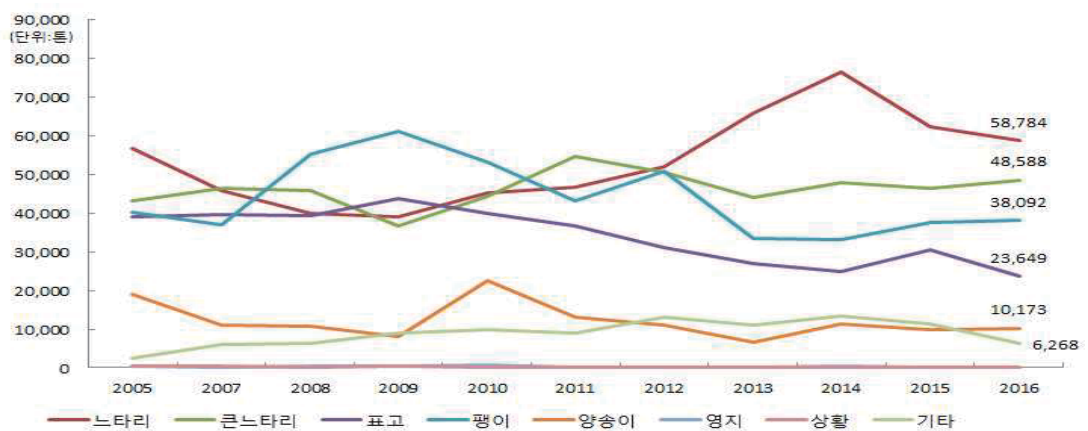
1) 이영석 교수, 한국농업전문학교

<b>2010</b>	216,276	45,191	44,361	39,997	53,187	22,635	650	176	10,010
<b>2011</b>	203,737	46,598	54,820	36,642	43,098	13,052	282	171	9,074
<b>2012</b>	208,941	51,991	50,605	30,971	50,841	10,996	197	178	13,162
<b>2013</b>	188,621	66,039	44,098	26,871	33,416	6,678	208	152	11,159
<b>2014</b>	208,207	76,389	47,814	25,058	33,259	11,493	428	205	13,561
<b>2015</b>	198,460	62,467	46,530	30,537	37,554	9,732	140	174	11,326
<b>2016</b>	185,941	58,784	48,588	23,649	38,092	10,173	211	176	6,268

출처 : 특용작물실적(2016), 산림청 <임산물생산실적>

- 2016년 기준, 국내 버섯류 국내 생산량 중 1위는 느타리버섯(58,784톤)으로 전체 버섯 생산량의 31.6%를 차지함. 다음으로 새송이 48,588톤, 팽이 38,092톤, 표고 23,649톤 순임

<그림> 버섯류 전체 생산량 변화



## 2. 수급 및 가격동향

### 1) 수급동향

- 2016년 버섯류 총 공급량은 242,603톤으로서 2009년 이후 수출량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반면 순수입량은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등 식재료의 수요증가로 매년 급증하여 2009년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무려 2,153%가 늘어남

- 수입량 증가율이 수출량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순 수입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표> 버섯류(농산/임산버섯) 총 수급동향

(단위: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공급량 (A=B+C)	201,078	222,406	218,028	230,022	208,719	243,262	250,916	242,603
국내 생산량(B)	198,563	216,276	203,737	208,941	188,621	208,207	198,460	185,941
순수입량 (C=D-E)	2,515	6,130	14,291	21,081	20,098	35,055	52,456	56,662
수입량(D)	19,030	27,696	32,796	35,899	36,589	50,521	67,647	72,462
수출량(E)	16,515	21,566	18,505	14,818	16,491	15,466	15,191	15,800
자급률(%)	98.7	97.2	93.4	90.8	90.4	85.6	79.1	76.6

출처 : 특용작물실적(2016), 산림청 <임산물생산실적>, KATI

## 2) 가격동향

- 버섯 재배는 공장형 재배형태로 연중 생산되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계절별 소비의 증감으로 생산이 일정한 패턴을 보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늦가을·겨울철이 소비 성수기로 가격이 높음
  - 일례로 새송이버섯의 7개년(2011년~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패턴을 살펴보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가격이 다른 기간에 비해 약간 높게 거래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새송이버섯의 경우 연간 도매가격의 등락이 팽이버섯의 경우보다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연중 가격 진폭도 넓지 않은 패턴을 보임
  - 팽이버섯은 11개년(2007년~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패턴을 살펴보면 가격이 연중 매우 고르지 못하며 팽이버섯의 특성 상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가격이 상승하며 하절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줌
  - 팽이버섯의 경우 연중 도매가격의 등락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성수기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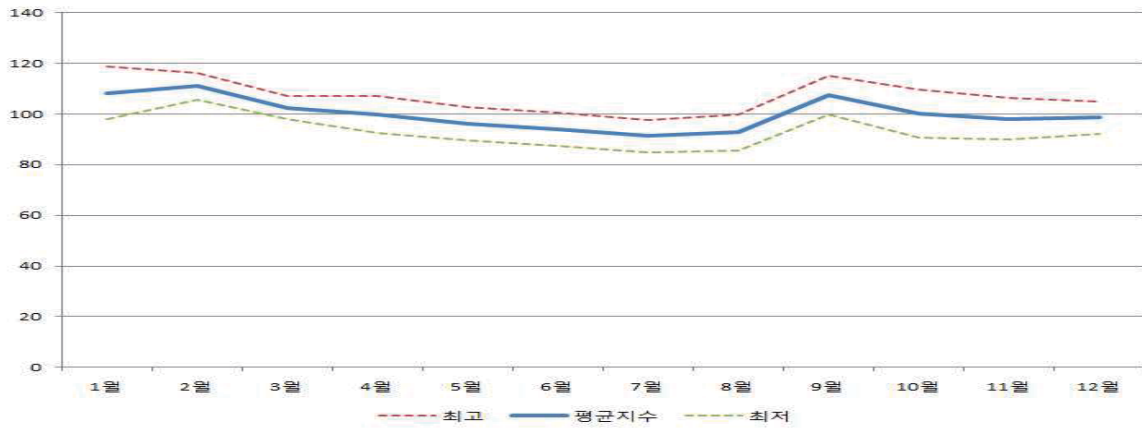


수기의 가격차가 뚜렷하여 가격이 불안정하게 나타남. 또한 연중 원별 가격 진폭이 넓고 불안정한 패턴을 보임

- 느타리버섯의 11개년(2007년~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패턴을 살펴보면 주 출하기는 11~12월과 익년 1~2월이며, 추석 직전인 8~9월의 가격이 대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가격진폭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나 수급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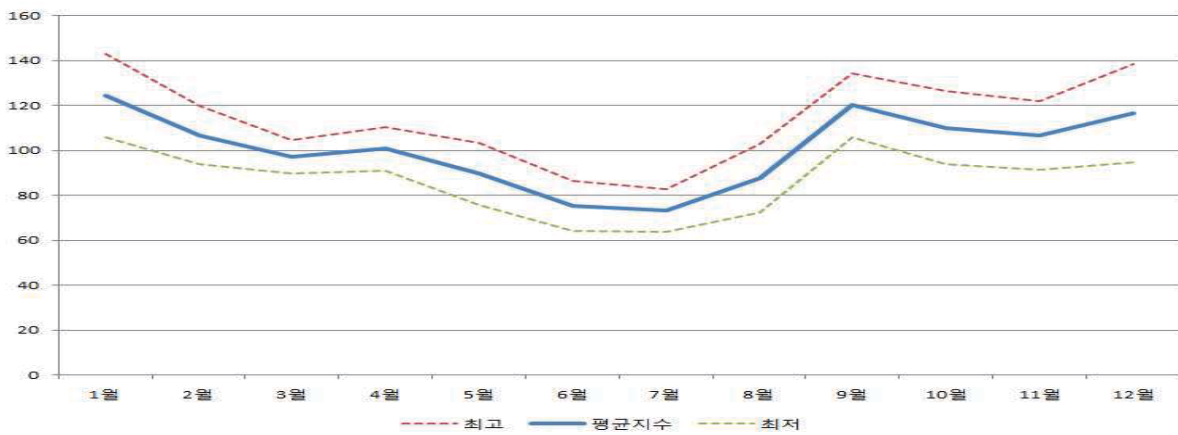
<그림> 새송이버섯 7개년(2011~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추이

(기준 100=8,436, 상품, 2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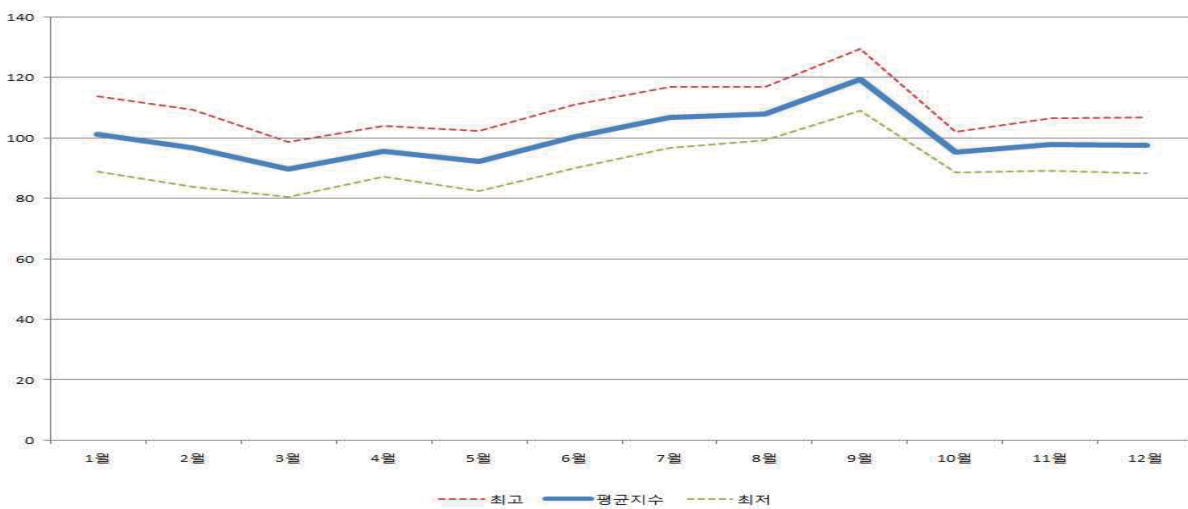
<그림> 팽이버섯 11개년(2007~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추이

(기준 100=10,034원, 상품, 5kg)



<그림> 느타리버섯 11개년(2007~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추이

(기준 100=12,391원, 상품, 2kg)



<표> 새송이버섯 7개년(2011~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추이

(기준:상품, 2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1	9,829	9,082	8,818	9,181	8,670	8,276	8,438	8,791	9,900	9,430	9,173	9,286	9,068
2012	10,170	9,390	9,238	9,200	8,467	8,260	8,082	8,455	9,690	8,543	8,136	8,168	8,806
2013	8,823	9,884	8,430	7,945	7,305	6,916	6,791	7,171	9,322	8,219	8,410	8,505	8,115
2014	9,450	9,350	8,448	8,136	8,421	8,295	7,904	7,716	8,222	7,229	6,930	7,429	8,119
2015	7,876	9,712	8,686	8,482	8,467	8,436	7,835	7,365	8,290	8,152	8,314	8,362	8,310
2016	8,160	9,578	8,873	8,370	8,090	7,543	7,438	7,473	9,274	9,490	8,764	8,286	8,422
2017	9,650	8,550	8,059	7,550	7,368	7,752	7,448	7,827	8,762	8,063	8,182	8,189	8,116

출처:KATI

<표> 팽이버섯 11개년(2007~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추이

(기준:상품, 5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07	10,636	11,842	9,143	10,295	9,167	7,765	8,357	8,277	11,659	10,300	11,373	10,684	9,921
2008	10,964	10,500	9,476	8,867	8,295	7,380	8,061	8,840	11,438	10,623	10,970	12,038	9,794
2009	13,095	10,970	11,455	9,427	7,853	7,141	6,809	11,076	13,264	11,905	10,410	12,390	10,449
2010	12,415	11,211	9,632	10,727	9,937	8,786	8,795	11,541	15,074	14,014	12,814	11,539	11,341
2011	14,686	11,647	10,073	9,676	8,710	6,562	6,962	9,418	10,830	9,760	9,245	10,781	9,831
2012	13,330	8,486	9,771	9,213	7,914	6,940	6,509	9,509	13,220	10,371	8,573	9,368	9,399
2013	12,814	10,632	8,440	12,464	8,000	5,353	5,722	6,671	10,778	10,029	11,333	16,067	9,872
2014	15,410	9,240	10,276	10,764	12,600	8,758	6,948	8,274	11,022	11,371	10,750	13,686	10,733
2015	12,762	12,765	9,641	9,745	9,211	9,145	8,478	7,360	10,440	8,733	8,971	8,886	9,629
2016	8,800	9,789	9,700	9,910	8,220	7,771	6,990	7,045	12,937	13,440	12,673	11,629	9,881
2017	11,570	9,130	10,091	9,580	8,568	8,143	7,276	8,845	11,410	9,650	8,400	8,568	9,261

출처:KATI

<표> 느타리버섯 11개년(2007~17년) 월 평균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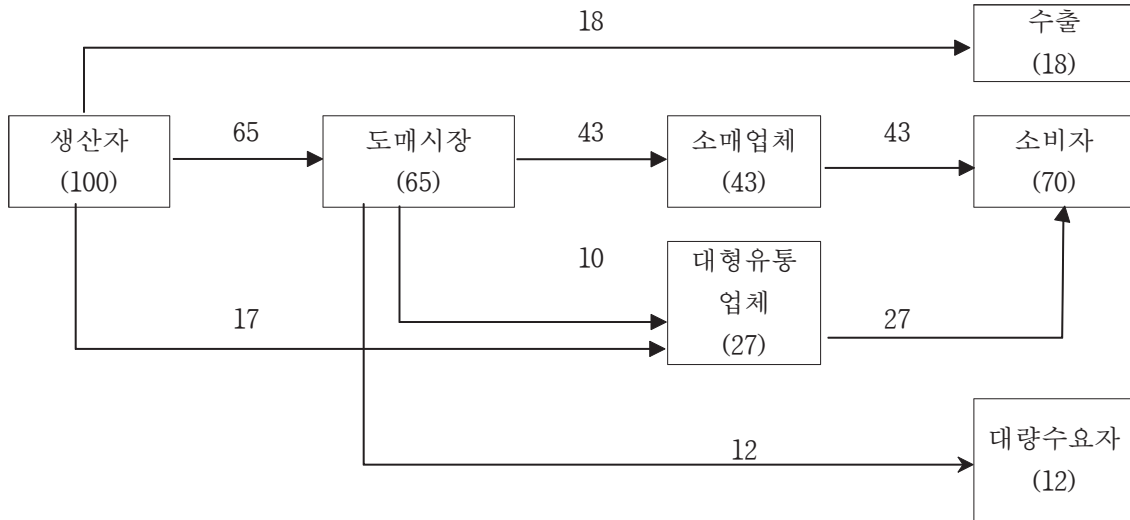
(기준:상품, 2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07	9,673	12,232	9,286	9,695	10,276	11,780	11,962	11,936	13,059	11,445	11,309	10,568	11,062
2008	11,282	11,433	10,371	10,743	10,642	11,760	12,757	12,870	13,543	11,618	12,250	12,210	11,802
2009	14,611	10,960	12,373	11,109	9,053	10,682	12,226	12,038	13,255	10,571	11,171	12,486	11,719
2010	11,530	13,626	9,418	11,618	11,626	11,295	11,691	12,582	15,211	10,857	12,636	10,835	11,860
2011	12,905	9,929	10,745	11,933	11,010	11,229	13,486	14,709	14,220	11,400	11,864	11,076	12,079
2012	13,760	10,438	12,724	13,070	12,048	12,680	13,564	15,373	16,790	12,190	11,045	11,880	12,959
2013	12,182	13,842	11,125	11,955	11,648	12,453	13,722	13,571	16,200	13,048	12,448	11,790	12,794
2014	13,900	10,890	10,943	12,018	11,389	13,947	14,226	13,158	14,311	11,905	11,710	12,248	12,542
2015	12,076	14,953	11,982	12,709	13,056	14,864	15,730	13,400	15,120	11,371	11,562	11,695	13,195
2016	11,500	11,889	11,282	13,160	13,510	13,843	14,276	14,418	16,337	13,190	14,864	14,476	13,571
2017	14,510	11,420	11,809	12,280	11,526	12,229	11,876	13,145	14,514	12,250	12,482	13,484	13,484

출처:KATI

### 3) 유통실태

○ 일반적인 버섯 유통 구조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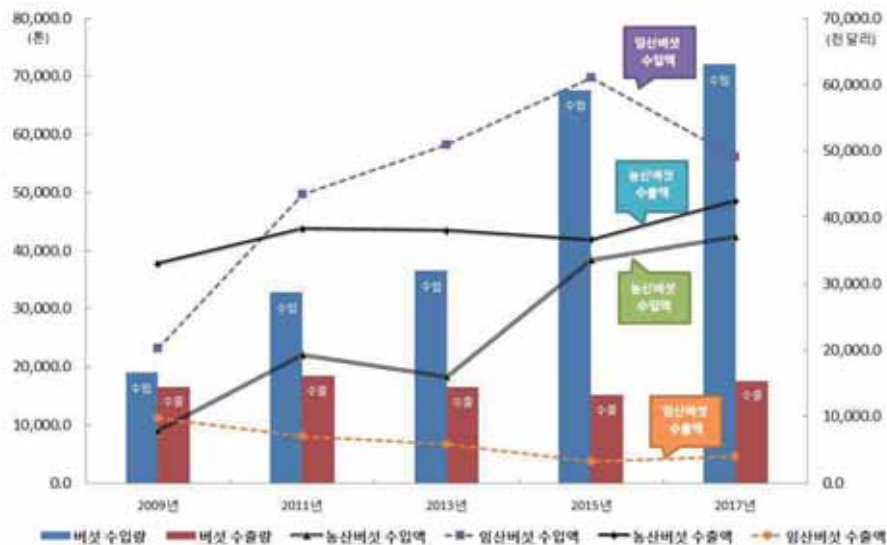


### 3. 국내 버섯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 버섯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버섯 총 총 46,472.5천 달러이며, 반면 총 수입액은 86,222천 달러(농산버섯 37,131천 달러, 임산버섯 49,091천 달러)로서 총 수입액이 총 수출액의 약 2배정도가 많음

- 버섯류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표고버섯, 가공 양송이버섯 등 식재료의 수요증가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임

<그림> 한국버섯 수출입 현황



## 1) 국내 버섯 수출 동향

- 우리나라 버섯류 총 수출(농산 및 임산버섯)은 2017년 기준 46,472.5천 달러를 기록하여 농산버섯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과거 1990년에 총 버섯 수출은 86,107천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함. 당시 주요 수출 품목은 자연송이 53,337천 달러, 표고버섯 23,258천 달러, 양송이 7,470천 달러, 영지버섯 1,257천 달러, 기타버섯 785천 달러 등 순으로 임산버섯 위주의 수출구조를 보임<sup>2)</sup>. 2000년의 버섯류 전체 수출실적은 41,643천 달러로서 이중 농산버섯이 75%를 차지하여 수출구조가 신선버섯에 편중됨.
  
- 2000년 이후의 버섯류 수출물량 변화는 2000년의 585톤에서 2005년에는 904톤까지 증가하였음. 2005년 이후부터 2010년 기간 동안은 팽이버섯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힘입어 수출이 급신장함. 팽이버섯 시장개척에 힘입어 새송이버섯도 2009년 유럽시장의 수출이 개척되면서 2010년 수출은 팽이와 새송이를 중심으로 21,566.2톤을 기록하게 되어 근년에 들어 최고 정점의 수출실적으로 기록함
  - 특히 팽이버섯은 2009년을 정점으로 대 중국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 호황기의 최정점 시기를 맞음. 그러나 2010년 이후는 한국버섯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대량생산체제(시설공조형) 재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대 중국 수출이 급감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거의 중단된 상황에 놓임
  
  - 2013년까지 한국산 팽이버섯의 주요 수입국인 베트남에서도 인국 중국의 팽이버섯 생산에 영향을 받아 수입선 다변화가 시작되면서 수출이 점차 감소됨. 특히 중국의 중·아세안 FTA의 선점(2002년 체결)으로 버섯 양허관세의 적용과 수입의 지리적 이점 등으로 대 베트남 수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한때 베트남은 한국산 팽이버섯 수출 1위국의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는 주력 수출국가에서 멀어지게 됨
  
  - 새송이버섯은 2005년 버섯류 수출물류비 지원 적용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힘입어 2009년 네덜란드로 수출이 본격 이루어지게 됨. 이듬해인 2010년에는 전년보다 26.9%의 수출 성장세를 보임. 새송이버섯은 수출이 처음 개시된

2) 자료: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판

2009년 이후 매년 꾸준한 수출확대를 보이면서 2017년까지 연평균 12.9%의 수출성장세를 나타냄

- 느타리버섯은 2000년에 처음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버섯 자체에 습이 많은 관계로 장기운송 수출에 애로를 겪으면서 수출량이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증감을 계속하고 있음. 2015년도 수출이 421.6톤으로 최고점을 보였으며 이후는 감소세에 있음. 주력 수출 국가는 몽골, 미국 호주 등이며 몽골의 경우 최근 중국산과 경합에서 밀리고 있음

<그림> 한국버섯 수출현황



- 양송이버섯은 1990년 7,470톤을 수출하였으나 이후 1995년 35톤으로 급격한 수출 퇴조를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수출이 전무한 실정임. 오히려 가공(통조림) 양송이버섯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양송이버섯의 수입은 2017년의 경우 7,449톤이 수입됨
- 만가닥버섯은 별도의 HS Code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기타 버섯으로 표기되어 수출됨. 기타 버섯의 수출 1위국은 캐나다이며, 양송이버섯 위주의 시장이지만 다양한 버섯이 소비되는 시장임
- 임산버섯 수출의 경우 건표고버섯 위주의 수출구조로서 건조목이버섯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수출금액은 3,994천 달러(106톤)로 미미함. 반면, 수입금액은 49,091천 달러를 기록함

### <표> 한국 버섯 수출 현황

(단위:톤, 천 달러)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b>합계</b>	<b>16,515</b>	<b>42,769</b>	<b>18,505</b>	<b>45,237</b>	<b>16,491</b>	<b>43,811</b>	<b>15,191</b>	<b>39,863</b>	<b>17,559</b>	<b>46,473</b>
<b>농산버섯</b>	16,221	33,039	18,241	38,232	16,332	38,000	15,081	36,606	17,453	42,478
양송이	36	51	1	6	5	105	3	11	33	135
영지버섯	20	463	18	477	18	475	13	352	8	84
느타리버섯	222	224	173	324	298	1,224	422	1,795	240	1,155
팽이버섯	12,662	21,277	13,868	22,591	11,445	19,486	9,194	16,417	10,616	18,787
새송이	2,144	6,270	3,036	11,311	3,858	14,155	4,755	15,588	5,597	19,246
기타버섯	1,137	4,754	1,145	3,523	708	2,555	694	2,443	959	3,071
<b>임산버섯*</b>	294	9,730	264	7,006	159	5,812	112	3,257	106	3,994
표고버섯	241	5,183	212	3,865	143	3,030	103	2,086	95	2,164
건조 목이버섯	29	98	34	123	0	1	1	18	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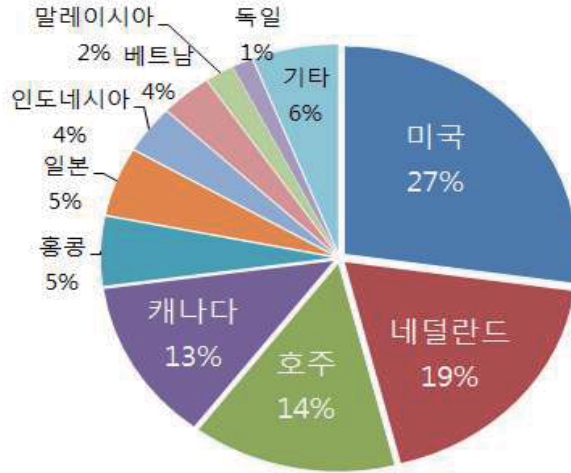
\* 임산버섯 총계는 송로, 송이버섯도 포함

출처:KATI(kati.net)

#### ① 수출국 동향

- 한국의 버섯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서 2017년 기준 수출량은 6,003톤으로 34%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2,740천 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약 28%를 차지함
  - 두 번째 최대 수출국인 네덜란드로의 2017년 기준 수출량은 2,442톤으로 14%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8,819천 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약 19%를 차지함
  - 세 번째 최대 수출국인 호주로의 2017년 기준 수출량은 2,749톤으로 16%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6,637천 달러로서 전체 수출액 중 약 14%를 차지함

<그림> 한국산 버섯 수출시장 점유율(2017년 수출액 기준)



출처 : KATI(www.kati.net)

<표> 한국의 농산/임산버섯 수출총괄

(단위:톤,천 달러)

수출액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세계		16,491	43,811	15,466	40,698	15,192	39,863	15,800	42,549	17,559	46,473
1	미국	3,806	7,807	3,857	8,516	4,760	10,761	4,959	10,618	6,003	12,740
2	네덜란드	1,302	5,686	1,559	5,882	2,113	6,798	2,291	7,786	2,442	8,819
3	호주	1,630	4,034	1,761	4,421	1,955	4,787	2,292	5,534	2,749	6,637
4	캐나다	1,762	4,245	1,630	3,897	1,817	4,208	2,218	5,170	2,436	5,873
5	홍콩	1,148	3,307	912	2,489	857	2,451	824	2,670	815	2,499
6	일본	587	4,717	561	4,197	390	2,181	236	2,585	213	2,468
7	인도네시아	445	835	512	1,019	667	1,322	757	1,497	905	1,705
8	베트남	2,976	4,884	2,359	4,111	1,090	2,093	1,026	1,807	892	1,644
9	말레이시아	985	2,026	1,122	2,483	656	1,565	414	1,040	289	932
10	독일	-	-	-	-	110	457	97	400	160	668

출처:KATI(kati.net)



## ② 수출 가격 동향

- 2011년 대비 2017년 수출단가는 새송이버섯이 3.73달러에서 3.44달러로 7.8% 하락한 반면, 팽이버섯은 1.63달러에서 1.77달러로 8.6% 상승하였고, 느타리 버섯의 경우 1.88달러에서 4.81달러로 155.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표> 버섯 품종별 수출 단가 추이

(단위:달러/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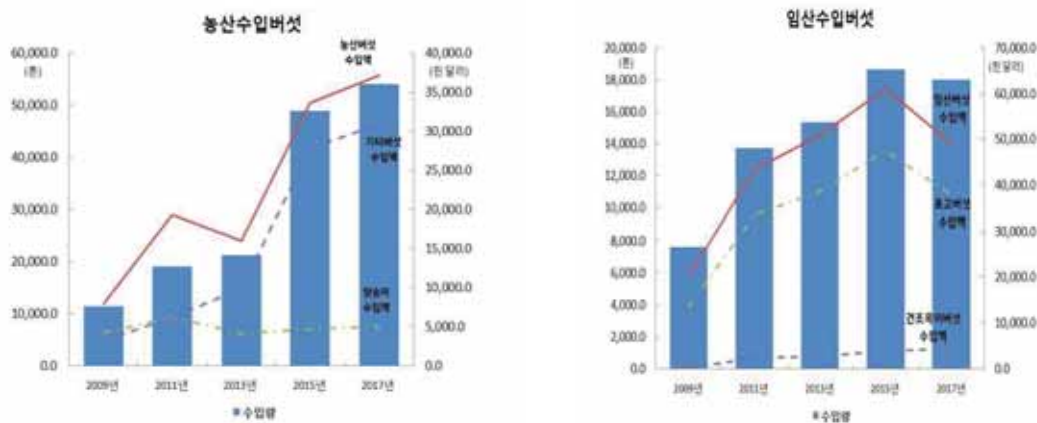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팽이	1.68	1.63	1.7	1.79	1.77
새송이	2.92	3.73	3.67	3.28	3.44
느타리	1.01	1.88	4.1	4.26	4.81

## 2) 국내 버섯 수입 동향

- 우리나라 버섯류 총 수입(농산 및 임산버섯)은 2017년 기준 수입액이 86,222천 달러를 기록. 이중에서 농산버섯이 37,131천 달러, 임산버섯이 49,091천 달러로 나타남. 이중에서 농산버섯 중에서 신선버섯 형태의 수입은 대체로 미미하며 거의 모든 버섯이 가공품 형태로 음식재료로 사용되는 통조림 형태로 수입되고 있음. 임산버섯은 건표고버섯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

- 건표고버섯 수입 수요를 대체하기 위하여 관련 버섯의 생산기반의 기술전환(시설표고)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가공버섯의 개발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와 수출전략이 필요함

<그림> 한국버섯 수입현황



**<표> 한국 버섯 수입 현황**

(단위:톤, 천 달러)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b>합계</b>	<b>19,030</b>	<b>28,228</b>	<b>32,796</b>	<b>62,810</b>	<b>36,589</b>	<b>66,932</b>	<b>67,647</b>	<b>94,702</b>	<b>72,026</b>	<b>86,222</b>
<b>농산버섯</b>	<b>11,420</b>	<b>7,951</b>	<b>19,060</b>	<b>19,353</b>	<b>21,262</b>	<b>16,017</b>	<b>48,976</b>	<b>33,633</b>	<b>53,997</b>	<b>37,131</b>
양송이	6,316	4,907	9,457	13,162	6,232	8,070	7,018	8,614	7,450	9,684
영지버섯	247	681	376	1,185	189	656	222	741	211	639
느타리버섯	1.7	13.7	0	0.1	0	0	0	0	0	0.2
팽이버섯	0	0	0	0	0	0	0	0	0	0
새송이	0	0	0	0	0	0	0	0	0	0
기타버섯	4,855	2,350	9,227	5,007	14,841	7,291	41,735	24,278	46,336	26,808
<b>임산버섯*</b>	<b>7,610</b>	<b>20,277</b>	<b>13,736</b>	<b>43,457</b>	<b>15,327</b>	<b>50,915</b>	<b>18,671</b>	<b>61,069</b>	<b>18,029</b>	<b>49,091</b>
표고버섯	7,101	13,571	12,696	33,610	14,256	38,583	17,436	47,458	16,774	37,731
건조 목이버섯	27	141	539	2,257	595	2,615	767	3,869	929	4,389

\* 임산버섯 총계는 송로, 송이버섯도 포함

출처:KATI(kati.net)

### III 해외시장동향 01 : 미국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구	3억 2,819만 5,137명(2018년 7월 23일 기준 추정치) (U.S. Census Bureau, www.census.gov/popclock)
면적	937만 2,610km <sup>2</sup> (세계 3위,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기후	북위 40°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에 위치,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의 위도가 24°나 되는 대륙인만큼 기후 차이가 심함.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 대에 이르기까지 기후 조건이 다양함
주요 도시	뉴욕(862만), 로스앤젤레스(400만), 시카고(272만), 휴스턴(231만), 피닉스(163만), 필라델피아(158만), 샌안토니오(151만), 샌디에고(142만), 달라스(134만), 산호세(104만), 오스틴(95만), 잭슨빌(89만), 샌프란시스코(88만), 콜롬버스(88만), 포트워스(87만)(U.S. Census Bureau, 2018년 7월 기준 최신자료)
민족 구성	백인(76.6), 흑인(13.4%),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8%),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 이상 인종 (U.S. Census Bureau, 2018년 7월 기준 최신자료)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종교	기독교/카톨릭(70.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힌두교(0.7%), 토착신앙(0.3%), 기타(1.5%), 무교(22.8%)
화폐 단위	미 달러(US\$)
GDP	19조 9,601억 달러(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8년 1분기 기준)
산업 구조	금융·부동산(13.4%), 전문서비스(12.1), 제조업(11.7), 교육/의료(8.4%), 도소매(11.8%), 정보통신(4.8%), 건설(4.3%), 문화서비스(4.0%), 교통(3.0%), 광업(1.8%), 전력(1.5%), 농업(0.9%), 기타 서비스(2.2%), 정부 부문(12.5%)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CIA The World Factbook(www.cia.gov)

## 1) 산업동향

### ① 국가개황

○ 미국은 50개의 주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으로 북측으로는 캐나다와 남측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 전 세계에서 총 면적이 세 번째로 큰 나라에 속하며, 인구 또한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손꼽히는 다문화 국가임. 도시와 교외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3%일 정도로 도시화되어 있음

- 미국의 행정 구역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위인 제1단계는 미국 전체 영토를 50개의 주(State), 1개의 특별구(Federal district), 즉 워싱턴 D.C.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미국의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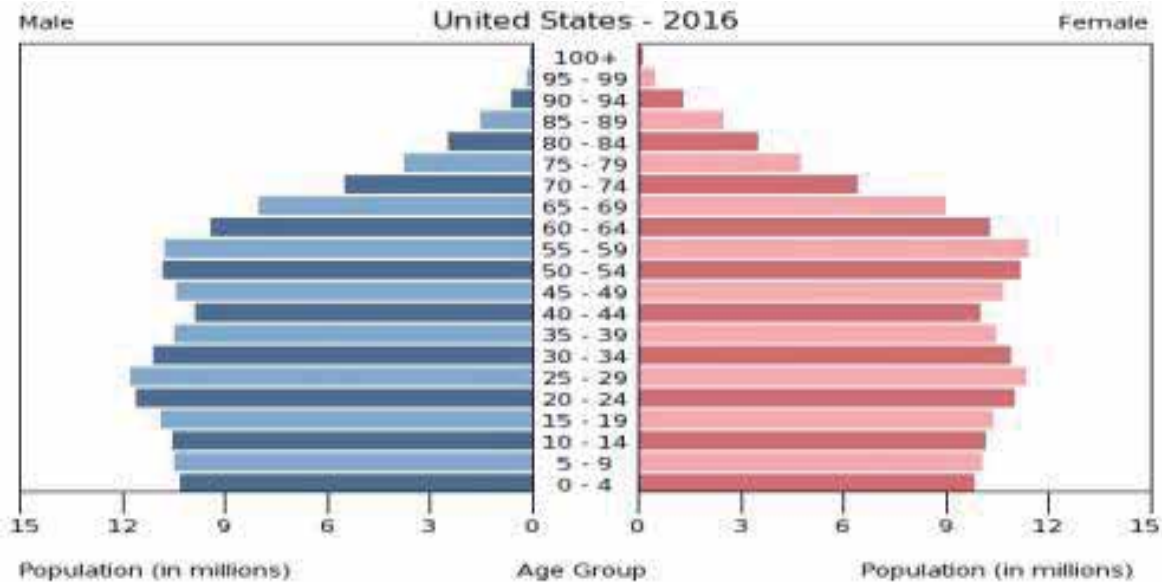


출처 : 나무위키

○ 총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3억 2,9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0~14세 인구가 18.62%, 15~64세 인구가 65.35%, 65세 이상 인구가 16.03%임. 유럽이나 아시아에 속해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은 현재 고령화나 인구 감소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음. 이는 높은 출산율 때문이 아니라 이민자나 국외거주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의 경우 미국이 38.2세로 일본(47.7세)나 독일(47.4세)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미국의 인구구조



출처 : CIA, The World Factbook 2018, United States

## ② 경제

- 미국의 경제는 2018년 기준 명목상 국내 총생산이 20조 4,128억 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2위는 중국으로 국내 총생산 14조 925억 달러임
- 고용호조, 유가 상승세 등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는 양호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실업률의 경우 2018년 5월 3.8%까지 하락하였음

<표> 미국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1.68	2.57	2.86	1.49	2.27
GDP(백만 USD)	16,692,517	17,427,609	18,120,714	18,624,475	19,390,604
1인당 GDP(USD)	52,782.09	54,696.73	56,443.82	57,588.54	59,531.66
물가상승률(%)	1.47	1.61	0.12	1.27	2.14
이자율(%)	3.0360	2.1705	2.2694	2.4454	2.4101
실업률(%)	7.36	6.18	5.27	4.87	4.35

출처 : 세계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③ 교역

- 미국 기업 활동 강화, 달러화 강세 등에 힘입어 수입이 수출 대비 크게 증가를 보이며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감소함

<표> 미국 무역수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백만 USD)	2,293,454	2,375,904	2,263,907	2,208,071	2,331,600
수입액(백만 USD)	2,755,329	2,866,238	2,764,353	2,712,865	2,900,039
무역수지(백만 USD)	△461,875	△490,334	△500,446	△504,794	△568,439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④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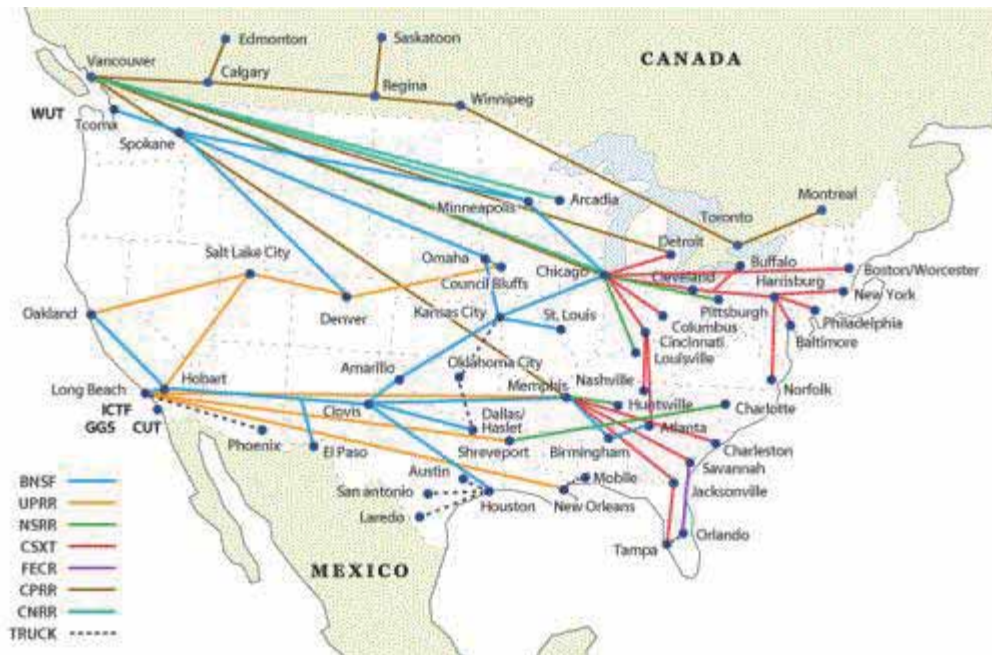
- 거대한 국토를 가졌지만 최첨단 IT기술과 항공, 해상, 육로 물류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 미국 전역에 72시간 내 운송이 가능함



## 가. 해상

-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화물은 주로 미국 서해안의 3개 항구(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를 통해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미국 내륙지역이나 동쪽 항구지역으로 운송됨

<그림> 미국의 항구 및 내륙 운송지도



출처 : 현대상선

- 해상의 경우 상위 8개 항구가 북미 전체 물동량의 54%를 차지함. 태평양 연안 서해안의 해상운송 주요 항구는 LA항구로 북미 전체 물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서양 쪽의 뉴욕이 9%를 차지하고, 남부의 휴스턴이 3%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 수출 항구는 LA항구로 운송기간도 10~15일 정도 소요되며 해상운임도 가장 저렴함. 반면, 파나마운하를 통해 운송되는 뉴욕 항은 운송기간이 약 25일 이상 소요됨

<표> 한국에서 미국 해상 물류 소요 기간

출발	도착	소요일수
부산	로스엔젤레스	10~15일
	롱비치	10~15일
	아틀란타	-
	시카고	-
	달라스	-
	뉴욕	25~30일
	오클랜드	10~15일
	시애틀	10~15일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나. 항공

- 항공의 경우 멤피스가 1위로 전체 북미 물동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앵커리지로 10%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상위 8개의 공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은 전체 북미 항공 물동량의 62%에 해당하는 등 북미에서 가장 많은 양의 화물을 소화하고 있음
- 항공의 경우 운송거리와 비행편 횟수에 따라 물류운임이 다르게 적용되어 뉴욕과 LA 등에 비해 마이애미, 달라스의 경우 항공운항편이 적고 운송거리도 멀어 운임단가가 높게 적용되고 있음

#### 다. 육상

- 미국의 내륙운송은 선진화된 트럭 및 철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미국 트럭 운송 연합에 의하면 미국은 연간 92억 톤의 화물을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음. 주요 출발지 및 도착 지점은 시카고, 뉴욕, 로스엔젤레스, 애틀란타와 세인트루이스가 있음



## ⑤ 식품산업동향

- 미국 최대의 친환경 식품 유통체인 홀푸드(Whole Foods)에서 최근 26명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2019년 미국 식품 트렌드를 예측함. 주요 내용으로는 ‘환태평양 연안의 맛’을 지닌 음식, ‘상온 보관 가능한 유산균’, 친환경 포장 ‘, ’ 해초 스낵 ‘등이 있음
  - 그 중, 최근 채식주의자뿐 아니라 채식주의자가 아닌 소비자들도 더 많은 맛을 탐구하고 육류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식품과 스낵에서 더욱 풍부한 감칠맛을 느끼기 위해 식물 기반 스낵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조 고기 스낵(Faux Meat Snacks)가 언급됨
  - 이러한 인조 고기 스낵(Faux Meat Snacks)에 돼지고기 육포 또는 베이컨 스낵의 맛과 식감을 흉내 낼 수 있는 느타리 버섯의 일종인 king trumpet 버섯이 주로 활용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미국 내 유기농 식품뿐 아니라 유기농 화장품과 같은 다른 품목에서도 유기농 제품 판매가 늘어날 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소비자들은 유기농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지만 장기적이 관점에서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기농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 미국 유기농무역협회(OTA, The Organic Trade Association)이 유기농 제품 구매 행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 버섯 시장 동향

### □ 미국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미국 내 버섯의 HS CODE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러나 국가별로 HS CODE가 일곱 번째 자리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 통계는 같은 품목의 상위 범주인 HS CODE 0709.59(Fresh or chilled edible mushrooms and truffles (excluding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으로 조사함

<표> 미국 내 버섯 HS Code 분류

HS CODE	품명
0709.51.01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09.59	기타
0709.59.1000	송로
0709.59.9000	기타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 기본적으로 미국은 버섯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 크게 아가리쿠스 버섯 (Agaricus Mushroom), 특수버섯(Specialty Mushroom), 약용버섯 (Medicinal Mushroom), 야생버섯(Wild Mushroom)으로 구분됨
  - 본 동향보고서의 주요 조사 품목인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은 특수버섯 (Specialty Mushroom)으로 분류되며, 특수버섯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된 품종들로 맛과 향, 식감의 다양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버섯을 포함함
- 미국의 버섯 소비 품종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로 곱보버섯(Morel Mushroom), 영지버섯(Reishi Mushroom)은 의약적 효과가 뛰어난 약용버섯으로 알려져 건강음료,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자주 이용됨
-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신선 버섯 자체 생산량이 많은 편임에도 신선 버섯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가공 버섯 수입의 3배에 달하는 양의 신선 버섯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신선 버섯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 소비자들에게 버섯은 주로 양송이버섯을 의미하며 한국산 버섯에 속하는 팽이, 느타리, 새송이 버섯의 경우 주로 한인과 중국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비되고 있음
- 유기농, 글루텐프리, 저염 등 웰빙 트렌드의 정착으로 건강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버섯류의 경우 연소득 100,000달러 이상의 소비자들의 소비가 높음

① 생산동향

- 농업 통계 사이트인 FAOSTAT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미국 버섯 및 송로 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9,932톤 감소한 419,630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07년(359,630톤) 대비 16.7%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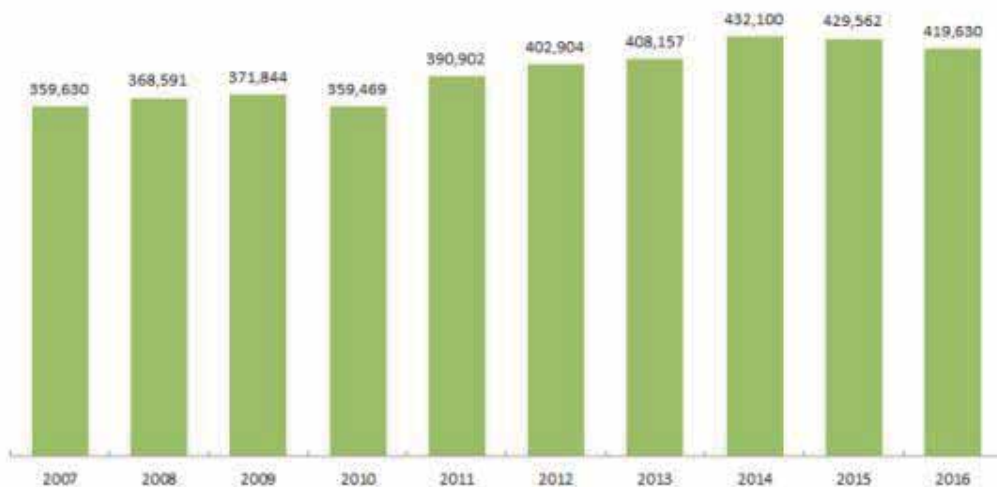
<표> 미국 버섯 생산량

(단위: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59,630	368,591	371,844	359,469	390,902	402,904	408,157	432,100	429,562	419,630

출처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그림> 미국 버섯 생산동향



출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7년~18년 사이 버섯류(아가리쿠스 및 특수버섯) 생산자 수는 307개 업체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판매량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판매액은 증가하고 있어 단위가격(달러/파운드)은 2015-16년 1,260달러/파운드에서 2017년-18년 1,340달러/파운드로 6.35% 상승함

**<표> 미국 버섯류(아가리쿠스 버섯 및 특수버섯) 생산 및 판매현황**

구분	생산자 수	판매량 (천 파운드)	단위가격 (달러/파운드)	판매액 (천 달러)
2015-2016	347	943,414	1,260	1,191,317
2016-2017	317	933,355	1,310	1,226,127
2017-2018	307	917,235	1,340	1,233,582

출처: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2017년 18년 사이에 상업적으로 재배된 특수 버섯의 매출액은 1억 600만 달러로 2016년~17년 대비 2% 상승하였음. 재배업체가 받은 평균 단가는 파운드당 4,06달러로 이전 시즌의 수정된 추정치보다 20센트 증가함
- 특수 버섯 생산업체의 경우 적어도 200개의 자연 목재를 생산에 사용하거나 상업적인 실내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200달러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한 함
- 미국의 버섯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느타리버섯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생산량이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여줌
- 2015~2016년 대비 2016~2017년, 724만 파운드 가량 생산이 증가함

<표> 특수 버섯(Specialty Mushrooms) 생산 및 판매 현황

구분	생산자 수	전체 생산량 (천 파운드)	판매량		
			판매량 (천 파운드)	단가 (달러/파운드)	판매액 (천 달러)
<b>2014-2015</b>	<b>265</b>	<b>21,548</b>	<b>20,632</b>	<b>3.54</b>	<b>72,986</b>
표고버섯	215	9,490	9,251	3.26	30,151
느타리버섯	124	7,996	7,724	3.19	24,610
기타	48	4,062	3,657	4.98	18,225
<b>2015-2016</b>	<b>248</b>	<b>25,853</b>	<b>24,402</b>	<b>3.79</b>	<b>92,572</b>
표고버섯	200	10,296	10,111	3.26	32,959
느타리버섯	124	10,564	10,001	3.60	35,986
기타	45	4,993	4,290	5.51	23,627
<b>2016-2017</b>	<b>226</b>	<b>26,126</b>	<b>25,464</b>	<b>3.78</b>	<b>96,183</b>
표고버섯	182	10,679	10,469	3.89	40,743
느타리버섯	119	11,288	10,987	3.10	34,091
기타	55	4,159	4,008	5.33	21,349
<b>2017-2018</b>	<b>229</b>	<b>27,387</b>	<b>26,004</b>	<b>4.06</b>	<b>105,696</b>
표고버섯	185	10,429	10,112	4.44	44,883
느타리버섯	116	11,268	10,842	3.13	33,890
기타	64	5,690	5,050	5.33	26,923

출처: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미국 현지 버섯 판매량 대비 생산량 비중은 2015년 85.94%(에서 2017년 87.85%로 소폭 성장하였음)

<표> 2015~2017년 미국 버섯 생산·판매량

구분	생산		판매			판매량 대비 생산량 비중
	생산량 (천 파운드)	농가 수	판매량 (천 파운드)	파운드 당 가격(달러)	판매량 (천 달러)	
2,015	810,810	347	943,414	1.260	1,191,317	85.94%
2,016	508,970	317	933,355	1.310	1,226,127	86.35%
2,017	805,860	307	917,235	1.340	1,233,582	87.85%

출처 :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Mushrooms, USDA, Estimated Domestic Fresh Mushroom Volume, Mushroom Council

- 미국의 유기농버섯은 대부분 양송이버섯 위주의 생산임. 유기농버섯 생산량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체 버섯 생산량의 11.2%가 유기농 인증을 취득함
-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버섯은 총 1억 8,800백만 파운드가 생산됐으며, 이는 2016년에서 17년 사이의 생산량보다 16% 증가한 수치임. 이 중 68%에 해당하는 8,740만 파운드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버섯으로 판매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7%p 상승한 것임
- 유기농 인증을 받은 버섯의 총 판매액은 전체 버섯 판매액의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버섯의 판매액 중 83%는 아가리쿠스 버섯, 그 외 17%는 특수 버섯으로 구성됨
- 유기농 버섯 생산업체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4개 업체가 증가하여 총 80개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버섯 생산업체 307개 중 26%에 해당함

<표> 미국 유기농 버섯 생산 규모

(단위 : 천 파운드, %)

구분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버섯 생산량	921,548	955,853	976,126	2.9
유기농버섯 생산량	60,700	73,500	109,000	34.0
유기농버섯 비중	6.6	7.7	11.2	-

출처 : Vegetable and Pulses Yearbook(2017), USDA, National Agriculture Statistics Service\_Mushrooms(2017)

## □ 유기농버섯 생산기준

- 미국의 유기농 작물 생산기준은 작물별로 정해져 있는데, 버섯에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유기농 생산기준이 지정되어 있음

\* 미국유기농 버섯에 관한 생산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조회 가능

<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Recommended%20Mushroom%20Standards.pdf>

- 유기농버섯 생산을 위한 배지 및 목재는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함

### <표> 미국 유기농버섯 생산기준

- 
- 버섯의 생산 및 수확 전 과정에서 금지물질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함
  - 비산염 및 기타 금지물질로 처리된 목재 사용이 금지됨
  - 유기적으로 생산된 종균(spawn)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비 상업적인 용도일 경우 유기적으로 생산되지는 않았으나, 금지물질이나 유전자변형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함
  - 버섯배지에 사용되는 퇴비는 미국 유기농 기준에 관한 연방법 「CFR 205.203」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살균제 및 소독제에 관한 국가 목록(National List)에 없는 것은 사용이 금지됨
- 

- 유기농 퇴비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생산해야 함

### <표> 미국 유기농 버섯배지 퇴비 생산기준

- 
- 탄소와 질소의 비율은 25:1~40:1로 설정할 것
  - 밀폐된 용기 또는 공기주입방식을 이용하여 퇴비화하는 경우 3일간 화씨 131~170°F를 유지해야 함
  - 자연통풍방식으로 퇴비화하는 경우 15일간 화씨 131~170°F를 유지해야 하며, 이때 퇴비 더미는 최소 5번 이상 뒤집어 주어야 함
- 

- 연방법에 따라 유기농 재배 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물질은 다음과 같음

- 합성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비료 또는 동식물 퇴비
- 분뇨를 태운 재, 비소, 염화칼슘, 납염, 염화칼륨, 질산나트륨, 플루오르알루미늄, 티코틴황산염, 스트리크닌

- 버섯 생산기준 외에도 유기농 생산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버섯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농산물 생산 시 적용됨

\* 유기농생산 및 관리기준(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Standards)

<https://www.ams.usda.gov/poblications/content/organic-production-handling-standards>

- 유기농산물 생산자는 토양의 상태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토양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방법으로 작물을 생산해야 함

- 순환경작, 간작(間作) 등을 통해 토양을 관리해야 함

## ② 수·출입동향

### □ 글로벌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글로벌 시장 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수입량 9,981톤, 수입액 45,093천 달러로 2017년 수입액 기준 5위를 차지함

- 미국은 글로벌 수입 비중에서 2017년 기준 수입량, 수입액 각각 4.85%(9,981톤), 5.95%(45,093천 달러)를 차지하였음

<표> 글로벌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 년 수입 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77,432	709,677	192,412	733,687	193,250	723,397	205,820	757,992
1	독일	17,413	89,479	21,069	94,043	23,872	100,418	23,091	95,902
2	프랑스	20,416	79,037	21,809	73,279	19,145	71,770	17,991	71,880
3	이탈리아	10,203	54,933	10,169	52,509	7,313	45,500	7,497	68,664
4	일본	4,289	71,464	3,578	59,121	3,213	60,912	3,108	64,669
5	미국	9,087	27,307	10,139	39,254	9,852	39,139	9,981	45,093



6	영국	18,648	52,581	21,369	54,890	21,613	52,862	19,966	44,404
7	태국	12,502	21,512	16,670	27,098	20,507	32,498	21,047	33,763
8	네덜란드	3,837	21,460	4,113	19,901	4,860	21,721	5,585	25,628
9	오스트리아	5,098	25,336	4,278	23,857	4,416	23,519	4,022	23,229
10	베트남	767	4,845	1,026	6,695	2,095	11,378	13,360	22,529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 수입동향

- 2017년 수입액 기준 5대 수입국으로는 이탈리아, 대한민국, 중국, 캐나다, 스페인 순임.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이 가장 높지만 동양계버섯 수입액의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93.1%(9,293톤), 수입액의 38.2%(17,232천 달러)를 차지함
- 2017년 금액기준 미국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이탈리아로 2017년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0.14%(14톤)으로 미미하지만 수입액의 경우 27.5%(12,409)를 기록함. 이탈리아 대표적 버섯인 포르치니(porcini)와 오볼리(ovoli) 등 특수버섯류의 버섯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수입물량은 많이 많음
- 미국버섯협회의 수입버섯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내 수입된 한국 기타 버섯(HS CODE 0709.59)은 총 2,169,087kg으로 408만 3,517달러의 가치를 지님.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수입된 한국산 버섯의 양보다 약 16% 늘어난 수치로 지속적으로 한국산 버섯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sup>3)</sup>

3)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미국, 만가닥버섯),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 미국의 버섯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9,087	27,307	10,139	39,254	9,852	39,139	9,981	45,093
1	이탈리아	13	8,909	12	10,541	15	10,569	14	12,409
2	대한민국	2,682	3,361	4,101	8,176	4,510	9,217	5,373	11,196
3	중국	5,810	5,075	5,198	7,044	4,373	6,336	3,920	6,036
4	캐나다	412	4,066	684	5,884	795	5,534	566	4,893
5	스페인	3	1,294	3	1,724	3	2,012	5	3,761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미국 현지 버섯 수입량은 2015년 1억 1,416만 파운드에서 1억 3,551만 파운드로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 내 총 버섯량 중 수입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2015년 12.34%에서 2017년 14.39%로 증가함

- 이를 통해,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수입 버섯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버섯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표> 2015~2017년 미국 버섯 생산·수입량

2015				2016				2017			
생산량	수입량	총합	수입량 비중	생산량	수입량	총합	수입량 비중	생산량	수입량	총합	수입량 비중
810810	114160	924970	1234%	805970	125500	931540	1347%	805800	135510	941370	1439%

출처 :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Mushrooms, USDA. Estimated Domestic Fresh Mushroom Volume, Mushroom Council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전체 농산물 수출액(673,839.4천 달러) 중 농산 버섯의 수출액(13,718.7천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조사됨
  - 농산 버섯류의 미국 전체 수출액 13,718.7천 달러 중 팽이버섯이 9,212.3천 달러로 67.2%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송이버섯이 3,856.8천 달러로 28.1%가 수출됨. 이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수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버섯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 2018년의 경우, 미국으로 총 13,718.7천 달러의 농산 버섯이 수출됐으며 이는 2016년(10,329.8천 달러)에 비해 32.8%나 증가한 금액임
  - 팽이버섯의 경우 2018년 총 9,212.3천 달러가 미국으로 수출됐으며 2016년(6,940.6천 달러)에 비해 32.7% 증가함
  - 새송이버섯의 경우 2018년 총 3,856.8천 달러가 미국으로 수출됐으며 2016년(2,492.4천 달러)에 비해 54.7% 증가함

<그림> 우리나라 버섯류 수출 현황(미국)



출처 : KATI

## □ 수출동향

- 2016년 기준, 전세계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수출액 168,966천 달러 중 미국은 총 10,701천 달러를 수출하며 6.33%의 비중을 차지함<sup>4)</sup>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출국은 국경이 인접한 캐나다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기타 버섯은 5,423천 달러로 수출액은 61.2%에 해당하며, 수출량은 70.6%에 달함

<표> 미국의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수출동향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출액 기준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세계	1,239	10,327	1,145	10,701	1,145	8,857
1	캐나다	786	5,684	699	5,656	808	5,423
2	일본	80	1,098	84	1,983	21	1,193
3	바하마	106	506	108	497	115	550
4	네덜란드	38	814	24	485	23	392
5	프랑스	81	1,214	70	1,049	28	353

출처: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 미국 가공 버섯(HS CODE 2003.90) 시장

- 미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통해 가공 버섯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한 결과 아가리쿠스 중 버섯의 경우 무게와 전처리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HS CODE가 분류되지만 기타 버섯을

<sup>4)</sup> 2017년 수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2016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함

활용한 가공 제품의 경우 모두 HS CODE 2003.90.8090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됨<sup>5)</sup>

- 기본세율은 kg당 6센트에서 8.5% 관세가 추가되나 한국의 경우 무관세임

**<표> 미국 내 가공 버섯 HS Code 분류**

HS CODE	품명
2003.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으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버섯과 송로 : 기타
2003.90.1000	송로
2003.90.80	기타
2003.90.8010	초고버섯(Straw mushrooms)
<b>2003.90.8090</b>	<b>기타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만가닥버섯 등)</b>

출처 :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ww.usitc.gov)

### 가. 글로벌 HS CODE 2003.90 수입 현황

○ 글로벌 가공 버섯 수입 현황 중 미국은 2017년 수입액 기준 3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수입 시장 중 6.16%의 점유율을 차지함

- 하지만 최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글로벌 가공 버섯(HS CODE 2003.90)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세계	188,191	193,037	242,578
1	베트남	1,136	869	67,578

5) 한국산 버섯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식재료 시장 개척방안, 2018, K-mush

2	일본	44,378	43,160	40,603
3	미국	15,938	13,269	14,952
4	홍콩	11,839	21,242	14,037
5	프랑스	11,918	9,667	10,927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나. 미국 내 신선제품 가공 개념<sup>6)</sup>

○ 미국은 1987년도부터 신선편이 제품 협회 IFPA(International Fresh cut Products)를 통해 신선편이 산업이 발달해 왔으며 한국과 같이 신선편이와 전처리에 대한 개념이 존재함

- 미국 내 신선편이는 Fresh-cut, 전처리는 Lightly processed로 구분됨

○ 버섯의 원료 수확, 진공예냉, 저온저장, 선별 다듬기까지의 과정만 거친 버섯을 전처리 버섯이라고 칭하며, 그 이후의 세척과 탈수 작업을 거쳐 포장된 버섯을 신선 편이 버섯이라 칭함. 따라서 소비자들은 신선 편이 버섯을 마트에서 구매해서 별도의 세척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지만 전처리 버섯은 자체 세척 후 섭취를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6) 한국산 버섯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식재료 시장 개척방안, 2018, K-mush

#### 다. 미국 내 전처리 제품 수입 및 유통 동향

- 미국의 수입 데이터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해외 전처리 버섯의 경우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헝가리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가공 버섯의 경우 이탈리아, 베트남, 중국, 프랑스산 제품이 전체 수입 규모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K-mush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산 버섯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의 인터뷰를 통해 취급하고 있는 버섯의 주요 원산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남아프리카산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답변도 확인됨
  -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버섯 종류로는 화이트, 브라운, 점보, 포토벨로, 포시니, 살구버섯임

#### ③ 소비동향

- 미국 소비자들은 주로 신선 버섯 형태로 버섯을 섭취함. 2016년 기준 전체 공급량의 90%가 신선버섯 형태로 판매되었으며, 가공용 소비는 10% 수준에 그침<sup>7)</sup>
- 미국 소비자들은 버섯을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음식에 활용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양송이버섯은 얇게 썰어 피자·파스타·버거·스테이크 소스 등에 활용함
  - 표고버섯의 경우 고기와 가장 비슷한 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함을 중요시 하는 소비자들은 기름진 고기 대신 섭취함
  - 씹는 식감이 특징인 팽이버섯의 경우, 주로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간장, 두부와 함께 곁들여 아시아식 수프 요리로도 조리하여 사용함
- 미국의 1인당 평균 신선버섯 소비량은 2017년 기준 1.78kg으로 전년 대비 소

7) 미국 버섯위원회(<http://www.mushroomcouncil.org>)

폭 하락하였음. 가공버섯의 경우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0.46kg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됨

<표> 미국의 신선버섯 및 가공버섯 1인당 소비량

(단위:kg)

구분	2015	2016	2017
신선버섯 소비량	1.31	1.34	1.33
가공버섯 소비량	0.48	0.47	0.46

출처: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아가리쿠스 버섯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사이 총 813,052파운드가 신선버섯 형태로 판매되었으며, 신선버섯 판매량의 9.6%에 해당하는 78,179파운드가 가공되어 판매됨. 매출 단가의 경우 신선버섯이 1.320달러/파운드로 가공되어 판매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아가리쿠스 버섯 판매 현황

구분	신선버섯			가공버섯		
	매출량	매출단가	매출액	매출량	매출단가	매출액
2015-2016	824,114	1.260	1,035,106	94,898	0.671	63,639
2016-2017	811,621	1.310	1,060,281	94,972	0.659	62,540
2017-2018	813,052	1.320	1,070,316	78,179	0.736	57,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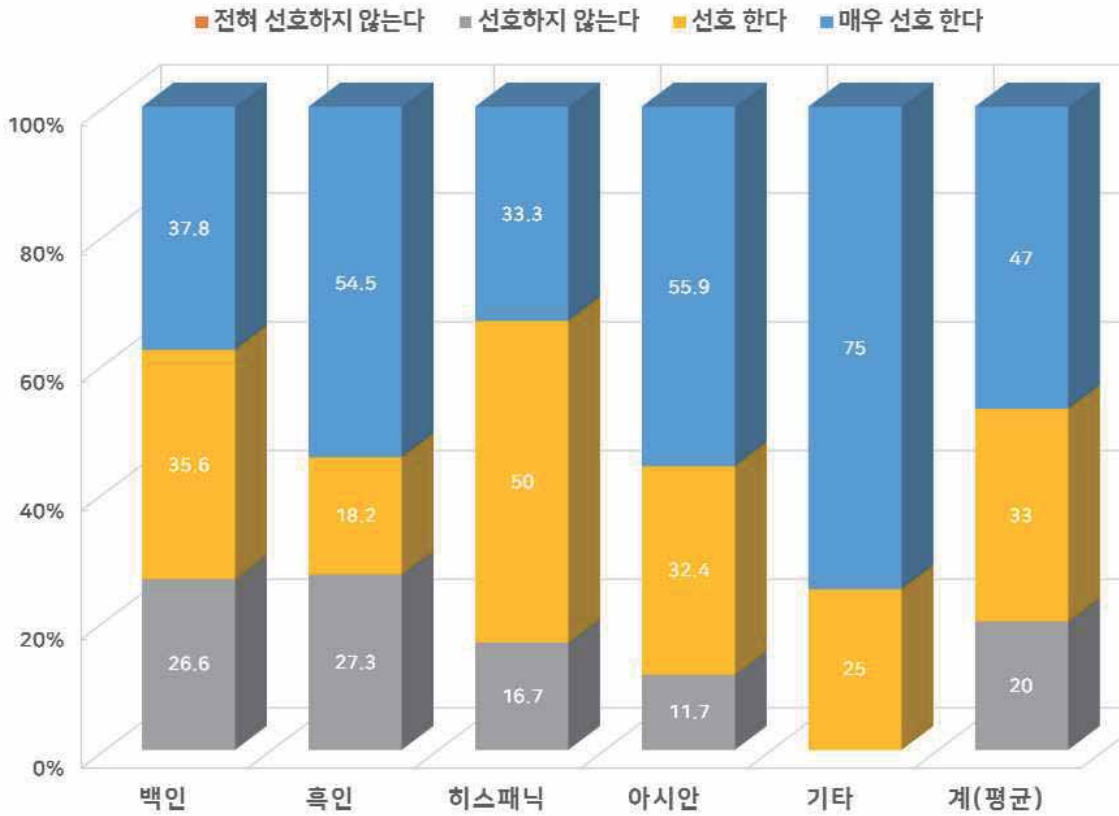
출처: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16 FTA로 다시 보는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자들의 팡이버섯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팡이버섯의 경우 값이 저렴하고,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아 인종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하지만 신선도를 유지하는 법과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이 많아 향후 팡이버섯을 활용한 요리법을 함께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내 인종별 팡이버섯에 대한 선호도는 평균 8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 향후 주류시장 진출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그림> 인종별 팡이버섯에 대한 선호도



- 인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60% 이상 선호도를 보였으며, 히스패닉이나 아시아인의 경우 80~90%에 달하는 선호도를 보임

<표> 인종별 선호도 표본

(단위:%)

인종	표본수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 한다	매우 선호 한다
백인	45	0	26.6	35.6	37.8
흑인	11	0	27.3	18.2	54.5
히스패닉	6	0	16.7	50	33.3
아시안	34	0	11.7	32.4	55.9
기타	4	0	0	25	75
계(평균)	100	0	20	33	47

□ 소매가격동향



○ 소매가격동향의 경우 미국 LA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함


○ 한인 교포 식품 마켓 : 가주마켓 (GAJU Market)

제품 이미지	제품명/브랜드	제조국	수입 유통업체	판매가격
	Guans Mushroom / King Oyster Mushrooms (킹 오이스터 버섯)	한국산	Guans mushrooms (캘리포니아, 미국)	\$1.99 /300g
	미미청아랑/ Mini King Oyster mushroom (미니오이스터 버섯)	한국산	청아랑 (한국, 미국)	\$2.49 /400g
	후레쉬믹스 버섯 모음팩	한국산		\$2.49 / pack



				
	가주마켓 / 생 느타리버섯	미국산	가주마켓	\$4.99/453g(1p ound)
	Guan's / Enoki mushrooms (팽이버섯)	한국산	Guans mushrooms (캘리포니아, 미국)	\$0.69/150g

○ 한인 교포 식품 마켓 : Hannam Chain Supermarket(한남체인슈퍼마켓)

제품 이미지	제품명/브랜드	제조국	수입 유통업체	판매가격
	Hannam chain / King Oyster mushroom	미국산	Hannam Chain	\$3.54/807g
	황소고집 / 팽이버섯	한국산		\$0.69/150g
	Hannam Chain	미국산	Hannam Chain	\$4.94 /449 g





	/ Oyster Mushroom (느타리 버섯)			
---	-------------------------------	--	--	--

○ 미국 대형 마트 체인 스토어 : Wholefoods

제품 이미지	제품명/브랜드	제조국	수입 유통업체	판매가격
	Guan's Mushrooms / Enoki mushrooms	한국산	Guans Mushroom Co (캘리포니아, 미국)	\$ 2.99/ 100g
	Mycopia / Organic Mushrooms Sampler	미국산	Mycopia	\$7.99 / 226g

○ 유기농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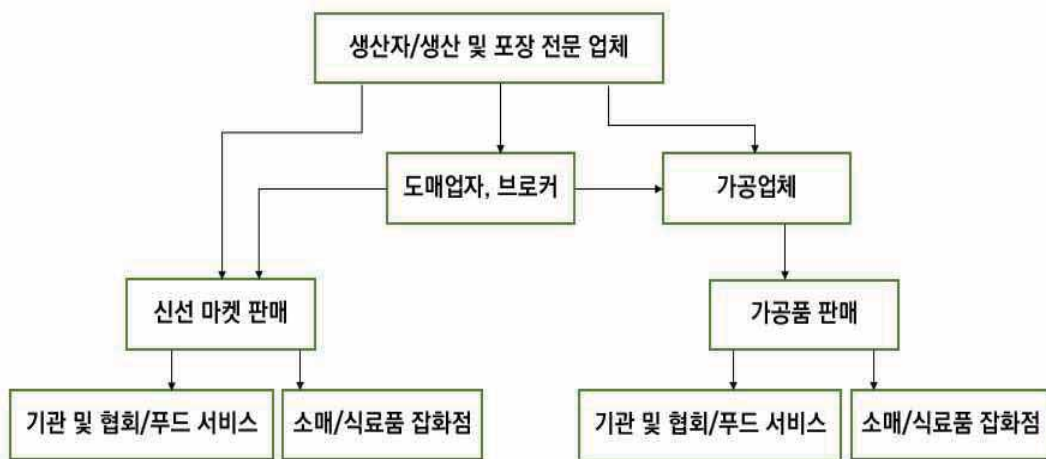
제품 이미지	제품명/브랜드	제조국	수입 유통업체	판매가격
	Wholefoods / Organic Oyster Mushroom	미국산	Wholefoods, Inc.	\$6.99 / 453g

	Wholefoods / Organic Shiitake Mushroom	미국산	Wholefoods Inc.	\$14.99 /453g
	Hokto / Organic King Trumpet Mushroom (유기농 새송이버섯)	미국	HOKTO Kinoko Company (캘리포니아, 미국)	\$2.49 /270g
	Hokto / Organic White Beech Mushrooms	미국산	HOKTO Kinoko Company (캘리포니아, 미국)	\$1.99/pack
	Hokto / Organic White Beech Mushroom	미국산	HOKTO Kinoko Company (캘리포니아, 미국)	\$1.99/100g
	Hokto / Organic Brown Beech Mushroom	미국산	HOKTO Kinoko Company (캘리포니아, 미국)	\$1.99/ 100g
	HOKIO /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미국산	HOKIO	\$2.49/270g

#### ④ 유통동향

- 신선 버섯의 경우 주로 도매업체, 재포장업체 또는 주요 식료품 업체 바이어에게 유통됨
  - 신선 버섯은 주로 벌크 포장되거나 또는 소량 포장되어 유통되며 냉장 트럭으로 운송됨. 대부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지역 안에서 판매되는 형태지만 일부 대형 생산업체는 전국적으로 유통하기도 함
  - 대량으로 재배를 하는 업체의 경우 사내 판매담당부서를 두고 자체적으로 운송을 진행하며 소량 재배업체의 경우 직접 운영하는 도매업체 또는 수수료 (Commission)을 받는 대행업체 등을 통해 유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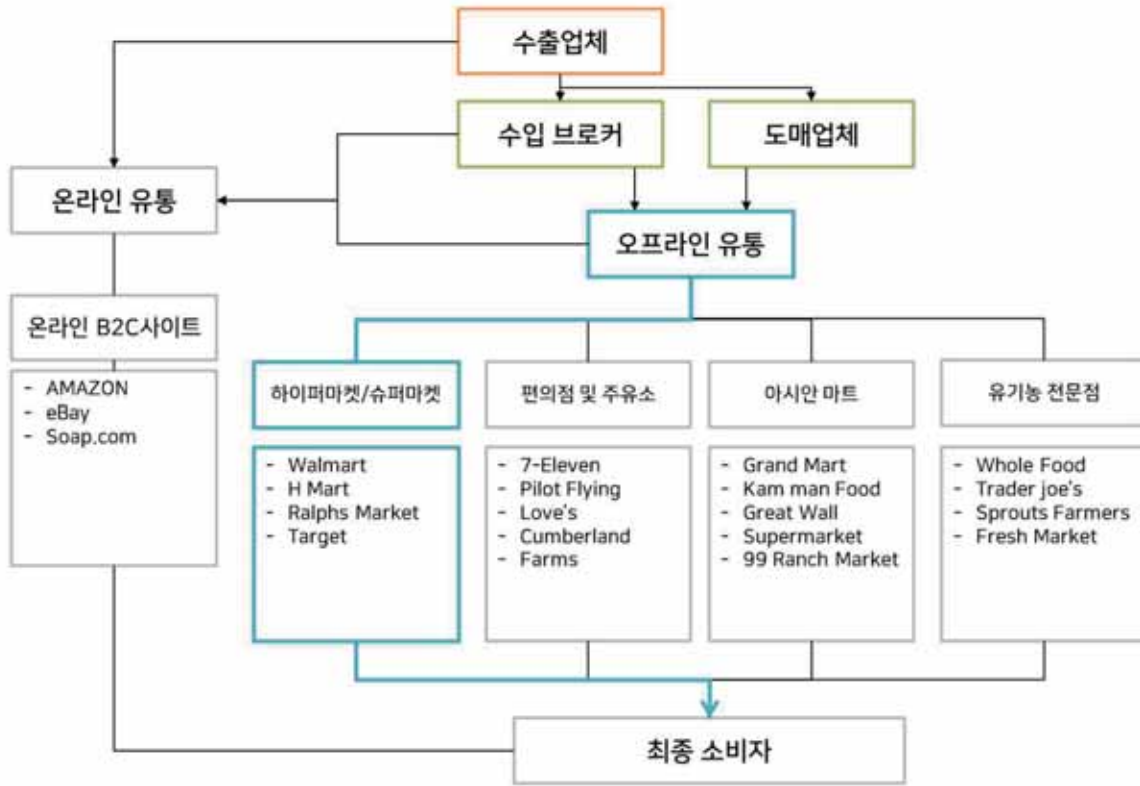
<그림> 미국 내 버섯 판매 주요 유통 구조



출처 : Industry & Trade Summary (Mushrooms), United States Interantional Trade Commission, 2010

- 아시아 농산물은 주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대형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됨. 한국산버섯은 미국 LA시장의 경우 한인마트 중심으로서 유통되며 시온, 그린랜드, 99랜치, 미츠와, 한남, H마트, 가주마트, 아리랑 등이 유통 거점임
- 미국에는 버섯을 활용한 통조림, 샐러드 등을 제조하는 식품 제조업체가 많은 편이며, 바이어 인터뷰 결과 식품 제조업체와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sup>8)</sup>

<그림> 미국 현지 유통 구조



출처 :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조사(미국, 만가닥버섯),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국은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마트가 가장 잘 발달해 있으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채널임. 따라서 슈퍼마켓·하이퍼마켓에 입점할 경우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쉽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
- 대형 하이퍼마켓·슈퍼마켓의 경우 수입 식품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고, 한국산 제품 취급비율이 타 유통채널에 비해 높다는 점도 진출에 유리함
-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의 경우 미국 내 식품 시장점유율이 72.8%로 압도적이며, 한국산 제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쟁제품 또한 이미 진출해 있기에 미국 시장으로의 진입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의 경우, 전문 벤더 또는 품목별 전문 공급상을 발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입점 난이도가 높은 편임
  - 또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경쟁 제품들과 차별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과 장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과 패키징이 필요하므로 제품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함
- 한국산 식품의 경우 대부분 한인마켓 중심으로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판매량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sup>9)</sup>
- 한국식품 대부분은 교포상에 의한 수입(95% 이상)이 대부분으로 한인마켓에서 판매(95% 이상)되고 있는 실정임
  - 타민족의 한인마켓 이용비율은 증가추세이나 한국산 구입비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남
- 미국 내에서 만가닥버섯은 보편적 식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레스토랑에 조리용 식자재로 납품됨. 하지만 한국산 버섯이 레스토랑이나 식품 제조업체에 취급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 유기농산물 관리기준

-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자는 연방법 「CFR 205.272」의 기준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비 유기농산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유기농산물 포장에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 합성살균제, 방부제 또는 훈증제가 섞인 포장재 또는 용기는 사용이 불가능함
    - 유기적인 특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용기에 포장해서는 안 됨
    - 비 유기농산물을 포장한 용기는 완전히 세척하여야 함

9) 입산물 해외시장조사 - 단기소득 입산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12



⑤ 경쟁동향

□ Monterey Mushrooms

- Monterey Mushrooms는 버섯 생산 전문기업으로 미국 10개 지역과 멕시코 농장에서 버섯을 재배하여 북미권 전역에서 버섯을 판매함
  - 미국 현지에 있는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 버섯을 유통하는 업체로 직접 버섯을 재배하여 현지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입·수출은 하지 않음
  - 연구개발-생산-공급-유통을 일원화하여 양질의 신선·가공·냉동 버섯 제품을 슈퍼마켓, 외식 서비스, 식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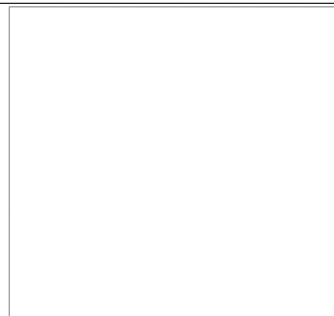
<그림> Monterey Mushrooms 로고 및 물류창고



출처 : 회사 홈페이지(www.montereymushrooms.com)

- Monterey Mushroom은 주요 소비 품종인 양송이버섯 외에도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어떻게 조리하면 되는지 설명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그림> Monterey Mushrooms 버섯 상품



□ 호쿠토(Hokto)<sup>10)</sup>

- 호쿠토(Hokto)버섯은 일본의 대형 버섯생산 전문기업으로 1964년에 설립되어 50년 이상 버섯의 판매와 자체 품종 연구를 진행함. 미국과 타이완, 말레이시아에 해외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임
- 2006년 최초로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USDA 유기농인증 취득을 준비하였으며, 3년간의 유기농 경작지 전환기를 거쳐 2009년부터 유기농버섯을 생산 및 판매함

<그림> 호쿠토 미국 법인



출처 : 회사 홈페이지([www.hokto-kinoko.com](http://www.hokto-kinoko.com))

-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쿠토 버섯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수급 상황에 따라 일본 본사에서 버섯을 수입하기도 하나 미국에서는 미국산 버섯을 판매함
  - 미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버섯 품종을 취급하며, 특히 만가닥버섯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USDA 유기농인증을 취득한 생산지는 미국 공장으로, 2013년에는 일본산 버섯을 유기농으로 판매하였다가 법적 제재를 받을 바 있음

10) 유기농버섯 시장현황 조사, 2017,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국에서 판매하는 대표 유기농 버섯 품종은 느티만가닥, 부나피버섯, 새송이버섯, 잎새버섯의 4종임
  - 호쿠토 버섯의 경우 투명한 비닐 포장으로 소비자가 제품 상태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또한, 품종과 유기농 제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면에 표시함
- 모든 버섯 제품이 USDA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건강한 효능이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음<sup>11)</sup>

<그림> 호쿠토 버섯 상품



- 호쿠토社は 시장진출 초기 일본산 버섯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영어로 버섯 관리방법을 소개하고 버섯 조리법을 제공하면서 홍보활동을 시작함

11)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미국, 만가닥버섯),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⑥ 통관절차

### 1) 통관절차

〈표〉 미국 통관절차



출처: FTA로 다시 보는 미국(2016),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통관 제도의 기준 : 안보 지향

-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 관세청(U.S Customs Service)를 미국토 안보부 산하세관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Border Protection)으로 변경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을 검사 실시 하고 있음
- 수입업체를 포함하여 관세사, 포워드, 선사 등 공급

## ⑦ 미국 검역제도

###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ed Act,111-353)

○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식품 및 사료의 위생 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식품 및 사료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임. FSMA는 자국 내 제조자를 포함하여 해외 제조자들에게도 필수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은 FSMA의 7가지 시행 규정중 하나로 해외 공급업체가 FDA 규정에 맞게 식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 PCHF(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 미국의 FSM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측되는 위해요소 통제를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1)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개생충 등)

특히, 살모넬라·보툴리눔균·이콜라이·리스테리아 등이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주된 문제사항임

(2) 화학적(알레르기, 방사능)

생선·콩·밀·갑각류·견과류·땅콩·우유·계란은 미국 내 8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므로 화학적 위해요소로 포함시켜야 함

(3) 물리적(이물질)

유리, 나무 조각, 금속 조각과 같이 물리적 요인에 의해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야함

(4) 공정상 통제

냉장, 열 가공, 산성화 작업, 방사능 처리가 해당되며,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최소의 값을 지정해야 함. 지정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재작업이 이루어

어제야함

(5) 알레르기 통제

알레르기 성분을 취급 시, 교차오염을 막기 위함과 라벨링의 표기준수를 위한 통제가 필수적임. 알레르기 유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잔존물질이 남아 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함

(6) 세척 통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와 같은 환경적 병원균(Environmental pathogen)의 통제를 위한 세척으로 종업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 및 기록해야함. 모니터링을 통한 food-contact이 가능한 기기나 미생물 테스트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음

(7) 공급망 관리

원재료를 구매하기 이전에 공급자를 먼저 인증하는 작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현장방문, 샘플링 등으로 위생 프로그램 기록의 리뷰가 있음

⑧ 수출관련 특이동향

-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신선버섯의 경우 수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은 없음. 이는 전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국산 신선버섯은 미국 내 모든 항구로 수입될 수 있음. 단, 본 규정은 뿌리가 없는 버섯에만 해당되므로 뿌리의 일부분 혹은 전체가 붙어 있을 경우 식물건강허가증(PHQ, Plant Health Permit) Form 587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함

□ 라벨링

- 미국 식품 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식품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허위정보를 표시할 경우 부정 표시 식품(Misbranded Food)으로 간주하여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됨

- 주 표시면(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 표시면(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식품명, 내용물의 실 중량, 원재료명, 영양분석표 등을 기재함
  - 단,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이므로 원재료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영양성분표도 면제 대상이므로 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진열대 별도 표기를 권장하고 있음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수입시점에 상품 및 개별 포장에 읽기 쉬운 문자로 가능한 잘 보이는 장소에, 영어로 원산지(국명)을 표시해야 함
- 원산지 표시는 모든 수입 물품에 적용되며, 표시 제외대상 품목을 라벨링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음

항목	설명
<b>제품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 표시면에 표기</li> <li>- 활자의 크기는 주 표시면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으로 표기</li> </ul>
<b>제조·유통업체 명칭 및 주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포장, 유통업자명과 주소 : 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다를 경우,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에서 제조한', '~에서 유통하는'과 같은 문구 표기</li> </ul>
<b>순중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면 하단 30% 위치에 표시하고, 미국 단위와 미터법 단위로 함께 표시</li> <li>- 1회 제공량을 표시하되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기재</li> </ul>
<b>원산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수입품은 수입시점에 상품 및 개별 포장에 읽기 쉬운 문자로 가능한 잘 보이는 장소에 표기</li> <li>- 영어로 원산지 국명을 표시</li> </ul>

- 버섯류의 경우 영양정보 라벨링에 대한 내용을 버섯 생산자협회(Mushroom



Council)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그림> 버섯 제품 라벨링(예)


Nutrition Facts		Zinc 4%	Niacin 35%
Serv. Size 3.5 oz (100g) Servings varied		Copper 6%	Phosphorous 10%
<b>Amount Per Serving</b>			Magnesium 4%
<b>Calories 45</b>	Calories From Fat 0	** Contains less than 2 percent of the Daily Value of these nutrients.	
% Daily Value *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b>Total Fat 0g</b>	0%	Calories: 2,000    2,500	
Saturated Fat 0g	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b>Cholesterol 0mg</b>	0%	Saturated Fat	Less than 20g    25g
<b>Sodium 0mg</b>	0%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b>Potassium 410mg</b>	12%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b>Total Carbohydrate 8g</b>	3%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3g	11%	Dietary Fiber	25g    30g
Sugars 2g		Calories per gram: Fat 9 · Carbohydrate 4 · Protein 4	
<b>Protein 2g</b>			
Vitamin A **	Vitamin C 20%		
Calcium **	Iron 6%		
Riboflavin 8%	Thiamin 6%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미국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은 FDA에서 관리하며 어육가공품, 냉동수산물, 냉동식품, 병과류, 비 가열 음료, 레트로트 식품, 배추김치 같은 품목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HACCP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
- 그 밖의 대부분의 식품에서 HACCP 인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식품 제조과정 이 안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식품업체들이 취득하는 권장인증임
- 미국 HACCP의 경우 식품 생산업체가 FDA에 시설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검역을 통과하면 인증되고 있음



- HACCP은 시설 상태에 대한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통지해야 함

**<표> HACCP 인증**

<b>인증설명</b>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
<b>발행기관</b>	미국 식품의약청
<b>성격</b>	권장인증
<b>제출서류</b>	HACCP 계획표 및 위해요소 분석 계획
<b>발급절차</b>	예비단계→위해요소 분석 계획→HACCP 계획표 작성 및 제출
<b>유의사항</b>	어육가공품, 냉동수산물,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트로트 식품 및 배추김치는 HACCP 인증 필수
<b>인증마크</b>	

유기농가공식품 인증 (NOP : National Organic Program)

- 미국 농무부에서 인증하는 유기농 인증으로 약 3년 이상 합성 제초제, 비료,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천연 경작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으로 함
- 한·미 양국은 2014년 7월 1일 ‘한·미 유기농인증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기농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미국에서도

동등하게 유기농가공식품으로 인정받게 됨. 유기농인증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의 대상은 한·미 양국의 제도에 따라 유기농인증을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농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에 한함

<표> 유기농가공식품 인증(NOP : National Organic Program)

인증설명	1990년도에 제정된 유기농 식품 생산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은 NOP 규격에 적합해야 함
발행기관	미국 농무부 지정 인증기관(사설기관)
성격	선택 인증
제출서류	유기가공식품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ion)
비용	750달러
소요기간	2개월
갱신기간	1년
발급절차	제3자 인증기관 선택→신청서 제출, 비용 납부→서류 심사→방문 심사→인증서 발급
유의사항	1) 유기농 성분 함유량(% , 물, 소금 제외)에 따라 100% 유기농, 95~99% 유기농, 70~94% 유기농, 70% 미만 유기농으로 구분되고, 마크 부착 여부와 색깔이 구분됨 2) 해당 인증은 식품안전이나 영양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인증 프로그램인 만큼 관련 행정처분 등이 있으며, 수입 농산물의 경우 가능한 NOP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음

인증마크

100% Organic		Organic	
	물, 소금을 제외한 모든 원료가 100% 유기농이어야 함		중량 기준 95-99%의 성분이 유기농이어야 함. 나머지 원료도 NOP에 의해 승인된 성분이어야 함
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Specific Organic Ingredi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94%의 성분이 유기농이어야 함</li> <li>유농인증라벨부착불가 (유기농 성분 3가지 포장 앞면에 명기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 미만 성분이 유기농임</li> <li>유농인증라벨부착불가 (포장의 설명 부분에 유기농 성분 표기는 가능함)</li> </ul>

□ Global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Global GAP는 2006년 EURE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유럽 소매업 생산자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77년 EUREP가 농산물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EUREP GAP을 만들었고, 이후 이것이 Global GAP라는 명칭으로 변경됨
- Global GAP 신청 시 신청업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품목에 맞는 자가설문지(Self-Checklist)를 작성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7개 대분류, 21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Global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b>인증설명</b>	GLOBAL G.A.P.은 1990년대 들어 부각된 식품안전 및 환경이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안전관리 인증으로 식품안전, 환경보호, 작업자 안전 등의 보장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인증
<b>발행기관</b>	FoodPLUS ※한국의 경우 GLOBAL G.A.P.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FITI시험연구원이 정식 검사업체로 등록된 유일한 업체임
<b>성격</b>	권장인증
<b>비용</b>	의뢰자 옵션(개별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및 규모에 따라 상이
<b>유효기간</b>	인증일로부터 1년 ※인증유지를 위해 매년 정기심사 실시
<b>발급절차</b>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인증수수료 납부→GLOBAL G.A.P.데이터베이스 등록→심사일정 안내→현장심사→부적합사항 처리→인증 결정 검토 →인증 승인→인증서 송부
<b>유의사항</b>	1) GLOBAL G.A.P. 인증 유지를 위해 인증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는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및 필수 관리점 100% 준수, 준필수 95%이상 준수를 유지 2) GLOBAL G.A.P. 로고·트레이드마크는 기업 간 거래(B2B) 시 박스, 컨테이너에 표시 가능. 단,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는 표시 불가 3) GLOBAL G.A.P. 로고·트레이드마크 사용 시 GGN(GLOBAL G.A.P. Number)을 함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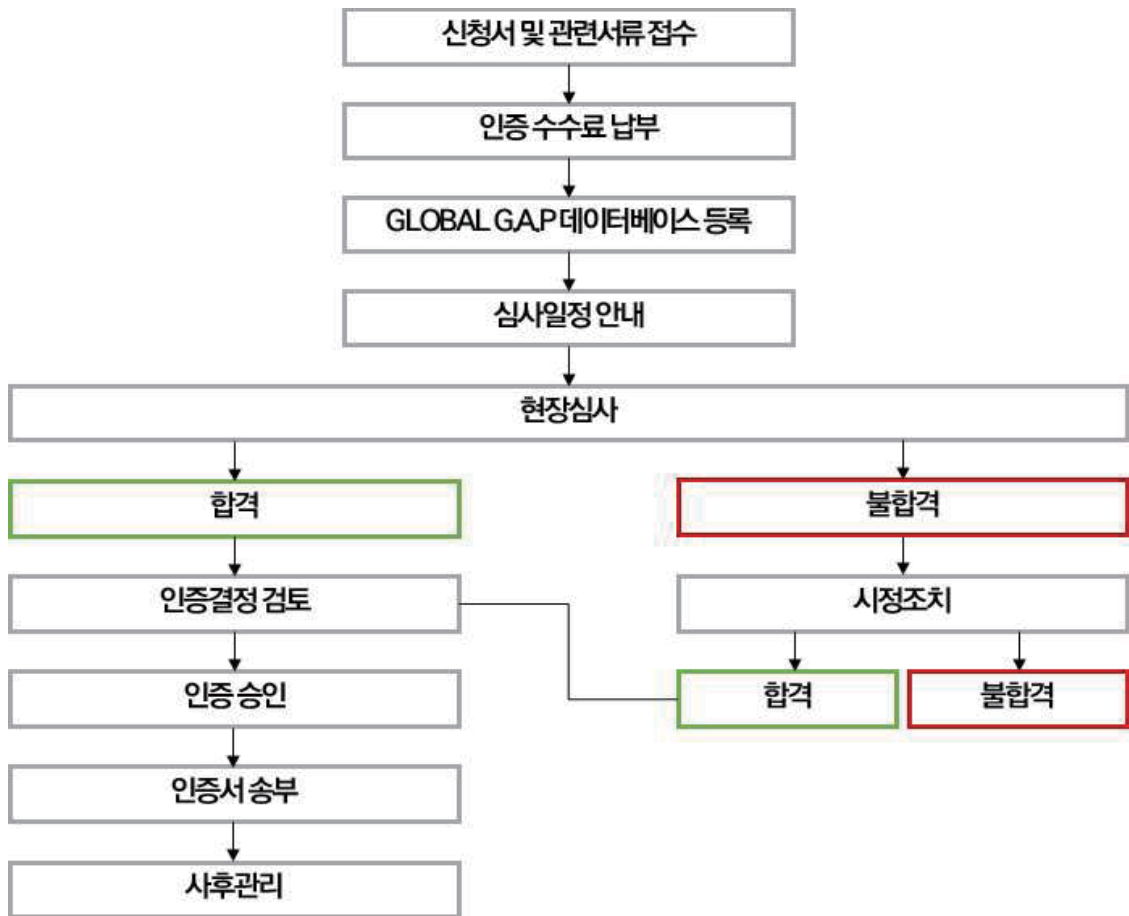
4) GGN 제품포장재, 운송박스, 거래문서에 표시 가능

인증마크

**GLOBAL G.A.P.**

- GLOBAL G.A.P는 한국의 GAP인증과 동등하지 않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1월에 발간한 ‘GAP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AP 도입 초안은 글로벌 GAP 규격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지만 포괄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기준 자체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며 항목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밀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음

<그림> GLOBAL G.A.P 인증 취득 절차



### 3) 수출 확대 전략

#### ① 3C분석

01	<b>Customers</b> <b>: 미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선 버섯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li> <li>▶ 이와 더불어, 유기농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음</li> <li>▶ 버섯과 다른 식재료를 혼합하여 먹는 'Blended' 조리법이 인기를 끌고 있음</li> <li>▶ 인구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문화 음식이 트렌드임</li> <li>▶ 미국 현지 소비자들이 버섯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제품의 품질임</li> </ul>
02	<b>Competitors</b> <b>: 미국, 일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현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li> <li>▶ 일본의 HOKTO社와 같이 미국에서 직접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함</li> <li>▶ 또한, 100% 유기농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유기농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li> </ul>
03	<b>Company</b> <b>: 한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탈리아에 이어,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를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임</li> <li>▶ 2017년 기준, 중국에 비해 약 2배 가량의 수출액을 기록함</li> <li>▶ 또한,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가격 모두 높게 인정받고 있음</li> <li>▶ 한국산의 가격이 낮게 수입될 경우 오히려 중국산과의 차별화가 어려워 한국산 버섯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li> </ul>

## ② SWOT 분석 최적전략

강점 (Strength)	기회(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대비 우수한 품질</li> <li>▶ 일본이나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음</li> <li>▶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버섯 형태의 소비가 일반적임</li> <li>▶ 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음</li> <li>▶ 채식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버섯 소비량 증가</li> </ul>
약점(Weakness)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식품은 대부분 한인마켓 중심으로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져 한계를 가지고 있음</li> <li>▶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 신선도 유지 등의 한계가 있음</li> <li>▶ 낮은 인지도</li> <li>▶ 유기농 버섯에 대한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생산 버섯의 신선도가 더 좋음</li> <li>▶ HOKTO와 같은 현지 진출 기업</li> </ul>

## ③ Marketing Mix 전략

<b>SO전략</b> (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가격보다는 품질을 최우선시 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버섯이 고품질 제품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li> <li>▶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이 낮은 중국산과 품질은 좋으나 가격이 높은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 모두 합리적인 제품임을 강조</li> </ul>
<b>WO전략</b> (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 버섯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여 경쟁국인 중국산과의 차별화 도모</li> <li>▶ 미국 내 시장 중 한국산 버섯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은 화교 마켓의 경우 한류(한류스타 광고 등)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시장 확대</li> </ul>
<b>ST전략</b> (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HOKTO社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현지 직접 진출을 지원할 기반 마련</li> <li>▶ 회사 규모 상 현지 직접 진출이 어려운 경우, 생산비 절감 기술을 통</li> </ul>

<b>WT전략</b> <b>(약점-위협)</b>	해 낮은 가격 경쟁력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과 현지 생산 제품들과 가격 경쟁보다는 우수한 품질 대비 중저가 제품으로의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li> <li>▶ 미국 내 수입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유통기반 개선 및 유통비용 완화 기반 마련</li> </ul>

### ⑤ 시사점(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 한국산 버섯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품질 유지가 필요함
  - 하지만, 비(非)아시아계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산 버섯 품종이 생소하기 때문에 새송이 및 팡이버섯의 조리법을 함께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버섯의 경우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값이 싼 중국산이나 타국 상품들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한국산 공동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통업체들의 경우 한국산 버섯을 수입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신선도 및 유통기한임. 아무래도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고 함. 이를 위해,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포장법의 개발이 필요함
- 미국에서 버섯이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만큼 레스토랑으로 버섯을 납품하는 것도 좋은 진출 방안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짐
  -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한다면 현지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신선도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미국 소비자들이 버섯을 식재료로 활용한 요리를 즐겨 먹는 트렌드에 맞춰 머쉬룸 패티, 머쉬룸 스테이크 소스 등과 같은 가공 형태의 버섯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 미국 수입바이어에 의하면 마켓에서 한국산 버섯의 판매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의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미국 내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인분 용량의 소량 포장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음



### III 해외시장동향 02 : 캐나다



국명	캐나다(Canada)
수도	오타와(Ottawa)
인구	3,704만 명(2018년 4월 추정치)
면적	998만 4,670km <sup>2</sup> (한반도의 46배, 남한면적의 101배)
기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 연안), 한대성(북극권)
주요 도시	Toronto(635만 명), Montreal(414만 명), Vancouver(257만 명), Ottawa(138만 명), Calgary(149만 명), Edmonton(141만 명), Quebec City(81만 명) 등
민족 구성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국가(15%), 원주민(2%), 기타 아시안·흑인·아랍계(6%), 기타 혼혈(26%), 필리핀, 중국계 인구 급증
언어	공용어(영어 59% 및 불어 23%), 기타(18%)
종교	천주교(39%), 기독교(28%), 무종교(24%), 기타(9%)
화폐 단위	Canadian Dollar(C\$)
GDP	1조 5,600억(2015년), 1조 5,360억(2016년), 1조 6,520억(2017년), 1조 8,050억(2018년 예상치)
산업 구조	금융부동산업(20.0%), 제조업(10.4%), 광산업(8.7%), 건설업(7.1%), 의료복지(6.6%), 공공행정(6.2%), 도매업(5.8%), 소매업(5.5%), 교육업(5.2%), 과학기술, 전문서비스업(5.5%), 운송보관업(4.5%), 정보문화산업(3.0%), 행정지원(2.4%), 공공재(2.3%), 숙박·요식업(2.2%), 농림수산업(1.6%), 예술·레저업(0.8%), 기타(2.2%)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CIA The World Factbook(www.cia.gov)

## 1) 산업동향

### ① 국가개황

-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하였으며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임. 수도는 오타와이고, 최대 도시는 토론토로 전 세계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큼

<그림> 캐나다의 지역구분



- 10개의 주
  - 온타리오 주
  - 퀘벡 주
  - 노바스코샤 주
  - 뉴브런즈윅 주
  - 매니토바 주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 서스캐처원 주
  - 앨버타 주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 3개의 준주
  - 노스웨스트 준주
  - 유콘 준주
  - 누나부트 준주

출처 : 위키백과

### ② 경제

- 캐나다는 세계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답게 농산물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광업이 매우 발달하였으나 3차 산업이 제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특히 금융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발달함. 그 외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내임

<표>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2.48	2.86	1.00	1.41	-
GDP(백만 USD)	1842628	1799269	1559623	1535768	1653043
1인당 GDP(USD)	52418.32	50633.21	43525.37	42348.95	45032.12
물가상승률(%)	0.93	1.92	1.12	1.42	1.61
이자율(%)	2.7674	1.7874	1.3985	1.7267	2.0438
실업률(%)	7.10	6.93	6.90	6.98	-
환율(A\$/1USD)	1.03	1.11	1.28	1.33	1.30

출처:세계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③ 무역

-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해 내수 수요 기반이 작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
  - 2017년 석유, 원유, 유연탄 등 에너지 산업의 회복세가 눈에 띄었으나, 농수산물과 식료품, 의약품 등의 수출은 감소함
-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경제를 포함해 무역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2017년 기준 캐나다 수입시장의 51.3%를 미국이 차지함

<표> 캐나다 무역수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백만 USD)	555777	567620	492112	475842	510777
수입액(백만 USD)	586154	585300	530857	513165	578493
무역수지(백만 USD)	△30377.44	△17679.19	△38745.06	△37322.61	△37716.35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④ 물류

## 가. 항공

- 항공으로의 농식품 수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운송을 준비하여 캐나다 공항에 도착 후 통관을 거쳐 매장에서 진열까지 3일 정도 소요됨

## 나. 해상

- 가공식품과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해상으로 운송됨.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밴쿠버 항으로 도착하는 항로가 일반적이며 운송기간은 보름, 통관에는 약 5일 정도 소요됨

- 부산항에서 밴쿠버 매장에 진열되기까지 약 20일(3주) 정도 걸림

- 캐나다 동부(토론토)까지 이동은 육상 교통으로 이루어지며 밴쿠버 항에서 기차 화물칸(냉동창고)이나 트럭을 이용하여 토론토로 물량을 이동함.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트럭과 기차로 약 5일에서 1주일이 소요됨

- 기차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운행하기 때문에 출발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최대 일주일을 낭비하게 되어 매장 진열 기한이 줄어드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음

## ⑤ 식품산업동향

- 최근 캐나다 식품산업의 주요 키워드는 밀레니얼 세대, 다민족, 웰빙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의 개발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토론토와 밴쿠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1인 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즉석 식품을 비롯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새로운 맛, 색다른 음식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는 캐나다 가공식품의 주요 소비층임

- 다민족 이민국가인 캐나다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한 식문화가 유행을 이끌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음
- 캐나다는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웰빙 트렌드가 맞물려 유기농과 무설탕, 무색소 건강식품 등과 같은 영양가 높은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 버섯 시장 동향

### □ 캐나다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 시장

- 캐나다 내 버섯의 HS CODE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러나 국가별로 HS CODE가 일곱 번째 자리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 통계는 같은 품목의 상위 범주인 HS CODE 0709.59(Fresh or chilled edible mushrooms and truffles (excluding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으로 조사함

<표> 캐나다 내 버섯 HS Code 분류

HS CODE	품명
0709.5	버섯과 송로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09.51.1000	프로세싱을 위한 것
0709.51.9000	기타
0709.59	기타
0709.59.1000	프로세싱을 위한 버섯
0709.59.2000	송로
0709.59.9000	기타

출처: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 캐나다의 버섯 수요는 대부분 양송이 버섯이며 최근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 및 고가의 송로 버섯 등이 인기를 끌면서 팽이 버섯과 새송이, 표고, 느타리버섯 등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팡이와 새송이 버섯은 한국 기술을 이전하여 온타리오 주에 생산 설비가 있음. 캐나다 현지산은 인지도와 안전도 및 신선도가 매우 높음
- 버섯의 경우 대부분 배지 재배로 농약이 사용되지 않아 바이어 요청에 따라 캐나다 유기농 인증 조건에 맞춰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되기도 함

**① 생산동향**

- 농업 통계 사이트 FAOSTAT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캐나다 버섯 및 송로 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133,935톤으로 집계됨. 2007년(73,260톤) 대비 2016년(133,935톤) 생산량은 82.8%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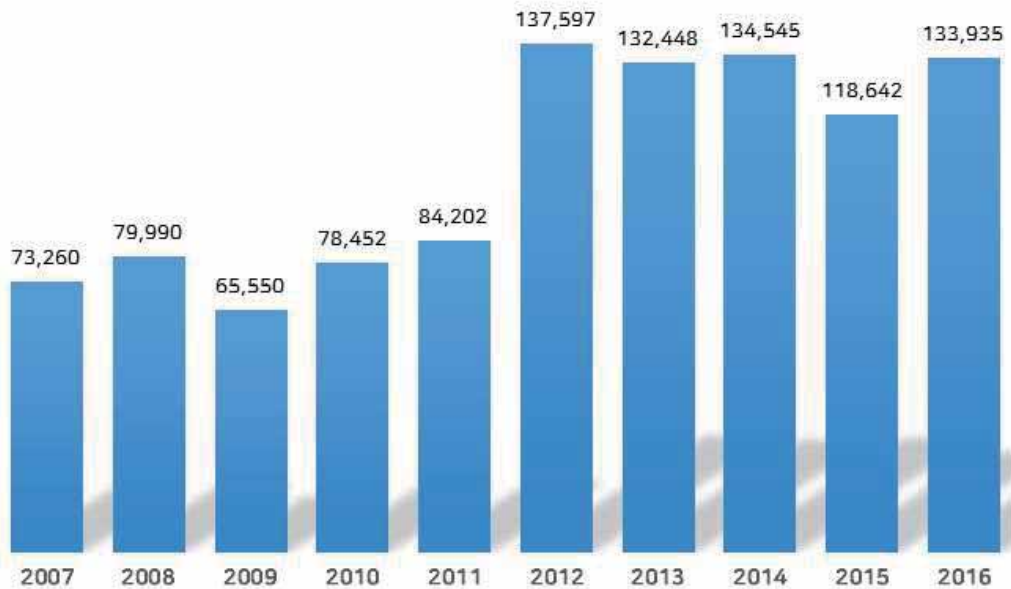
**<표> 캐나다 버섯 생산량**

(단위: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3,260	79,990	65,550	78,452	84,202	137,597	132,448	134,545	118,642	133,935

출처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그림> 캐나다 버섯 생산량 (단위:톤)



출처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캐나다 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132,556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3년(132,448톤) 대비 0.08% 증가한 것으로 이 중 94.1%에 해당하는 124,790톤은 신선 버섯으로 유통되었으며, 5.86%인 7,767톤은 가공처리 됨
-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버섯은 양송이버섯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팡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특수버섯의 생산도 소량 재배되고 있음

<표> 캐나다 신선 및 가공 버섯 생산량 현황

(단위: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량 총계 (신선 및 가공)	132,448	134,545	126,416	130,857	132,556
신선 판매량	121,169	123,927	123,148	123,160	124,790
가공 판매량	11,279	10,618	3,268	7,697	7,767

출처 : Statistics Canada

② 수·출입동향

□ 글로벌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글로벌 시장 내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수입량 3,250톤, 수입액 11,921천 달러로 2017년 수입액 기준 22위를 기록하였음

- 캐나다는 글로벌 수입 비중에서 2017년 기준 수입량, 수입액 각각 1.58%(3,250톤), 1.57%(11,921천 달러)를 차지함



<표> 글로벌 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77,432	709,677	192,412	733,687	193,250	723,397	205,820	757,992
1	독일	17,413	89,479	21,069	94,043	23,872	100,418	23,091	95,902
2	프랑스	20,416	79,037	21,809	73,279	19,145	71,770	17,991	71,880
3	이탈리아	10,203	54,933	10,169	52,509	7,313	45,500	7,497	68,664
4	일본	4,289	71,464	3,578	59,121	3,213	60,912	3,108	64,669
5	미국	9,087	27,307	10,139	39,254	9,852	39,139	9,981	45,093
6	영국	18,648	52,581	21,369	54,890	21,613	52,862	19,966	44,404
7	태국	12,502	21,512	16,670	27,098	20,507	32,498	21,047	33,763
8	네덜란드	3,837	21,460	4,113	19,901	4,860	21,721	5,585	25,628
9	오스트리아	5,098	25,336	4,278	23,857	4,416	23,519	4,022	23,229
10	베트남	767	4,845	1,026	6,695	2,095	11,378	13,360	22,529
<b>22</b>	<b>캐나다</b>	<b>2,370</b>	<b>9,367</b>	<b>2,496</b>	<b>10,314</b>	<b>2,689</b>	<b>10,827</b>	<b>3,250</b>	<b>11,921</b>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 수입현황

- 2017년 수입액 기준 5대 수입국으로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순이며 그 중 대한민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78.1%(2,538톤), 수입액의 50.1%(5,971천 달러)를 차지함
- 2017년 기준 캐나다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대한민국으로 2017년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66.4%(2,159톤), 수입액의 39.3%(11,921천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수치임

<표> 캐나다의 버섯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2,370	9,367	2,496	10,314	2,689	10,827	3,250	11,921
1	대한민국	1,234	3,026	1,531	3,609	1,789	4,015	2,159	4,679
2	미국	662	3,851	656	4,831	556	4,874	648	4,490
3	중국	446	1,525	285	922	322	1,039	379	1,292
4	이탈리아	1	540	1	455	3	433	5	598
5	프랑스	4	114	5	138	2	129	2	217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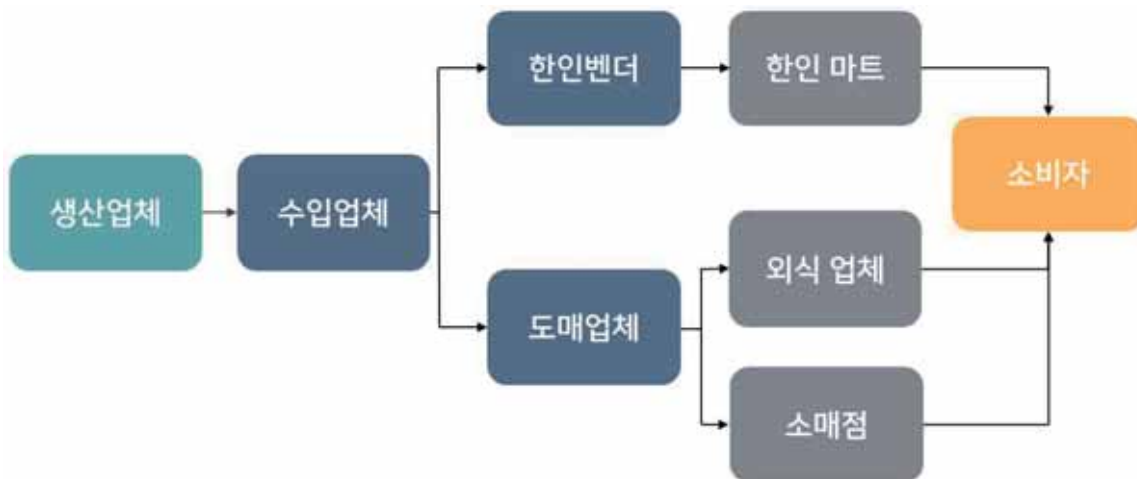
### ③ 소비동향

- 캐나다 소비자가 조리용으로 즐겨 사용하는 버섯은 양송이 버섯이며, 대부분의 수요가 양송이 버섯에 집중되어 있지만 캐나다 내 동양계 이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양계 인구가 즐겨 찾는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및 표고버섯 등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서양과 동양의 음식문화의 차이 때문이며 한국 음식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및 표고버섯을 찌개, 반찬 등에 다량 사용하는 반면 서양 음식은 양송이버섯류를 스투(stew)와 스파게티 등에 소량으로 사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은 특수버섯은 지방이 적고 비타민, 단백질, 식이섬유 및 건강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많은 요리사들에게 소개되고 있으며 서양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조리법도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며, 만가닥 버섯의 경우 한국과 미국산 제품이 한국 식품점과 화교계 식품점에만 판매되고 있음

#### ④ 유통동향

- 버섯은 검역 요건과 포장 규정이 까다로워 전문 수입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편이 수월할 것으로 보임<sup>12)</sup>
-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경우 생산자 직거래, 도매상, 소매상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판매되고 있음. 현지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식품 안전성 문제로 인해 직거래 방식의 버섯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sup>13)</sup>

<그림> 캐나다 버섯 유통구조



출처 : 캐나다 목이버섯 시장조사(2105), aT

- 조사에 의하면, 팽이버섯과 새송이 버섯의 경우 한국산도 현지 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가닥 버섯의 경우 한국 식품점과 화교계 식품점에만 판매되고 있음
- 캐나다의 대표적인 동양계 대형 식품유통업체 및 버섯 전문 유통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유통되고 있는 팽이버섯은 대부분 현지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신선도 유지) 면에서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밝

12) 캐나다 목이버섯 시장조사(2015), aT

13) 캐나다 목이버섯 시장조사(2015), aT

힘

- 버섯 전문 유통업체 E사(바이어)에 따르면 과거 한국과 중국에서 팽이버섯 수입 경험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제품을 현지 버섯재배업체에게 공급 받고 있으며, 신선도와 식품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북미 유기농 인증을 보유한 현지 업체를 선호한다고 함
- 동양계 버섯 수입 경험이 많은 유통업체 G사(바이어)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버섯을 수입하고 있지만 낮은 수요 및 신선도 유지 어려움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수입을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함
- 아울러, 캐나다 동부 대표 한국계 유통업체인 Korea Food Trading사의 구매 담당자에 따르면, 팽이버섯은 현지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더 긍정적이며, 수입산의 경우 깻잎 등의 계절 농산물이 아니라면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현지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함

□ 소매가격동향

<표> 광역토론토(GTA) 내 판매 중인 주요 팽이 버섯 정보

제품명	사진	중량 (g)	소매가 (C\$)	국가	브랜드	판매점
PC Organics Enoki Whole Mushrooms		150	2.47 ~ 3.99	캐나다	President's Choice	Loblaws, No Frills, Whole Foods
Organic Enoki Mushrooms		150	3.99	캐나다	Compliments	Sobeys
Organic Enoki Mushrooms		150	1.98 ~ 2.99	캐나다	Enviro Mushrooms	Whole Foods, Walmart, Galleria Supermarket, H-Mart
Organic Enoki Mushrooms		150	1.98	중국 한국 일본	-	Walmart

Organic Enoki Mushrooms		99	1.38	캐나다	Enviro Mushrooms	Galleria Supermarket
Enoki Mushrooms		200	1.28	한국	Golden Mushroom	Galleria Supermarket, H-Mart
Enoki Mushrooms		200	1.29	한국	Guan's Mushroom	T&T Supermarket

<표> 광역토론토(GTA) 내 판매 중인 주요 새송이 버섯 정보

제품명	사진	중량 (g)	소매가 (C\$)	국가	브랜드	판매점
King Oyster Mushrooms		비포장	2.68 /100g	캐나다	-	Loblaws
PC Organics King Oyster Sliced Mushrooms		200	4.99	캐나다	President's Choice	Loblaws
Organic Baby King Oyster Whole Mushrooms		200	4.27 ~4.99	캐나다	President's Choice	Loblaws, No Frills
Organic Sliced King Oyster Mushrooms		200	3.99	캐나다	Enviro Mushrooms	Galleria Supermarket, H-Mart
Organic Baby King Oyster Mushrooms		170	2.99	캐나다	Enviro Mushrooms	Walmart, T&T Supermarket
Organic Baby King Oyster Mushrooms		200	3.99	캐나다	Enviro Mushrooms	Galleria Supermarket, H-Mart, T&T Supermarket
Organic King Oyster Mushrooms		200	3.99	캐나다	Enviro Mushrooms	H-Mart
Fresh King Oyster Mushroom		400	2.98	한국	Golden Mushroom	Galleria Supermarket, H-Mart
King Oyster Mushroom		400	2.98	한국	Guan's Mushroom	Galleria Supermarket



<표> 광역토론토(GTA) 내 판매 중인 주요 만가닥 버섯 정보

제품명	사진	중량 (g)	소매가 (C\$)	국가	브랜드	판매점
Brown Beech Mushrooms		150	1.58 ~ 1.99	한국	Guan's Mushroom	Galleria Supermarket, T&T Supermarket
White Beech Mushrooms		150	1.58 ~ 1.99	한국	Guan's Mushroom	Galleria Supermarket, T&T Supermarket
Brown Shimeji Mushroom		150	1.58 ~ 1.99	한국	Golden Mushroom	Galleria Supermarket, T&T Supermarket
White Shimeji Mushroom		150	1.58 ~ 1.99	한국	Golden Mushroom	Galleria Supermarket, T&T Supermarket
Organic Bunashimeji (Beech) Mushrooms		100	2.49	미국	Hokto Kinoko Company	Galleria Supermarket, T&T Supermarket
Organic Bunapi Mushroom		100	2.49	미국	Hokto Kinoko Company	Galleria Supermarket, T&T Supermarket

<표> 광역토론토(GTA) 내 판매 중인 주요 느타리 버섯 정보

제품명	사진	중량 (g)	소매가 (C\$)	국가	브랜드	판매점
Oyster Mushrooms		비포장	2.68/ 100g	캐나다	-	Loblaws
PC Oyster Mushrooms		100	2.97 ~3.9 9	캐나다	President's Choice	Loblaws, No Frills
Organic Oyster Mushrooms		85	3.99	캐나다	Compliments	Sobeys
Organic Oyster Mushrooms		114	4.99	캐나다	Windmill Farms	Whole Foods
Organic Oyster Mushrooms		170	4.48	캐나다	-	Walmart
Organic Oyster Mushrooms Combo		150	1.99 ~3.4 8	캐나다	Enviro Mushrooms	Galleria Supermarket, T&T Supermarket
Organic Black Oyster Mushrooms		150	2.99 ~3.4 8	캐나다	Enviro Mushrooms	Galleria Supermarket, H-Mart, T&T Supermarket
Oyster Mushroom (Canada)		420	4.19 (9.98/ 11b)	캐나다	Galleria Super Market	Galleria Supermarket
Oyster Mushroom (USA)		465	2.55 (5.48/ 11b)	미국	Galleria Super Market	Galleria Supermarket



## □ 라벨링

-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 2가지 언어가 모두 공용어인 만큼 라벨링에 있어서도 두 가지 언어로 모두 표시해야 함
- 식품라벨의 경우,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와 불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업체 및 포장업체의 이름, 주소는 한 가지 언어로 표기가 가능함

<b>&lt;표&gt; 한 가지 언어 표기 가능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불어, 영어 중 한 가지를 모국어로 하는 주민 비율이 10% 이하인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상품</li><li>▪ 선적용 컨테이너</li><li>▪ 시판용 제품</li><li>▪ Food and Drug Regulation에 정의된 특수 식품</li><li>▪ 퀘벡주는 관할구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불어 사용관련 추가 요구 사항 있음</li></ul>

출처 : 캐나다 목이버섯 시장조사, aT

-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활자는 영문 소문자를 기준을 16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순 중량의 경우에는 주된 전시 면에 개수 및 미터법 도량형으로 표기해야 하며, 숫자 표기는 볼드체로 기재해야 함
- 캐나다 수입업체에서 외국산 완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입업체명과 주소를 Imported by(for) / Importe par(pour) 뒤에 기재하거나 생산자와 수입업체를 모두 기재 하여야 함
- 소포장 제품 중 유통기한이 90일 이하인 제품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포장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유통기한 표기는 연, 월, 일 순으로 함
-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 식생활 보호를 위해 식품 수입 절차가 까다로운 편임. 캐나다 소비자들 또한 식품 구매 전 성분표 혹은 영양 분석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함

**<표> 라벨링 표시사항**

구분		내용
1	원산지 표기	제조된 국가를 명시해야 함
2	제조사명 및 주소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Imported by(for) / Importe par(pour) 문구가 캐나다 수입업체의 주소 및 연락처 앞에 명시되어야 함 ※ 다음 제품은 원산지 표기가 필수사항임 : 와인과 브랜드, 유제품, 꿀, 수산물, 과일과 채소, 달걀, 가공란, 육류, 메이플 제품, 가공 과일과 채소
3	유통기한	포장 제품은 90일 이내에 섭취되어야 하고 매장에서 포장된 경우에는 포장일자("packaged on" date)를 명시하고 식품 라벨이나 식품 옆 포스터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함. 매장에서 포장된 것이 아니면 유통기한("best before" date)과 보관방법(상온 보관이 아닐 시)이 명시되어야 함
4	알레르기 유발 성분표기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 규정 B.01.008, B.01.010,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규정에 의거하여 알레르기 유발 성분(13종)이 함유되어 있으면 반드시 내용물을 모두 작성해야 함 ※ 아몬드 등 견과류, 땅콩, 참깨, 밀과 라이밀, 달걀, 우유, 대두, 갑각류, 패류, 어류, 겨자씨, 글루텐, 아황산염
5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 위치 : 식품의 주표시면 라벨에 표시</li> <li>▪ 활자 크기 :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li> <li>▪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복합재료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성분목록에 표시함</li> <li>▪ 기타 알레르기 유발성분 예방문구를 자발적으로 표시함</li> </ul>
6	알레르기 유발성분 예방문구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법규상의 기본 성분, 영양소 표시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표시함</li> <li>▪ 표시 목적 :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일깨우고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해당 문구가 표시된 식품을 섭취하지 않게 하는 것</li> <li>▪ 표시 문구 : "~함유 가능성 있음" (원어 : may contain ~)</li> <li>▪ 연방보건부 권고 요건 : 신뢰성 있고 명료하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표시해야 함</li> </ul>

출처 : 2015 FTA로 다시 보는 캐나다, aT


□ 캐나다 인증 정보<sup>14)</sup>

○ 캐나다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로 인정받으려면 유기농 COS 규격을

14) 캐나다 목이버섯 시장조사, aT

획득해야 하며, COS 마크를 부착한 식품은 ‘유기농(Organic)’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국산 및 수입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인증은 캐나다 규격을 준수해야 함.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작물 재배지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유전자 조작이 없어야 하며 돌려짓기, 유기농 퇴비사용 같은 유기농 방식을 최소 12개월 이상해야 함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공인된 캐나다 20개의 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유기농 인증 취득이 가능함

인증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기농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캐나다 식품 검사 청에서 규정한 품질, 생산방법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li> <li>▪ 농산물이 95% 이상 유기 농산물일 때 '유기농'이라고 표시하거나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음. 70~95%이상 일 땐 '유기농'표시는 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는 붙일 수 없음</li> <li>▪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짐</li> </ul>
발행기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인증절차	인증 신청 → 비용 지급 → 제품 조사 및 검증 → 제품 인증
인증마크	

## 제2장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수출검역요령

### 1. 목적

이 요령은 재배매체가 부착된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배매체가 부착된 버섯의 원활한 캐나다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 대상

캐나다로 수출하는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 입병 재배되는 식용 버섯(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

### 3. 재배매체 및 생산시설의 요건

#### 가. 재배매체의 요건

- (1) 재배매체가 흙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매체의 보관, 제조, 발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수처리가 된 바닥 위에서 하여야 한다.
- (2) 재배매체의 제조 및 생산 시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다음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먹는 물 기준에 부합되는 물 또는 상수원 1급수 이상
  - 병원균이 사멸되도록 여과하여 끓이거나, 염소, 오존 등으로 소독한 물
- (3) 재배매체는 121℃, 1.2kg/cm<sup>2</sup>, 1-4시간 또는 100℃, 1.033kg/cm<sup>2</sup>, 6-10시간 멸균하여야 한다.
- (4) 재배매체는 식물재배 및 기타 농업적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 되지 않았어야 한다.
- (5) 재배매체 원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되어야 한다.

#### 나. 생산 및 포장 시설의 요건

- (1) 재배요건을 숙지한 허가받은 직원만 출입하여야 한다.
- (2) 생산 및 포장 시설은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 (3) 출입구 및 바닥은 흙에 오염되지 않도록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4) 생산 및 포장시설은 병원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4. 생산시설 승인

#### 가. 승인 신청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시설 확인 및 승인서 교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당해 생산시설이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다. 승인상황 보고 및 상대국 통보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현황을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에 통보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승인된 생산시설을 반기(6월 및 12월)별로 점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라. 승인취소

승인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3.재배매체 및 생산시설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에 대해 1개월 내에 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명령하고, 보완이 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버섯의 캐나다 수출을 중단시키고, 동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보완 명령기간 내에 시설 등이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생산 시설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5. 수출식품검역증명서 발급

식품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is shipment’s growing media is free from soil and originated 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 (승인 받은 시설명).”

(이 화물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인된 시설에서 재배되었음.)

[별지 제8호]

##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

생산시설명 (영문)			
생산 버섯 (학명)			
주 소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 (영문)		면적	
※ 구비서류 - 생산시설 도면 1부 -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현황			

상기와 같이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로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시설명

(대표자)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캐나다 수출용 ( )버섯 생산시설 현황

구분	항목	현황
1. 재배매체	가. 재배매체가 흙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매체의 보관, 제조, 발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수처리가 된 바닥 위에서 함.	<input type="radio"/> 콘크리트 ( )
		<input type="radio"/> 방수 처리 된 바닥 ( )
		<input type="radio"/> 기타( )
	나. 재배매체 제조 및 생산 시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다음의 물을 사용함. - 먹는 물 기준에 부합되는 물 또는 상수원 1급수 이상 - 병원균이 사멸되도록 여과하여 끓이거나, 염소, 오존 등으로 소독한 물	<input type="radio"/> 상수도물 ( )
		<input type="radio"/> 음용가능한 지하수 ( ) <input type="radio"/> 상수원 1급수 이상 ( ) <input type="radio"/> 병원균이 사멸되도록 소독 (여과, 염소, 오존 등) 처리한 물( )
	다. 재배매체는 다음 조건에 따라 멸균함. - 121℃, 1.2kg/cm <sup>2</sup> , 1-4시간 또는 100℃, 1.033kg/cm <sup>2</sup> , 6-10시간	<input type="radio"/> 121℃, 1.2kg/cm <sup>2</sup> , 1-4시간 ( )
<input type="radio"/> 100℃, 1.033kg/cm <sup>2</sup> , 6-10시간 ( )		
라. 재배매체는 식물재배 및 농업적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음.		
마. 재배매체의 원료는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함.		
2. 생산 및 포장시설	가. 생산요건을 숙지한 허가받은 직원만 출입함.	
	나. 생산 및 포장시설은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없음.	
	다. 출입구 및 바닥은 흙에 오염되지 않도록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됨.	<input type="radio"/> 타일 ( )
		<input type="radio"/> 콘크리트 ( ) <input type="radio"/> 기타 ( )
라. 바닥 및 출입구, 재배상, 재배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처리 함.	<input type="radio"/> ( )일 간격으로 소독	

※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버섯 별로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서

생산시설명 :

주 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생산버섯 :

상기 시설은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적합하므로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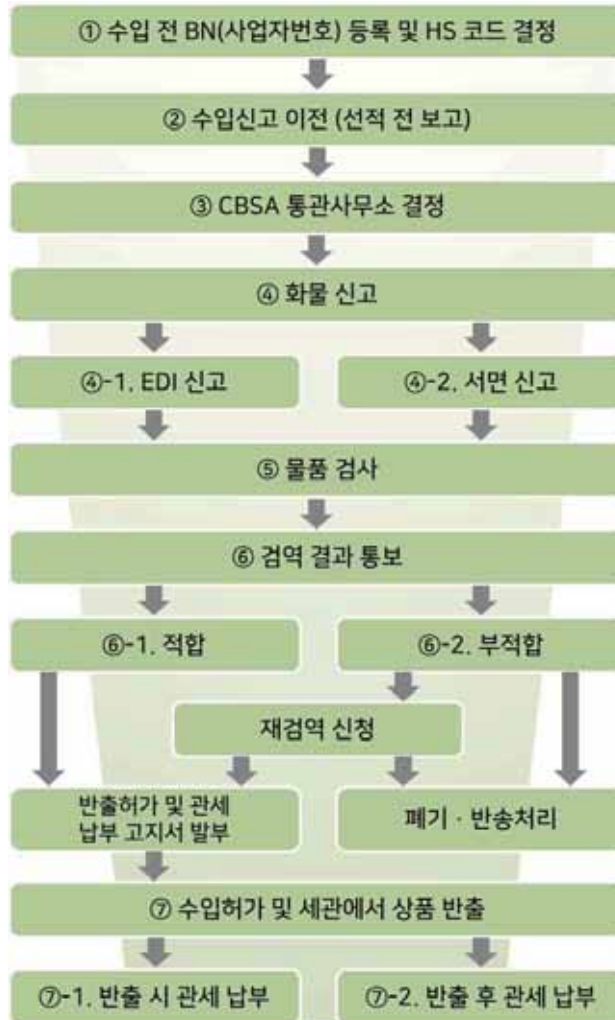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인



□ 통관절차

<그림> 캐나다 통관절차



출처 : FTA로 다시 보는 캐나다(2015), aT

1) 수입 전 BN(사업자번호) 등록 및 HS 코드 결정

- 수입자(개인 또는 사업자 포함)는 캐나다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사업자 번호 (Business Number)가 필요함. 통관중개인(Licensed Customs Brokers)이 수입통관 절차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수입자는 사업자 번호가 필요하며, 통관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써 주어야 함
-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RO)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HS 코드 결

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BIS(Border Information Service)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에 서면으로 사전심사(Advance Ruling)를 요청할 수 있음

## 2) 수입신고 이전 (선적 전 보고)

-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선적 전에 한국에서 캐나다 세관으로 ACI(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를 전송함. 미국 영토를 먼저 경유할 때에는 ACI와 더불어 미국 세관에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와 ISF(Importer Security Filing)를 전송함
- CB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송수단, 미국 경유 여부에 따라 보고 방법이 상이함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2/d12-1-leng.html>)
- 보고 시기는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외국공항이나 항구에서 물품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데이터를 전자송부함. 이동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이 미국에서 출발한 시점에 전자송부함
- 만약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이 처음으로 도착할 곳에 실제로 도착하기 4시간 전에 관련 서류를 송부함
- 선적 전 보고는 일반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포워더가 대행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ACI, AMS, ISF 등에 필요한 화물정보, 수출자, 수입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에 따른 비용은 수출업체 책임이므로, 수출업체는 캐나다 수입업체의 신분, 사업자번호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AIRS(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수입참조 자동화 시스템)에서 각 품목의 수입가능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음  
([http://airs-sari.inspection.gc.ca/airs\\_external/english/decisions-eng.aspx](http://airs-sari.inspection.gc.ca/airs_external/english/decisions-eng.aspx))

- 부과 세금으로는 물품용역소비세(GST), 물품세(Excise Tax), 소비세(Excise duty)가 있으며 물품용역소비세(GST)는 5%로 수입 시 대부분의 상품에 부과됨. 단, 농산물 및 청과류 등은 면세 상품이며 수입 서류 작성 시 면세 코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3) 수입신고를 위한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 결정

- 대부분의 화물은 도착한 곳의 CBSA 통관사무소에서 통관됨. 보세운송인을 사용하면 수입업자의 편의에 의해 내륙 사무소에서 통관이 가능함

### 4) 화물 신고

-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함
- 화물의 신고액수가 2,500C\$ 이상일 경우, 운송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상품이 도착했음을 알리며, 우편의 경우 CBSA가, 택배의 경우 택배업체가 수입업자에게 도착을 알림
- 화물의 신고액수가 2,500C\$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의 경우 우체국에서 E14 서류와 CBSA 우편 수입 서류(분류, 금액, 송장 정보에 따른 관세와 세금 등이 표시)를 수수료 부과 조건으로 처리하여 상품과 함께 배송함. 택배의 경우 택배업체가 수수료 부과를 조건으로 모든 세관 문서를 대신 처리하기도 함

#### 4)-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

-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을 받을 통관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 전자 자료를 전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EDI 신고는 특정 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 통관 기업 내 관세청과 연결된 S/W를 설치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함

#### 4)-2. 서면 신고

- 수입화물 수하인이나 위탁 통관기업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제출함
-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증빙서
  - Cargo Control Document 2부
  - Invoice 2부
  - Canada Customs Coding Form 2부
  -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1부
  - Certificate of Origin 1부
- ※ Certificate of Origin은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라 철폐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별첨 양식에 수출업체가 서명하여 발급함(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는 통관 후에도 5년간 증명의무가 있음)

## 5) 물품 검사

-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 물품을 검사(Inspection 또는 Exam)함. 검사의 발생경비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됨
- 검사의 대상은 최초 수출되는 제품 또는 동식물, 사료,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등(CFIA권한)이 포함됨
- 면제 대상은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안전성과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자 등에 해당함
- 검사방법
  - Vacis Exam (X-ray 검사)
  - Dock Side Exam (항구 도착 후 컨테이너를 열어보는 검사)
  - Wooden Package Exam (세관이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창고에서 풀고 확인)
  - Random Exam (임의 검사)
  - impact Exam (세관에서 실시하는 세부 검사)

## 6) 검역 결과 통보

#### 6)-1. 검역 통과 시

- 상품 반출 허가 및 관세납부 고지사(K84)를 발부함

#### 6)-2. 검역 부적합 판정의 경우

- 반송 혹은 폐기 처분하며, 수입자는 재검역 신청을 할 수 있음

#### 7) 수입허가 및 세관에서 상품 반출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을 필요가 없음. 그러나 일부 규제 물품에 대해서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과 특별 수입 규제 조치법(SIMA : 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의해 지정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Justice Canada)에서 ‘Import Control List’ 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604/](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604/))

#### 7)-1. 관세 사전 납부

- 수입신고서 제출 시 관세 및 세금을 현금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함. 다만, 물품검사(Exam)를 하는 경우, 추가 관련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의 납부는 물품 검사가 종료된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납부하면 됨
- 관련 증빙서류
  - B3-3 (캐나다 세관 코딩 서류)
  - A8A-B (화물 통제 서류) 2부 (수송회사에서 제공)
  - CI1 (캐나다 세관 송장) 2부
  - 기타 수입 허가 증명서

- 면허 혹은 기타 정부 부처나 에이전시가 필수로 정한 문서 혹은 전자 복사본

#### 7)-2. 관세 사후 납부

- Bond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면허가 있는 통관중개업자는 통관 후 15~3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세관과 신뢰관계가 구축된 경우 RMD 신청을 통해 통관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RMD 옵션의 경우, EDI 시스템을 통해 RMD 반출 요청을 해야 함

#### 8) 통관 완료

-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 결정 후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 9) 수입 완료 후

- 회계정보 오류는 발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잡아야 함
- 수입 관련 기록(수량, 금액, 원산지, 벤더, 제품 등의 정보를 포함)은 전자 방식 혹은 서면으로 6년간 보관해야 함

### 3) 수출 확대 전략

#### ① 3C분석

01	<b>Custome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의 버섯 생산량은 최근 5년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캐나다 통계청 자료 참고)</li> <li>- 버섯 소비의 경우 점차 가공 버섯에서 신선 버섯의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li> <li>-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 버섯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li> </ul>
02	<b>Competitors : 미국, 중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산의 수입이 많은 편임</li> <li>- 중국산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여 우리나라 버섯류에 비해 가격 경쟁력 높음</li> <li>- 미국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 일본산 버섯(호쿠도)과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li> </ul>
03	<b>Company : 한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로 기타 버섯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임</li> <li>- 버섯 수출액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li> <li>- 한번이라도 한국산 버섯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li> <li>-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며, 현지 생산 제품 대비 품질 또한 좋은 편임</li> </ul>

## ② SWOT 분석 최적전략

강점 (Strength)	기회(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대비 우수한 품질</li> <li>- 가격 경쟁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버섯 수요량이 높아짐</li> <li>- 중국산에 비해 안전성, 품질 우위</li> <li>- 한번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만족도가 높은 편임</li> </ul>
약점(Weakness)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 중국산 버섯과의 경쟁</li> <li>- 친환경적 포장을 선호함</li> <li>- 낮은 인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는 서양문화권으로 식문화가 상이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li> <li>- 라벨링, 포장 등이 빈약</li> <li>-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에 약함</li> <li>- 소포장 등 마케팅 활동 부족</li> </ul>

### ③ Marketing Mix 전략

<p><b>SO전략</b> (강점-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캐나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공 버섯보다 신선 버섯을 선호하고, 유기농 제품 등 다양한 프리미엄 농식품을 선호함에 따라 우리나라 버섯이 고품질의 안전한 버섯이라는 점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li> <li>- 중국산에 비해 안전하며 뛰어난 품질을 강조한 이미지 메이킹 전략</li> </ul>
<p><b>WO전략</b> (약점-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인지도와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산 버섯의 우수한 품질을 강조하는 전략이 요구됨</li> <li>-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저품질의 중국산과 차별화 전략</li> </ul>
<p><b>ST전략</b> (강점-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품질·저가격의 중국산 버섯에 대비한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li> </ul>
<p><b>WT전략</b> (약점-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보다는 고품질 시장으로서의 포지셔닝 전략</li> </ul>

#### □ 전략

- 최근 건강에 대한 캐나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유기농 인증 획득을 통해 품질이 낮은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유도함
- 또한, 버섯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모듬팩으로 판매하거나 미리 슬라이스된 형태로 판매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함



- 한국산 버섯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의 경우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임
  
- 중국산은 가격이 저렴하며 중국계 화교가 운영하는 아시아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나 품질 및 포장 수준은 다소 떨어짐. 다만, 가격이 저렴하여 표고 등 일부 품목이 유통되고 있음<sup>15)</sup>

---

15) FTA로 다시 보는 캐나다, 201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III 해외시장동향 03 : 호주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수도	캔버라
인구	2,497만 명(2018년 6월)
면적	768만km <sup>2</sup>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80배)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주요 도시	시드니(513만명), 멜버른(485만명), 브리즈베인(241만명), 퍼스(204만명) 등 (2017년 6월)
민족 구성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개 방언)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화폐 단위	Australian Dollar(A\$)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GDP : US\$ 1조 3,900억(2017년)</li> <li>▪ 1인당 GDP : US\$ 5만 6,000(2017년)/PPP(구매력 기준)</li> </ul>
산업 구조	서비스업:76.5%, 건설업:7.9%, 제조업:6.3%, 광업:6.3%, 농림수산업:3.0% (2017년)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CIA The World Factbook(www.cia.gov)

#### 1) 국가개요

## ① 국가개황

- 호주는 영국연방에 속하는 나라로,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Commonwealth of Australia)이지만 줄여서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또는 호주라고 부름. 오세아니아에 속해 있으며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로 호주 대륙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섬,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짐
- 호주는 6개의 주(States)와 두 개의 준주(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2,290만(전체 인구의 90% 이상) 정도의 호주 인구는 대부분 동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도시화 비율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음

### <그림> 호주의 지역구분



- 6개의 주
  - 뉴사우스웨일스주(NSW)
  - 빅토리아주(VIC)
  - 퀸즐랜드주(QLD)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A)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
  - 태즈메이니아주(TAS)
- 2개의 준주
  -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NT)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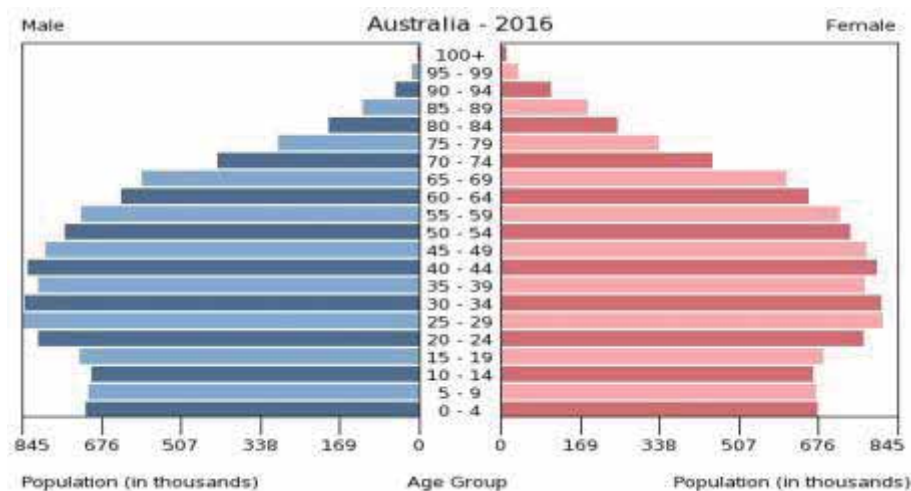
출처 : 위키백과

- 호주의 인종 및 민족 구성은 2017년 기준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으로 구성됨. 언어는 수백 개의 원주민어가 있지만 공용어인 영어를 주로 사용함
- 총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4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0~14세 인구가 18.8%, 15~64세 인구가 65.9%, 65세 이상 인구가 15.3%임. 총 인구는 2015년 대비 1.4% 증가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현상으로 인해 인구 피라미드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방추형 형태로 나타나며, 인구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음

-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8월, 호주 인구가 2천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함. 호주의 인구성장 동력은 높은 이민율에서 기인하며 호주 인구는 2017년에 388,000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62%(240,000명)는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의 수를 뺀 순이민자 수의 증가로 분석됨. 주로 중국, 인도, 영국, 뉴질랜드에서 유입됨
- 그러나 기존 기간시설이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해 교통체증과 대중교통망의 혼잡, 학교 및 병원의 추가설립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과 임금의 더딘 성장에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

<그림> 호주의 인구구조



출처 : CIA, The World Factbook 2018, Australia

## ② 경제

- 호주는 지난 27년간 2%대의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와 IMF는 2019년 호주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9%와 3.1%로 예측함
- 호주 정부는 2018년 12월 발표한 ‘2018-19년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YEFO)를 통해 회계연도 2017-18

년 경제성장률을 2.8%로 발표하고, 2018-19년 역시 2.75%의 유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에 따르면 호주가 그동안 자원에너지 개발 수출 등 광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향후 이민 등으로 인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규모도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측함

- 하지만 이민자 증가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와 이에 대해 호주인 75%가 이민자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여론 조사결과 등 이민자 유입을 통해 호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GDP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기반이 6.3% 정도로 취약하며 주로 광업(6.3%), 농림수산업(3.0%), 건설업(7.9%) 등 1차 산업 및 서비스업(76.5%)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표> 호주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2.16	2.62	2.47	2.65	2.27
GDP(백만 USD)	1,573,697	1,464,955	1,349,034	1,208,039	1,323,421
1인당 GDP(USD)	67,990.29	62,327.56	56,561.41	49,896.68	53,799.94
물가상승률(%p)	2.45	2.51	1.51	1.25	1.97
이자율(%)	4.2451	2.7439	2.8248	2.7650	2.6431
실업률(%)	5.66	6.07	6.06	5.71	5.60
환율(A\$/1USD)	1.04	1.11	1.33	1.35	1.30

출처 : 세계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③ 무역

○ 호주는 제조업이 취약한 반면 농업,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 국가와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함

- 호주의 교역구조를 보면 광업이 발달한 만큼 2014년 기준 전체 수출의 60%가

넘게 철광석, 석탄, 귀금속 등의 천연자원이 수출됐고, 기계, 화학제품 등 제조업 공산품을 주로 수입함

-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던 호주의 교역 규모는 2017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섬.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임

**<표> 호주 무역수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백만 USD)	307,258	294,725	237,376	248,404	297,270
수입액(백만 USD)	314,679	302,696	264,864	257,931	288,475
무역수지(백만 USD)	△7,420.88	△7,971.20	△27,487.62	△9,526.61	8,794.91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④ 물류

- 호주에는 35개의 주요 항구와 12개의 주요 공항이 있음. 호주는 전체 수출입 물류의 74%가 해상물류로 거래되며, 멜버른 항(전체 해상 물류의 40% 차지)과 시드니 항이 주요 수출입 항구임. 항공 물류의 경우 시드니 국제공항이 주요 수입 공항이고, 퍼스 공항이 주요 수출 공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에서 호주로 해상으로 수출 시 컨테이너 선적 기준 부산항에서 호주의 멜버른 항까지는 약 23일, 시드니 항까지는 약 26일, 브리즈번 항까지는 약 29일이 걸림<sup>16)</sup>

#### ⑤ 식품산업동향

- 호주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다국적 문화’로 호주 인구 3명 중 1명은 해외 출생자임. 또한, 이민자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유럽 및 아시아 식품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에스닉 푸드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으

16) 출처 : 한진해운

로 인해 에스닉 푸드 중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호주 소비자는 저칼로리, 저염, 저설탕, 글루텐 프리와 같이 건강을 중요시하며 유기농 인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건강식 또는 유기농 제품과 같은 프리미엄 푸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제품과 차별화 되는 성분으로 호주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신선한 재료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meal kit) 배달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밀키트 시장은 호주 내에서 27억 호주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호주의 소비자들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구매 시 자국 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처음 소비자 공략이 어려움. 하지만, 한번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꾸준히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줌
- 호주 내 한국 식품 수입업체는 약 3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입 규모는 연간 1천만AS에 불과해 중국 식품 수입업체들에 비해 영세한 규모를 보이며, 영업력이나 시장지배력에 있어 약세를 보임
- 호주 내 한국식품점의 경우 호주 전역에 약 7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위치함. 이 중 시드니와 그 광역 주변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호주 내 한국 교민의 70%가 시드니와 그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임

## 2) 버섯 시장 동향

### □ 호주 시장(HS CODE 0709.59) 시장



- 호주 내 버섯의 HS CODE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러나 국가별로 HS CODE가 일곱 번째 자리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 통계는 같은 품목의 상위 범주인 HS CODE 0709.59(Fresh or chilled edible mushrooms and truffles (excluding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으로 조사함

<표> 호주 내 버섯 HS Code 분류

HS CODE	품명
0709.5	버섯과 송로
0709.51.006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09.59.0062	기타

출처 : 호주이민성(www.homeaffairs.gov.au)

- 1933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으로 버섯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함.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송로버섯의 주 생산국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송로버섯 수출국 중 하나임
- 하지만, 양송이버섯 품종이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송이버섯이 호주를 대표하는 버섯으로 인식됨. 양송이버섯은 100% 호주 현지에서 생산되어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호주의 양송이버섯 시장규모는 약 500만 달러로, 양송이 이외의 버섯들은 전체 버섯 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호주 버섯시장은 높은 임금과 폭등하는 전기료, 기타 투입요소들의 문제로 재배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재배의 규모화가 이루어짐
- 건강과 환경에 대한 호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 버섯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기농으로 생산된 버섯은 영양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호주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됨
-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들이 직접 가정에서 유기농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가정용 원예 용품이 판매됨



① 생산동향

- 농업 통계 사이트 FAOSTAT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호주의 버섯 및 송로 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7,610톤 증가된 5만 387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07년 대비 17.9% 상승하였음

<표> 호주 버섯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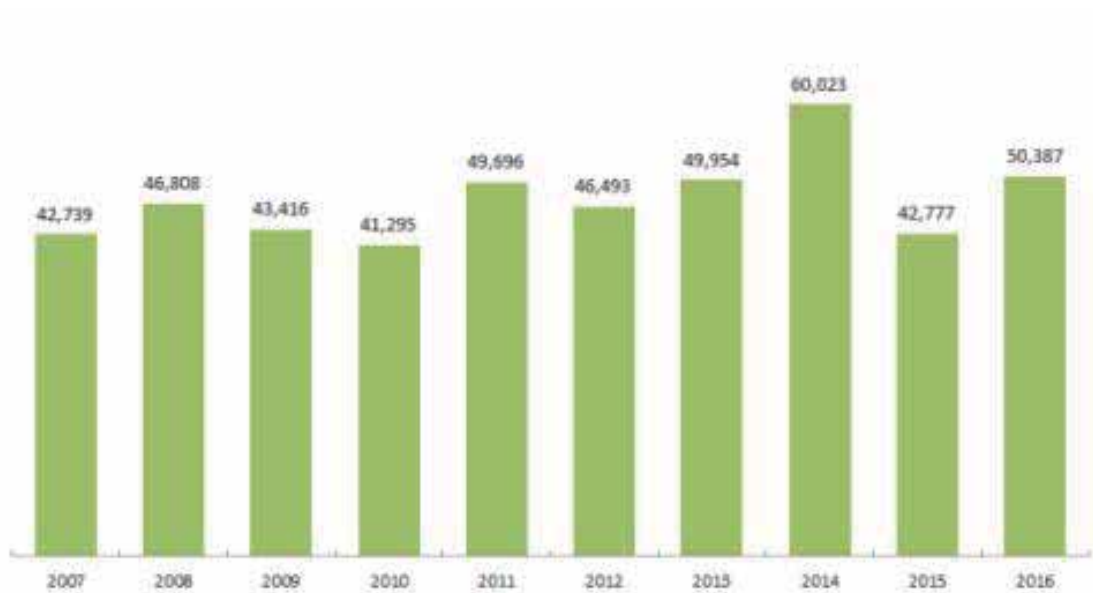
(단위: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2,739	46,808	43,416	41,295	49,696	46,493	49,954	60,023	42,777	50,387

출처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호주에서 생산되는 버섯의 대부분은 양송이버섯으로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송이버섯은 100% 호주 현지에서 생산되어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그림> 호주 버섯 생산량



출처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호주원예협회에서 발간한 「Australian Horticulture Statistics Handbook, 2016/17」에 의하면 2017년 6월 말, 신선 버섯은 총 67,089톤이 생산되었음

며 생산액은 396.6만 달러로 도매가 기준으로는 482.8만 달러임

- 호주원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호주 신선버섯 생산량은 67,089톤으로 이중 대부분은 신선버섯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3%에 달하는 1,764톤만이 가공처리 됨
  - 호주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양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 등이 있으며 수출되는 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1%도 채 되지 않음. 이는 호주의 버섯 생산 비용이 비교적 높아 수출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임
- 팡이버섯의 경우 캔버라와 시드니 지역 현지 농장에서 생산되어 출하되고 있어 호주 팡이버섯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으나 취급 상점이 달라 유통 경로상의 충돌은 없음

#### □ 유기농버섯 생산기준

- 호주 유기농협회는 각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는 농산물에 인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버섯에도 유기농인증 취득을 위한 생산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유기농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생산지는 금지물질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지 12개월 이상 지나야 함
  - 유기농 생산조건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최소 두 번의 생산주기를 거친 이후에 생산된 버섯만 유기농버섯으로 판매할 수 있음
  -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호주 유기농인증 표준」에 정의된 것이어야 함

#### <표> 호주 유기농버섯 생산기준

- 버섯생산에 사용되는 퇴비와 배지의 원료는 모두 유기농이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이 문서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함
- 생산 전 퇴비를 섭씨 65°C 이상으로 저온살균을 거쳐야 함
- 출하 전 최종 증기살균을 할 수 있으나 이 때 장비는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함
- 반드시 인증된 곳에서만 나온 균사를 사용해야 함
- 유전자변형(GMO) 제품의 사용과 공정은 절대 불가함

- 원목재배(Log-grown Production) 버섯에도 생산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버섯을 배양할 목재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이거나 위험물질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
  - 생산단계의 목재 및 톱밥은 전부 오염물질과 함께 취급된 것이 아니어야 함

□ 경쟁동향

- 호주는 국내 생산된 버섯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만큼, 호주 내 생산 업체에 대해 조사하였음

① Mushroom Exchange Pty Ltd (Costa Group)



연락처	+61 3 8363 9000
이메일	info@costagroup.com.au
주소	275 Robynsons Rd, Ravenhall, VIC 3023
홈페이지	http://costagroup.com.au/mushrooms
담당자	Harry George Debney (CEO)

- Costa그룹의 Mushroom Exchange Pty Ltd는 Mushroom Holdings Exchange Pty Ltd의 자회사의 자회사이며, Costa Mushrooms, Adelaide Mushrooms 등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유통되고 있음
- 당사는 호주 최대 버섯 재배 기업으로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하고 있고, 버섯 농장은 퀸즐랜드주, 남호주주, 빅토리아주, 서호주주 및 타즈매니아에 있음
- 주로 생산하는 버섯은 흰색과 갈색 양송이 버섯이며 일주일에 약 500톤의 버섯을 재배하고 있음. 당사는 호주 전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농장이 위치한 지역에 운영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음

- Hoovers의 자료에 따르면, 당사 매출 규모는 6억 9,700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Costa Mushroom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트레이딩)명을 보유하고 있음

- |                              |                         |
|------------------------------|-------------------------|
| ▪ ADELAIDE MUSHROOMS         | ▪ HUON VALLEY MUSHROOMS |
| ▪ CHIQUITA MUSHROOMS PTY LTD | ▪ QUEENSLAND MUSHROOMS  |
| ▪ Costa (Mushroom Category)  | ▪ TASMANIAN MUSHROOMS   |
| ▪ EARTH FRESH MUSHROOMS      | ▪ THE MUSHROOM CENTRE   |
| ▪ GRANITE BELT MUSHROOMS     |                         |

**<그림> 주요 브랜드 로고**



출처 : Costa 그룹 홈페이지

② Parwan Valley Mushrooms Pty Ltd



연락처	+61 3 5369 5233
이메일	fresh@perfection.com.au
주소	535 Aerodrome Road Parwan VIC 3340
홈페이지	http://www.parwanvalley.com.au
담당자	Tim Adlington (CEO)

**<표> 글로벌 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77,432	709,677	192,412	733,687	193,250	723,397	205,820	757,992
1	독일	17,413	89,479	21,069	94,043	23,872	100,418	23,091	95,902
2	프랑스	20,416	79,037	21,809	73,279	19,145	71,770	17,991	71,880

3	이탈리아	10,203	54,933	10,169	52,509	7,313	45,500	7,497	68,664
4	일본	4,289	71,464	3,578	59,121	3,213	60,912	3,108	64,669
5	미국	9,087	27,307	10,139	39,254	9,852	39,139	9,981	45,093
6	영국	18,648	52,581	21,369	54,890	21,613	52,862	19,966	44,404
7	태국	12,502	21,512	16,670	27,098	20,507	32,498	21,047	33,763
8	네덜란드	3,837	21,460	4,113	19,901	4,860	21,721	5,585	25,628
9	오스트리아	5,098	25,336	4,278	23,857	4,416	23,519	4,022	23,229
10	베트남	767	4,845	1,026	6,695	2,095	11,378	13,360	22,529
<b>20</b>	<b>호주</b>	<b>1,961</b>	<b>5,669</b>	<b>2,364</b>	<b>6,451</b>	<b>2,742</b>	<b>7,283</b>	<b>3,247</b>	<b>8,215</b>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Parwan Valley Mushrooms Pty Ltd는 호주의 프로세스 개선 및 자산 관리 회사인 Mecrus Pty Ltd와 Perfection Fresh Australia사의 조인트 벤처기업으로 2011년 설립됨
-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소재한 Mecrus는 에너지, 물, 광업 및 자원, 농업 관련 분야에 대한 운영 관련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Perfection Fresh사는 시드니에 본사를 둔 30년 경력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품 관련 호주 식품 회사임
- Parwan Valley Mushrooms는 멜버른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7헥타르의 버섯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일주일에 약 50톤의 흰색 및 갈색 양송이버섯을 생산하고 있음
- Parwan Valley Mushrooms는 재배, 수확 및 유지 관리 책임자, 품질 보증, 인적 자원 및 관리 직원 등 8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 Hoovers의 자료에 따르면, 당사 매출 규모는 2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② 수·출입동향

□ 글로벌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글로벌 시장 내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수입량 3,247톤, 수입액 8,215천 달러로 2017년 수입액 기준 20위를 차지함
- 호주는 글로벌 수입 비중에서 2017년 기준 수입량, 수입액 각각 1.58%(3,247톤), 1.08%(8,215천 달러)를 차지하였음
- 호주의 경우 수입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목할 만한 시장임

#### □ 수입현황

- 2017년 수입액 기준 5대 수입국으로는 대한민국, 중국, 스페인, 대만, 이탈리아 순이며 그 중 대한민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97.8%(3,175톤), 수입액의 95.8%(7,874천 달러)를 차지함
- 2017년 기준 호주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대한민국으로 2017년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81.8%(2,657톤), 수입액의 74.4%(6,108천 달러)임
- 한국의 기타 버섯 수출은 주로 새송이 버섯과 팽이버섯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16%(518톤), 수입액의 21.5%(1,766천 달러)를 차지함
- 호주의 신선버섯 수입량은 2017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65.6%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의 44.9% 증가하였음

<표> 호주의 버섯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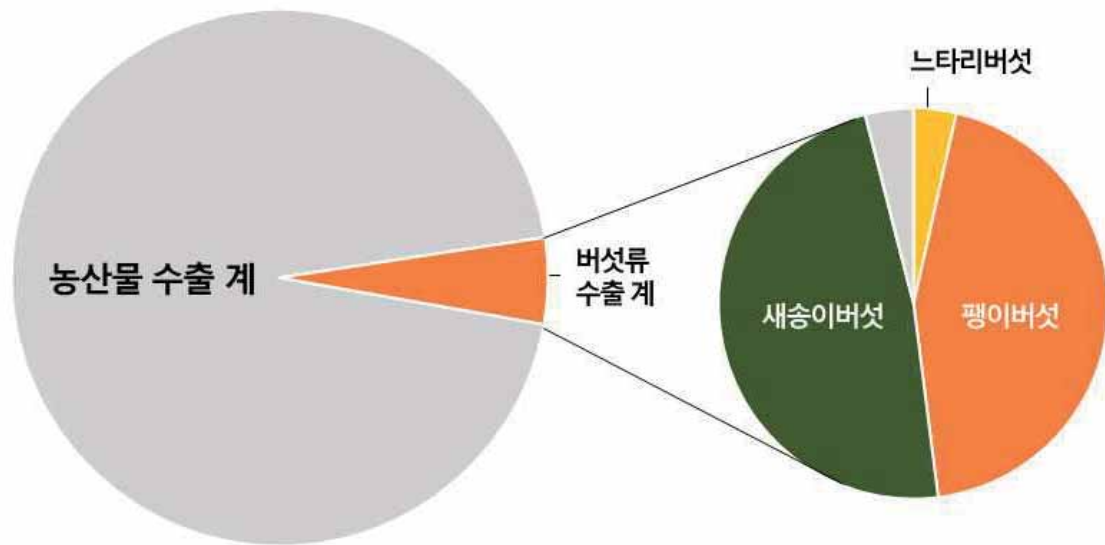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961	5,669	2,364	6,451	2,742	7,283	3,247	8,215
1	대한민국	1,406	3,372	1,911	4,437	2,233	5,218	2,657	6,108
2	중국	492	1,883	368	1,626	423	1,702	518	1,766
3	스페인	0	12	0	5	20	65	33	101
4	대만	29	142	30	157	26	115	15	65
5	이탈리아	15	141	35	136	17	67	5	60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수출된 전체 농산물 수출액(134,462.7천 달러) 중 농산 버섯의 수출액(7,355.1천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조사됨
- 농산 버섯류의 호주 전체 수출액 7,355.1천 달러 중 새송이버섯이 3,531천 달러로 4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팽이버섯이 3,270.4천 달러로 44.5%가 수출됨
- 이를 통해 주로 호주가 우리나라에서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을 수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우리나라 버섯의 호주 수출 현황(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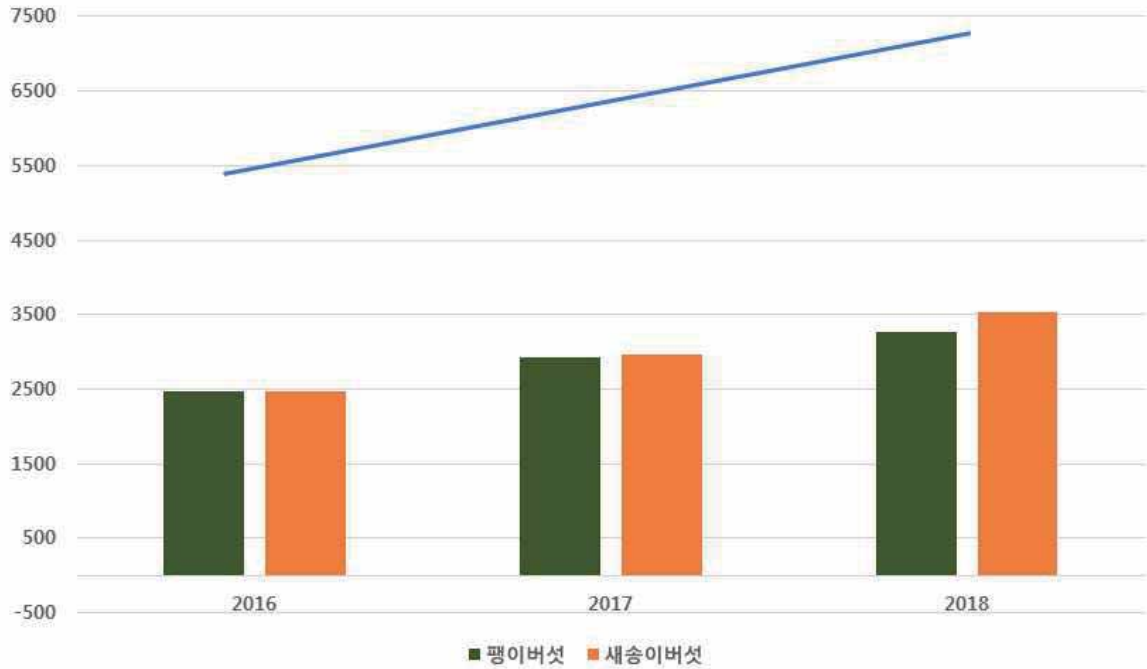
구분 (단위 : 톤/천 달러)	2018년	
	수출(중량)	수출(금액)
농산물(계)	44,465.4	134,462.7
버섯류(농산물)(계)	3,043.1	7,355.1
새송이버섯(계)	1,056.3	3,531
팽이버섯(계)	1,820.3	3,270.4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 호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버섯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  
2018년의 경우, 호주로 총 7,355.1천 달러의 농산 버섯이 수출됐으며 이는 2016년(5,350.2천 달러)에 비해 37.5% 증가한 금액임
- 새송이버섯의 경우 2018년 총 3,531천 달러가 호주로 수출됐으며 2016년 (2,470.8천 달러)에 비해 43%증가함
- 팽이버섯의 경우 2018년 총 3,270.4천 달러가 호주로 수출됐으며 2016년 (2,468.3천 달러)에 비해 32.5% 증가함



<그림> 우리나라 버섯류 수출 현황(호주)



출처 : KATI

<표> 우리나라 버섯류 수출 현황(호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농산물 계	42,283	146,035	45,082	159,664	44,465	134,463
농산 버섯류 계	2,249	5,350	2,733	6,402	3,043	7,355
새송이버섯	727	2,471	885	2,972	1,056	3,531
팽이버섯	1,395	2,468	1,695	2,933	1,820	3,270

출처 : KATI

□ 수출현황

### ③ 소비동향

- 최근 높은 도시화 비율,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사 대체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버섯의 경우 호주 음식에서 소스, 샐러드, 반찬, 수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버섯은 다른 요리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버섯을 물에 불린 후 요리에 활용하면 식감 면에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식주의자 사이에서 큰 인기요인으로 작용함
- 호주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양송이버섯의 경우 주로 피자 토핑용으로 이용되며 팽이버섯, 표고버섯은 아시아 레스토랑이나 파스타 레스토랑 요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됨<sup>17)</sup>
- 호주인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식재료로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팽이버섯이 현지화된 품목은 아니나 호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호주 소비자들은 ‘호주 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호주로 수출 시 현지 제품과 경쟁하여야 함. 조사에 따르면 호주 소비자의 2/3 이상이 식료품 구매 시 현지에서의 생산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sup>18)</sup>
  -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현지 생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음
- 호주버섯재배협회(Australian Mushroom Growers Association Ltd)에 따르면 통상 호주 가정의 83%가 버섯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호주의 경우 일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버섯 소비량은 평균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

17) 호주 팽이버섯 해외시장보고서, aT (2015)

18) USDA, Retail Food Sector Report 2018, Australia

타남

- 호주의 1인당 평균 버섯 소비량(호주산)은 2.8kg으로 유사 시장인 캐나다(1인당 버섯 소비량 3.5kg)에 비해 약간 낮음. 한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소비량이 매우 낮은데, 중국의 경우 1인당 버섯 소비량이 약 10kg인 것으로 나타남

<표> 호주 신선버섯 시장 동향

구분	2015	2016		2017	
	Value	Value	%YoY	Value	%YoY
생산량(t)	65,420	64,276	△2%	67,089	4%
생산액(\$m)	349.0	353.2	1%	396.6	12%
생산면적(Ha)	153	144	△6%	-	-
신선버섯 수출량(t)	94	59	△37%	62	6%
신선버섯 수출액(\$m)	4.3	4.1	△3%	4.9	17%
신선버섯 수입량(t)	2,384	2,508	5%	3,151	26%
신선버섯 수입액(\$m)	8.0	9.2	15%	10.7	16%
신선버섯 공급량(t)	65,928	64,975	△1%	68,414	5%
신선버섯 도매가격(\$m)	420.5	426.9	2%	482.8	13%
1인당 연간 소비량(kg)	2.77	2.69	△3%	2.84	5%

출처 : 호주원예협회, Australian Horticulture Statistics Handbook 2016/17

- 최근 바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구매 후 바로 사용가능한 얇게 썰어져 포장된 버섯 제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그림> 호주의 다양한 버섯 제품



출처 : Coles 및 Woolworths 홈페이지

- 호주 소비자들의 88%는 볶음요리에 들어간 버섯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83%의 소비자들은 샐러드와 곁들인 버섯에 높은 선호도를 보임<sup>19)</sup>
  - 버섯은 다른 재료와 함께 볶아 먹는 호주식 아침식사인 빅 브레이크(Big Breaky)에 자주 사용됨
- 하지만 최근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민족(ethnic)식품 또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통 아시아식 음식과 호주에서 발달한 퓨전음식에서 많은 종류의 버섯이 사용됨

#### ④ 유통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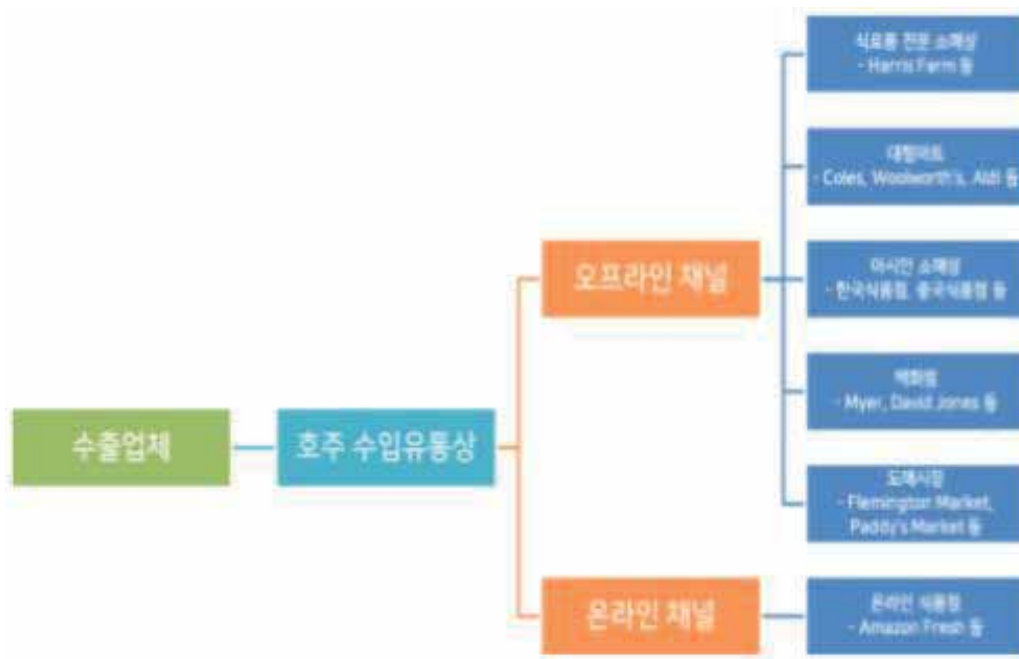
- 버섯 역시 일반 식품 유통과 동일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수입 유통상을 거쳐 아시안 소매상에서 대부분 판매되고 있음
  - 대형마트의 일반 해외 식품 수입 절차 역시 대부분 중간 유통상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재고 관리, 통관 문제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19) 유기농버섯 시장현황 조사(2017),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형 마트는 일반적으로 몇몇 주요 유통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아시안 식품의 경우 현지 주요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Oriental Merchant, Ettason, Rockman Australia 등)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호주 내 대형 식품 유통사들은 대부분이 중국계이기는 하나 중국 식품 외에도 일본, 태국, 한국 등 기타 아시안 국가 제품도 다수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Flemington Market은 42헥타르 규모로 2,129개의 유통상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팽이, 양송이, 산느타리, 느타리, 큰느타리 등 다양한 버섯이 유통되고 있는 주요 도매시장임

<그림> 호주 현지 유통구조



○ 한국산 수입 버섯의 경우, Coles, Woolworths, IGA 등 호주 대형마트에서는 거의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한인마트 및 현지 아시아 마트에서 대부분 취급하고 있음. 호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버섯 제품은 호주 현지 생산 버섯임

- 호주 시장에 초기 진입할 경우 현지 대형 유통사들과의 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지 한인마트나 소형 중국 마트를 타겟으로 하는 한국인 교민 식품 유통사를 통해 진입하는 방법도 있음. 특히 한국산 버섯은

대부분의 수요가 한인마트 및 아시안 식품점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여 대형마트 진출을 계획하는 것 보다는 아시안 소매상을 타겟으로 진입하는 것을 추천함

- 보수적인 호주 시장에서는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있거나 현지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판매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중소 규모의 신규 수출업체와의 직거래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지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여하고 있는 식품 유통 업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한국 버섯의 주요 유통 채널은 한국 식품점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시안 소비자들의 다수는 오히려 아시안 식품점을 통해 한국 버섯을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주요 유통 업체

- 호주 식품 소매시장은 가장 치열한 산업 분야 중 하나로 규모는 2017년 기준 1000억 호주달러(약 81조원)로 지난 5년간 3%의 성장률을 보임
- 호주 내 대표적인 유통채널로는 Woolworths, Coles, ALDI가 있으며, 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Woolworths와 2위인 Coles가 차지하는 비율은 67.5%임. 하지만 지난 5년간 독일계 유통회사인 ALDI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변화를 선도하고 있음

<표> 호주의 주요 유통업체 리스트

	이름	Woolworths (울월스)
	매장 수	995개
	홈페이지	www.woolworths.com.au

-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37.2%를 차지하여 호주 식료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
-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건축, 공구, 정원

용품, 문구류 등 주요 유통망에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름	Coles (콜스)
매장 수	807개
홈페이지	www.coles.com.au

-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30.3%를 차지하는 대형 유통업체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신선한 식재료와 주류, 가정용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이름	Aldi (알디)
매장 수	500개 이상
홈페이지	www.aldi.com.au

-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계 유통업체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호주에도 많은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 중임
- 최저가 정책으로 Woolworths, Coles보다 20~25%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출처:업체별 홈페이지

## □ 유기농버섯 관리기준

- 「호주 유기농인증 표준」에서는 유기농버섯의 생산기준 외에도 유기농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운송, 보관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유기농산물을 운송 또는 보관하는 자는 인증제품과 관련된 문서를 관리해야 함
- 이는 유기농 제품과 비(非) 유기농 제품을 구분하기 위함임

- 유기농산물과 비 유기농산물을 함께 보관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며 유기농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동시에 보관이 가능함

○ 또한 식당에서 취급하는 유기농 식재료에 대해서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유기농’으로 판매하는 메뉴는 사용된 모든 식재료가 유기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함
- 식재료를 관리할 때에도 유기농 재료와 비 유기농 재료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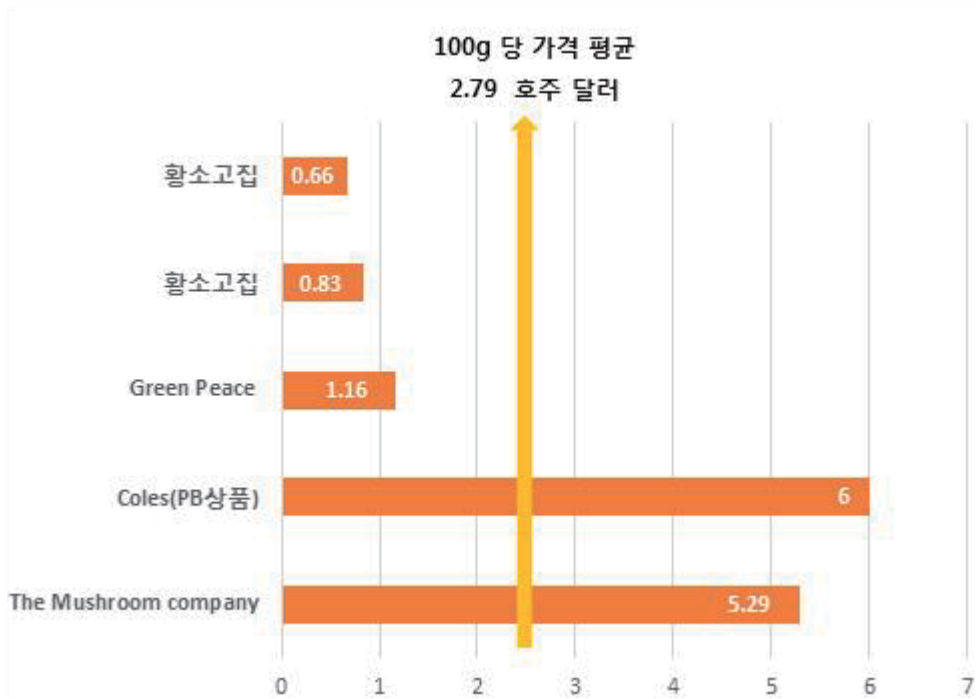
#### □ 소매가격동향

○ 호주 시장에서 팡이버섯의 평균 용량은 220g으로 나타났으며, 100g당 평균 가격은 2.79호주 달러로 분석됨

- 팡이버섯 제품에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 책정이 필요함

#### <그림> 팡이버섯 가격 비교





출처 : 자체해외시장조사

-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한국산 팡이버섯은 비닐 파우치로 포장되어 대체로 갓 부분이 잘 보이도록 하였으며 하단부에 색상을 부착하여 브랜드 및 제품명을 강조하고 있음. 반면 호주산 팡이버섯은 트레이 상자에 상부를 랩으로 동봉하여 판매되고 있음<sup>20)</sup>






#### <그림> 패키지 샘플



출처 : 자체해외시장조사

20) 호주 팡이버섯 해외시장보고서, aT, (2015)

○ 신선식품 및 식료품 전문 취급 소매상

품목	제품사진	브랜드 / 제품명/ 원산지	현지 판매사명	소매가격 (AUD)
새송이버섯		The Mushroom company / Fresh Australian King Oyster Mushroom 200g / 호주산	Harris Farm 	4.49 (22.45/kg)
만가닥버섯		The Mushroom company / Mushrooms Shimeji 150g / 호주산	Harris Farm 	4.49 (29.93/kg)
느타리버섯		Lemdell / Oyster Mushroom 150g / 호주산	Harris Farm 	4.49 (29.93/kg)
팽이버섯		The Mushroom company / Fresh Australian Enoki Mushroom 100g / 호주산	Harris Farm 	5.29 (5.29/kg)

출처 : Harris Farm 홈페이지

○ 대형마트

품목	제품사진	브랜드 / 제품명/ 원산지	현지 판매사명	소매가격 (AUD)
새송이버섯		The Mushroom company / Exotic King Brown Mushrooms Prepacked 100g / 호주산	Coles 	5.00 (50.00/kg)
만가닥버섯		Coles (Private Brand) / Australian Shimeji Mushrooms Prepacked 100g / 호주산	Coles 	5.00 (50.00/kg)
느타리버섯		Coles (Private Brand) / Australian Oyster Mushrooms Prepacked 150g / 호주산	Coles 	5.00 (33.34/kg)
		Woolworths (Private Brand) / Mushrooms Oyster 150g punnet / 호주산	Woolworths 	4.00 (26.67/kg)
팽이버섯		Coles (Private Brand) / Fresh Enoki Mushrooms Exotic 100g / 호주산	Coles 	6.00 (60.00/kg)

모듬 버섯		Country Fresh Mushrooms/ Mushroom Exotic Pasta Mix 150g / 호주산 * 새송이, 팡이, 만가닥 버섯 세트	Woolworths 	5.00 (33.33/kg)
-------	---	---	---	--------------------

출처 : Coles 및 Woolworths 홈페이지

○ 아시안 소매상

품목	제품사진	브랜드 / 제품명/ 원산지	현지 판매사명	소매가격 (AUD)
새송이 버섯	-	판매하지 않음	Miracle	-
만가닥 버섯		Mushroom Pty Ltd / Shimeji Mushrooms 150g / 호주산	Miracle	3.80 (25.33/kg)
느타리 버섯		Mushroom Pty Ltd / Oyster Mushroom 150g / 호주산	Miracle	3.15 (21.00/kg)
팡이 버섯		청도버섯 Green Peace Enoki Mushroom 300g / 한국산	Miracle	3.49 (11.63/kg)

출처 : 시드니무역관 자체 조사

○ 한인마트

품목	제품사진	브랜드 / 제품명/ 원산지	현지 판매사명	소매가격 (AUD)
새송이버섯		버섯고을 새송이버섯 400g / 한국산	에스마트	3.90 (9.75/kg)
		버섯고을 미니 새송이버섯 250g / 한국산	에스마트	3.90 (15.60/kg)
		버섯고을 미니 새송이버섯 250g / 한국산	이스트우드 마트	4.20 (16.8/kg)
만가닥 버섯		Korean Shimeji Mushroom 350g / 한국산	에스마트	4.60 (13.14/kg)
		Korean Shimeji Mushroom 350g / 한국산	이스트우드 마트	4.90 (14.00/kg)
느타리 버섯	-	에스마트, 이스트우드마트 모두 판매하지 않음	-	-

팽이버섯		황소고집 Enoki Mushroom 300g / 한국산	2.49 (8.30/kg)
		황소고집 Enoki Mushroom 300g / 한국산	1.99 (6.63/kg)

출처 : 시드니무역관 자체 조사

#### □ 라벨링<sup>21)</sup>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의 12가지 필수 항목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21) 코트라, 새롭게 바뀐 호주의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2018.01.26.



**<표> 호주 식품 라벨링 규정 상세 설명**

번호	항목	설명
1	명료한 표기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고 배경과 대비해 읽기 쉽도록 표시
2	제품 명칭	제품명, 호주 소재 식품 유통사의 주소, 식품의 주요 성분을 근거로 명시
3	주요 원료	제품에 포함된 원료는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나열함
4	영양성분	모든 영양성분은 1회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ml)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
5	주요 성분 함량	주요 성분의 함량을 반드시 퍼센트(%)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유사 식품과 비교 가능하게 함
6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정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10개 원료 (땅콩, 견과류, 우유, 계란, 깨, 밀, 생선, 갑각류, 콩, 루핀콩)가 포함됐을 경우 극히 소량이라도 꼭 명시해야함. 이 외에도 아황산염(Sulphites)이 kg당 10mg이상 들어가 있고 씨리얼 제품에 글루틴(밀, 오토, 보리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안내
7	유통기한	USE BY DATE : 표기된 날짜 전에 섭취 BEST BEFORE DATE : 표기된 날짜 이후에도 섭취 가능하나 날짜 내에 섭취 권유
8	식품 첨가제	첨가제명과 고유번호를 표기 고유번호는 호주 식품청(www.foodstandards.gov.au)에서 확인 가능
9	사용 및 저장방법	세균, 박테리아 등의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제품 보관방법 필수 표기
10	원산지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원산지 표기 규정에 따라 최종 생산된 국가나 생산과정 내 비중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
11	정확한 라벨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라벨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제조사는 확실한 용량을 라벨에 명시
12	영양 및 건강정보	영양정보는 식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에 대한 안내로 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표기

출처:코트라,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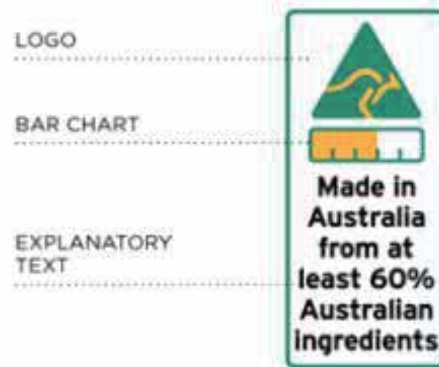
- 최근 식품 원산지 표시법이 개정되었는데 새로운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은 소비자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에 규정이 발표되었으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이후에 포장된 식품은 반드시 새로운 규정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는 소매점, 슈퍼마켓, 시장, 온라인,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포함되며 레스토랑, 카페, 포장 음식점, 학교, 케터링 업체, 병원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제외됨
- 개정 법안에 해당되는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에서도 우선 식품군 (Priority Foods)과 비우선 식품군(Non-Priority Foods)으로 분류하여 라벨 표기사항을 규정함

<b>우선 식품군 (Priority Food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식품군</li> <li>▪ 현지 식품은 반드시 캥거루 로고, 바 차트, 설명이 표시 박스 안에 기재되어야 함</li> <li>▪ 수입된 식품은 'Grown in Korea' 또는 'Product of Korea'와 같은 설명을 라벨 박스에 표시해야 함</li> </ul>
<b>비우선 식품군 (Non-Priority Food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식품군</li> <li>▪ 호주·수입 식품 모두 박스 또는 로고 없이 설명만 적으면 됨</li> <li>▪ 비우선 식품군에 속하는 제품으로는 소금·허브와 같은 시즈닝류, 비스킷, 스낵류, 생수,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차, 커피, 주류 등이 포함됨</li> </ul>

- 우선 식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라벨에 로고(Logo), 바 차트(Bar Chart), 설명문(Explanatory Text) 3가지 주요 요소가 네모 박스에 표시되어야 함
  - 로고 (Logo) : 호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되거나 제조됐음을 알림
  - 바 차트(Bar Chart) : 호주산 성분의 비율을 알림
  - 설명문(Explanatory Text) : 식품이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됐는지 여부를 적고 호주산 성분의 비율을 퍼센트로 알림



### <그림> 새로운 원산지 표시 라벨



- 호주에서 전체 또는 일부 성분이 재배, 생산, 제조된 식품의 경우에만 상징적인 동물인 캥거루 로고 표시 가능함
  - 모든 성분이 호주에서 재배(Grown)되거나 생산(Product)된 경우 캥거루 로고, 노란색으로 채워진 바 차트와 함께 ‘Grown in Australia’ 또는 ‘Product of Australia’ 로 라벨링함
  - 로고 아래의 바 차트에 호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된 성분의 비율이 노란색으로 숫자와 함께 설명됨
  - 캥거루 로고 없이 바 차트만 표시하는 라벨은 호주에서 제조(Made)됐다고 볼 수 없고 포장(Packed)만 했거나, 해외에서 호주로 수입됐으나 호주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임
- 호주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10가지 식품 성분이 주원료, 첨가제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에서는 2017년 5월 27일부터 1개 성분을 더 추가해 총 10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땅콩(peanuts), 견과류(tree nuts), 우유(milk), 계란(eggs), 깨(sesame seeds), 밀

(wheat), 생선(fish), 갑각류(shellfish), 콩(soy), 루핀콩(lupin)이 해당됨

- 패키지로 포장돼 있지 않거나 라벨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음식점, 배달 식품 등)에는 구매자가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수확·보존·가공 단계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ay contain traces of’ 이라는 코멘트를 자발적으로 기입해야 함

○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라벨에 대한 기준도 올라감에 따라 식품 관련 국내 기업에서는 호주 수출 시 식품 원산지 표시 및 라벨링 규정을 지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권장인증 : HACCP 인증

인증설명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을 확보함을 증명
발행기관	FSANZ
성격	선택 인증
비용	약 5,000~10,000 호주 달러가 소요됨
인증마크	

○ 권장인증 :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인증

<b>인증설명</b>	생산 과정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음을 보증함
<b>발행기관</b>	BFA(Biological Farmers of Australia) 소속 비영리 인증기관
<b>성격</b>	선택 인증
<b>유효기간</b>	정기적, 비정기적 실시되는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영구적으로 유효 가능
<b>제출 서류</b>	신청서, 유기농경영계획서, 법정진술서
<b>인증마크</b>	

□ 통관절차

○ 일반 식품 통관 절차는 아래 5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수입허가조건 확인을 제외한 수입신고, 세관검사, 검역심사, 관세납부 등은 호주(현지) 수입상 및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관세 납부까지 마친 제품은 화물 반출을 통해 수입 유통업체가 수령함

○ HS CODE 0709.59 품목에 대한 호주의 對韓 수입 관세 한-호 FTA 체결로 무관세임

**<표> 호주의 통관절차**

수출절차	유의사항
① 수입허가조건 확인	- 검역 및 라벨링 규정 준수 - 신선식품의 경우 수입허가증의 필요 유무에 대한 확인
② 수입 신고(전자 또는 서면) 호주 지역세관 신고	- 통관화물관리시스템 ICS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시행 (호주 전자세관 시스템 신고 <a href="http://www.border.gov.au">www.border.gov.au</a> ) - 선하증권 원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구비 필요
③ 세관 검사 호주 관세청 주관	- 수입 신고의 내용에 따라 녹색신고, 황색신고, 적색신고로 분류되어 처리
④ 검역 심사 호주 검역청 주관	- 모든 수입 식품은 위험 식품, 감시 식품, 규정 합의 식품으로 분류되어 검역 심사가 진행 - 검역심사 후 부적합 판정시 폐기 및 반송 처리될 수 있음
⑤ 관세 납부 호주 관세청 주관	- 수입 신고 된 제품의 관세 및 제세 납부 이후 물품 반출이 가능

출처 : 한국 국세청, 호주 관세청,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 통관거부 사례 및 주의사항<sup>22)</sup>**

○ 호주는 수입 식물생산물에 관한 검역방법을 강화함. 기존에 사용해오던 메틸브로마이트 훈증법으로는 수입 식물생산물의 모든 부분을 검역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2017년 5월 25일부터 보다 강화된 메틸브로마이트 훈증법을 사용함

- 포장을 단단하게 한 상품은 검역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신선식품인 식물생산물은 검역시간이 길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통관 검역시간 단축을 위해 느슨한 포장, 상품 사이의 충분한 공간 확보 등 검역에 용이한 포장방법을 고려해야 함

○ 호주 농업수산자원부가 부패하기 쉬운 수입산 식물 제품(과일 및 채소)에 대

<sup>22)</sup>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년 기타국가 농식품 통관검역 동향분석, 2018.02

해 검사방법 수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제품의 운송, 보관 등 제반과정에서  
의 관리 환경을 유의해야 함

- 현재 식품안보는 단순히 유해 식품뿐만이 아닌 생산, 가공, 운송, 보관 및 위  
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 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각 단계에서 적  
절한 온도 유지여부 및 위생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으로 제품 자체의  
신뢰도 제고를 꾀해야 함

- 2017년 호주에서 통관거부로 확인된 한국식품은 총 6건이며 모두 기타 장류  
상품으로 확인됨. 해당 제품의 통관거부 세부사유는 라벨링 부적합으로 알레  
르기 유발 식품으로 분류된 땅콩 표기가 누락됨

#### □ 유기농 버섯 시장 현황

- 최근 호주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  
기농 버섯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유기농으로 생산된 버섯은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나며 생산 과정도 매우 친환경  
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됨
-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최근 가정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유기농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가정용 원예 용품이 판매되기도 함

<그림>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버섯 키트



### 3) 수출 확대 전략

#### ② 3C분석

01	<b>Custome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로 이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에스닉 푸드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음</li> <li>- 저칼로리, 저염, 유기농 등 건강을 중시하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li> <li>- 호주 소비자의 경우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번 선택한 제품을 꾸준히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li> </ul>
02	<b>Competitors</b> : 중국,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에서 대부분 양송이버섯이 재배되며 느타리버섯 등 기타류 버섯에 해당하는 품종도 생산되나 전체 생산량의 약 1%도 채 되지 않음</li> <li>- 호주의 버섯 생산 비용은 높은 편임</li> <li>-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다음으로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 수출 2위 국가이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li> </ul>
03	<b>Company</b> :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호주로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임</li> <li>- 호주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기타 버섯류 수입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약 1.8배 성장함</li> <li>- 한국산 버섯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많은 호주 소비자들의 한국산 버섯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임</li> </ul>

#### ③ SWOT 분석 최적전략

강점 (Strength)	기회(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강해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로움</li> <li>- 높은 수준의 충성도를 가진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호주 FTA발효로 관세 철폐</li> <li>- 주변 국가에 비해 낮은 버섯 소비량</li> <li>-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신선 버섯 소비량 증가</li> <li>- 채식주의 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호주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li> </ul>
약점(Weakness)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 운송 기간으로 인한 현지산과의 품질 경쟁에서 약함</li> <li>- 고품질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소비자들의 현지 생산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li> <li>- 기타 버섯류의 낮은 인지도 및 소비</li> </ul>

#### ④ Marketing Mix 전략

<b>SO전략</b> (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의 안전성을 강조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한국산 신선 버섯의 수요 확대 전략</li> <li>- 호주산 버섯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의 좋은 품질의 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략 필요</li> </ul>
<b>WO전략</b> (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 제품 등 고품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유기농 인증 취득을 통한 차별화 전략</li> <li>- 1인 가구 증가 및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전처리 제품 또는 버섯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li> </ul>
<b>ST전략</b> (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비 절감 기술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li> <li>-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포장 디자인 개선 및 한국산 버섯의 우수한 품질을 강조한 라벨링 등을 통한 소비자 확보 전략 요구</li> </ul>
<b>WT전략</b> (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유통업체 및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한국 브랜드 버섯의 공급 확대 필요</li> </ul>



---

## □ 전략

- 한국 버섯의 맛과 품질에 대한 우수한 평가는 앞으로도 한국 버섯이 호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하지만, 여전히 호주 소비자들에게 한국 버섯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비아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버섯 구매율도 낮음
  - 그 이유로는 호주는 버섯을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내산을 많이 소비하며, 호주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 양송이버섯이 가장 전형적인 버섯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 느타리버섯은 새송이버섯과 함께 한국산 버섯을 대표하는 버섯으로 인지도가 높아짐. 특히, 피자, 리조또, 스트로가노프 등 기존의 서양식 요리에 첨가해서 새롭게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호주까지의 장거리 운송으로 새송이버섯보다 쉽게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개발이 요구됨
- 새송이버섯은 중국산에 비해 무농약, 안정성 등으로 한국산 버섯의 인지도가 높은 편임



<p><b>Customer Value</b></p>	<p>고품질 상품의 지속적 공급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li> <li>- 단,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버섯은 양송이버섯이기 때문에 새송이버섯이나 팽이버섯의 건강성 이점을 부각시켜 소비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li> </ul>
<p><b>Cost</b></p>	<p>품질 유지를 통한 프리미엄 버섯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소비되는 양송이버섯보다 가격대가 높기 책정되어 있다.</li> <li>- 가격이 싼 중국산 버섯과의 경쟁을 위해 적정 가격대의 고품질 상품판매가 필요하다.</li> </ul>
<p><b>Convenience</b></p>	<p>대형 유통업체에 호주에서 재포장된 상품이 아닌 한국 브랜드의 진출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산 버섯</li> <li>-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호주업체가 재포장한 버섯이 판매되고 있음</li> <li>- 대형 유통업체 및 다양한 유통경로로 한국 브랜드 버섯의 공급이 필요함</li> </ul>
<p><b>Communication</b></p>	<p>소비자의 만족도, 재 추천의향이 높은 한국산버섯. 중국버섯과의 격차를 벌려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버섯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호주의 기타 버섯시장</li> <li>- 품질이 좋아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주변인 추천 의향이 높아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음</li> <li>- 중국산 버섯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품질로 극복하여 시장 지배력을 높임과 동시에 호주인들에게 양송이버섯 이외의 버섯 소비를 촉진 시켜야 할 것임</li> </ul>

## □ 만가닥 버섯 수출 관련 특이사항

- 최근 다양한 품종의 버섯이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새송이버섯, 팽이버섯과 함께 만가닥버섯도 수출 대열에 합류함. 하지만 최근 호주에서 만가닥버섯의 통관에 문제가 생기며 수출이 중단됨
  - 만가닥버섯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등록된 육종으로 현재 수출되는 만가닥버섯의 정식 학명은 농진청(자원개발실)에 등록된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이지만 일부 수출 농가에서 ‘만가닥버섯(*Lyophyllum ulmarium*)’ 으로 잘못 표기하는 일이 있었음
  - 2017년 이후 몇몇 수출농가(업체)에서 소량씩(패키지) 느티만가닥버섯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그 뒤로부터 호주국의 식품검역 통관이 막혀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통관이 지난하여 수출이 어려운 실정임
-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의 호주 통관 불가 이유는 호주 검역당국에서 허가한 ‘수입으로 허용되는 버섯의 범주(품종)’ 에 해당품종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 통관이 거부됨
  - 따라서, 향후 만가닥버섯의 호주 수출 통관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느티만가닥버섯이 호주 검역당국의 ‘수입으로 허용되는 버섯의 범주(품종)’ 에 추가로 등록 되도록 한국-호주 양국 검역 당국간의 논의 진행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수출식물의 검역 신청서 상 학명은 선택 기재사항인 관계로 국내 수출업체에서 그 동안 수출신고면장 품명 표기를 만가닥버섯(*Lyophyllum ulmarium*) 또는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으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 호주에 수출 시,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으로 학명을 통일 표기함으로써 기재 오류도 바로 잡아야 함
- 앞으로 한국산 느티만가닥버섯이 호주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호주 측의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 진행이 필요한 상황임. 병해충위험분석은 한국과 호주간 상호주의에 의해 현재 진행중에 있음

<참고1> 호주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신선버섯 품종

## Import Scenario Definition

### 1. Fresh mushrooms — Non-permitted species



Species of mushroom that are not permitted for import into Australian territory include:

*Agaricus tessulatus*, *Agaricus ulmarius*, *Armillaria meelea*, *Coprinus* spp., *Ganoderma* spp., *Hypholoma* spp., *Inonotus obliquus*, *Pholiota* spp. (excluding *Pholiota nameko*), *Wolfporia extensa* and *Hericium erinaceum*.

#### 1.1. Import Requirements

- a.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facilitates the import of goods into Australia by applying import conditions that are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See Attachments](#)) has not developed import conditions for this specific commodity and situation and as such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cannot facilitate your import.
- b. The goods must be exported or disposed of.

<참고2> 부록; 과학적 명칭 목록

**Appendix 1: Scientific Names**

This appendix provides a list of Scientific Names that are covered by, or excluded from, this case.

**Included Scientific Names**

<i>Agaricus</i> spp.	<i>Agrocybe aegerita</i>	<i>Agrocybe cylindracea</i>
<i>Armillaria mellea</i>	<i>Auricularia</i> spp.	<i>Boletus</i> spp.
<i>Boletus edulis</i>	<i>Boletus frondosus</i>	<i>Cantharellus cibarius</i>
<i>Clitocybe maxima</i>	<i>Coprinus</i> spp.	<i>Cordyceps</i> spp.
<i>Craterellus cornucopioides</i>	<i>Dictyophora duplicata</i>	<i>Dictyophora indusiata</i>
<i>Flammulina</i> spp.	<i>Fomes fomentarius</i>	<i>Ganoderma lucidum</i>
<i>Grifola frondosa</i>	<i>Hericium erinaceus</i>	<i>Hydnum repandum</i>
<i>Hymenophallus togatus</i>	<i>Hypholoma</i> spp.	<i>Hypsizygus tessulatus</i>
<i>Hypsizygus ulmarius</i>	<i>Inonotus obliquus</i>	<i>Ithyphallus impudicus</i>
<i>Lactarius deliciosus</i>	<i>Lentinula edodes</i>	<i>Lentinus</i> spp.
<i>Leucangium</i> spp.	<i>Lyophyllum</i> spp.	<i>Marasmius oreades</i>
<i>Morchella</i> spp.	<i>Ophiocordyceps sinensis</i>	<i>Phallus foetidus</i>
<i>Phallus impudicus</i> f. <i>adiscus</i>	<i>Phallus impudicus</i> f. <i>alveolata</i>	<i>Phallus impudicus</i> f. <i>flavida</i>
<i>Phallus impudicus</i> f. <i>impudicus</i>	<i>Phallus impudicus</i> f. <i>reticulata</i>	<i>Phallus impudicus</i> f. <i>subindusiatus</i>
<i>Phallus impudicus</i> f. <i>togatus</i>	<i>Phallus impudicus</i> var. <i>americanus</i>	<i>Phallus impudicus</i> var. <i>carneolus</i>
<i>Phallus impudicus</i> var. <i>imperialis</i>	<i>Phallus impudicus</i> var. <i>impudicus</i>	<i>Phallus impudicus</i> var. <i>indusiatus</i>
<i>Phallus impudicus</i> var. <i>obliteratus</i>	<i>Phallus impudicus</i> var. <i>pseudoduplicatus</i>	<i>Phallus impudicus</i> var. <i>togatus</i>
<i>Phallus indusiatus</i>	<i>Phellinus</i> spp.	<i>Pholiota nameko</i>
<i>Pleurotus</i> spp.	<i>Polyporus umbellatus</i>	<i>Poria cocos</i>
<i>Suillus luteus</i>	<i>Taiwanofungus camphoratus</i>	<i>Trametes versicolour</i>
<i>Tremella fuciformis</i>	<i>Tricholoma bakamatsutake</i>	<i>Tricholoma caligatum</i>
<i>Tricholoma magnivelare</i>	<i>Tricholoma matsutake</i>	<i>Tricholoma nauseosum</i>
<i>Tricholoma terreum</i>	<i>Tuber</i> spp.	<i>Volvariella volvacea</i> (syn: <i>Agaricus volvacea</i> )
<i>Wolfiporia extensa</i>	<i>Xerocomus badius</i>	



### III 해외시장동향 04 : 네덜란드



국명	네덜란드(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수도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공식수도, 행정·사법·입법부는 헤이그(Den Haag)에 위치
인구	1,721만 4,000명(2018년 7월)
면적	41,526km <sup>2</sup> (한반도의 약 20%)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
주요 도시	암스테르담(85만 4,000명), 로테르담(63만 8,000명), 헤이그(53만 3,000명) 등
민족 구성	네덜란드인 78.9%, 비서구계 11.7%, 서구계 9.4%
언어	네덜란드어(영어 통용)
종교	카톨릭(32%), 신교(25%), 기타(5%), 무교(38%)
화폐 단위	유로
GDP	7,312억 유로(2018년 2분기)
산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70% 이상을 점유</li> <li>▪ 주요 육성산업 분야 : 농업과 식품산업, 크리에이티브 산업, 화학, 에너지, 하이테크, 원예, 생명공학, 물류, 수자원 산업</li> <li>▪ 중소기업(종업원 250명 이하)이 9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li> </ul>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CIA The World Factbook(www.cia.gov)

## 1) 국가개요

### ① 국가개황

○ 지식과 혁신의 나라 네덜란드는 약 34km<sup>2</sup>의 땅 세계 136번째, 인구 1,700만 명 세계에서 60번째로 작은 나라. 네덜란드 경제의 상당 부분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수출, 수입에 기반을 두고 있음.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국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며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탓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유명함

- 네덜란드 왕국은 구주 본토(The Netherlands)와 구주 본토에 편입된 3개 도시(Bonaire, St.Eustatius 및 Saba), 3개 자치령(Curacao, St.Marrten,Ariba)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의 행정구역은 12개의 주(provincie)로 이루어짐

<그림> 네덜란드의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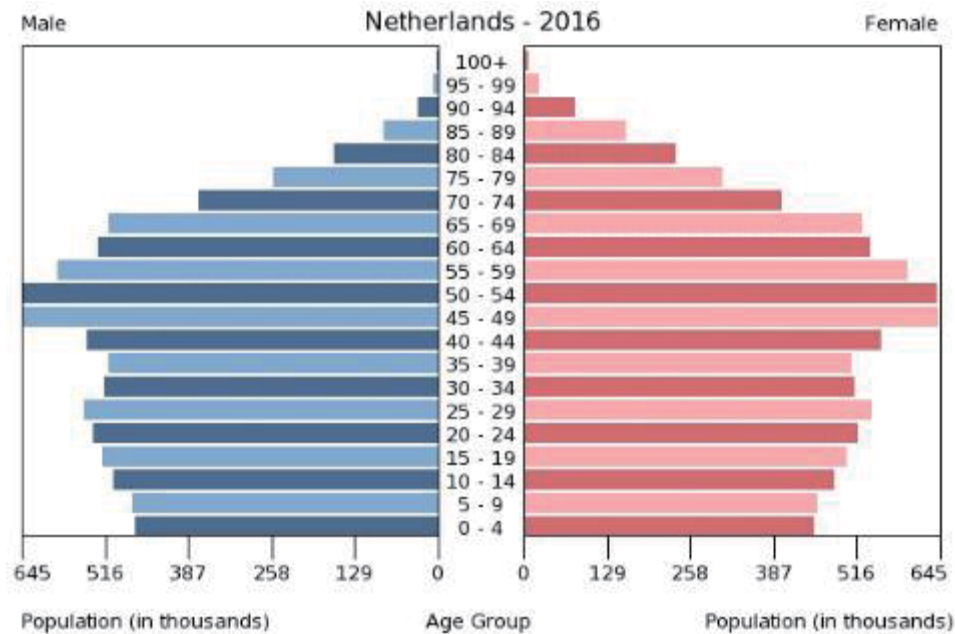
출처 : 위키백과

○ 네덜란드의 인종 및 민족 구성은 2017년 기준 네덜란드계 게르만 백인이 77.39%, 그 외 유럽계 백인이 9.88%, 그 외 터키계 및 모로코계를 포함한 인종이 12.73%를 차지함. 언어는 네덜란드어가 공용어지만 유럽의 다인종 국가 중 하나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도 주요 외국어로 사용됨



- 네덜란드의 인구는 2016년 1,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인구의 약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음. 평균 인구 밀도는 487명/km<sup>2</sup>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네덜란드 인구는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900,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인구 성장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연령층의 증가로 예측됨
- 2017년 상반기 네덜란드 인구는 약 35,000명 증가했으며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그 중 31,000명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증가였음.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아시아인이었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칼트해 연안국과 같은 동유럽 국가들 출신임
- 이렇게 이민자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네덜란드의 인구 구성도 다양화되고 있음. 1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19%(310만 명)가 네덜란드 출신이 아니었다면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22%(370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네덜란드 출신이 아니었음

<그림> 네덜란드 인구 구성



출처 : The World Factbook 2018, CIA

② 경제



○ 네덜란드 경제는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마이너스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4년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함. 이후 주요 교역국의 경기 호조와 유로화 약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 국내외 수요 확대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 및 가계소비 증가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유통, 도소매, 금융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6년 GDP기준 서비스업은 70.2%,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은 17.9%, 농업은 1.6%를 차지하였고, 고용에서는 서비스업이 81.6%, 제조업이 17.2%, 농업이 1.2%의 비중을 차지함

○ 네덜란드 정부는 고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장기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9개 분야를 선도산업(Top Sector)로 지정해 지중 지원하고 있음

- 9개 선도산업은 농식품(Agro-food), 원예, 첨단기술, 에너지, 물류,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생명과학, 화학, 물 산업임

<표>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0.2	1.0	2.0	2.2	3.2
GDP(백만 USD)	866,680	879,635	757,999	777,228	826,200
1인당 GDP(USD)	51,574.49	52,157.41	44,746.33	45,637.89	48,223.16
물가상승률(%p)	2.56	0.32	0.22	0.11	1.30
이자율(%)	-	1.96	1.45	0.69	0.522
실업률(%)	7.26	7.43	6.89	6.02	-
환율(EUR/1USD)	-	1.3281	1.3285	1.1095	1.1297

출처:세계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③ 무역

- 네덜란드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입해 재수출하는 가공·중계무역이 발달함
- 특히 유럽 해상무역의 출입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로테르담항을 통해 전세계에서 수입되는 각종 원자재와 식량이 들어오며 이렇게 들어온 제품들은 유럽 전역으로 수송됨. 반대로 유럽에서 모여든 제품들이 로테르담항을 통해 수출되기도 함

**<표> 무역수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백만 USD)	711,063	727,021	632,310	640,815	714,352
수입액(백만 USD)	618,272	631,636	552,256	555,322	618,548
무역수지(백만 USD)	92,791.41	95,384.31	80,054.68	85,493.71	95,803.63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④ 물류

- 한국 네덜란드 구간 해상 운송 소요시간은 항해 루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 한국-안트워펜, 로테르담 직행 루트의 경우 27-30일 정도 소요되며, 한국-함부르크 직행 루트는 26-29일 정도 소요됨
- 그 외 다른 유럽국가 항구로의 컨테이너 운송은 안트워펜, 로테르담, 함부르크에 도착한 컨테이너선의 제품을 바지(Barge)선으로 옮겨서 유럽의 각각의 항구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음
- 네덜란드는 배송품질, 가격, 통관의 용이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세계물류성과지수(World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2016년에는 4위, 2018년에는 6위를 차지함
- 로테르담항은 유럽 1위, 세계 10위의 국제적인 항구로 2015년 한해 4억 4,600만 톤의 물량을 소화함.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로테르담항을 통해 들어오며, 암스테르담항 물량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옴

- 네덜란드의 도로를 통해 이송된 물품의 절반은 가축, 농수산물 그리고 건설자재와 같은 품목들로 2016년 네덜란드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이송률은 2015년 대비 5% 상승함

<그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순위



출처 : Facts & Figures, Port of Rotterdam, 2018

### ⑤ 식품산업동향

-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에 의하면, 2018년 총 903억 유로의 농산물이 수출되어 전년 대비 0.2%(901억 유로) 증가하였고,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농업 수출국이라고 밝힘
  - 그 중 독일과 벨기에에 각각 228억 유로, 102억 유로가 수출되어 전체 농산물 수출액 중 36%를 차지함. 그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수출됨
- 노년층의 증가와 이민자 유입 증가로 인한 인구 구성의 다양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식품 산업 업계에도 건강·기능성 식품, 편리하게 조리가 가능한 제품, 다양한 문화의 음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등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음
  - 노년층 인구의 경우 식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건강과 관련한 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간편 식품과 같이 쉽게 조리가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등 구

체적인 수요가 존재함

- 최근 네덜란드의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고급진 유기농 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호하며 되도록 가공이 덜 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2) 버섯 시장 동향

### □ 네덜란드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네덜란드가 속해있는 유럽 연합의 버섯에 대한 HS CODE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러나 국가별로 HS CODE가 일곱 번째 자리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 통계는 같은 품목의 상위 범주인 HS CODE 0709.59(Fresh or chilled edible mushrooms and truffles (excluding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으로 조사함

<표> 네덜란드 내 버섯 HS Code 분류

HS CODE	품명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b>0709.59</b>	<b>기타</b>
0709.59.10	살구버섯
0709.59.30	플랩버섯
0709.59.50	송로
0709.59.90	기타

출처:관세법령정보포털(www.customs.go.kr)

- 네덜란드는 세계 3위, 수출 2위의 버섯 생산국이며 버섯 산업은 네덜란드 원예산업 전체 수익의 3%를 차지함<sup>23)</sup>. 네덜란드 버섯 회사는 생산규모를 키우는 추세로 2000년에는 500개사에서 2016년에는 120여 사로 축소되고 있음. 버섯 재배 규모가 2000㎡ 이상인 기업은 70여개 사임.
- 버섯시장은 신선버섯과 통조림 버섯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이 신선버섯을 선호하면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통조림을 선호함. 외국

23) 네덜란드 버섯 시장동향, KOTRA, 2015

버섯(양송이를 제외하고 중국, 한국 등에서 주로 재배되는 버섯을 통칭)에 대한 인기 증가세임

## □ 시장전망

-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신선버섯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버섯은 매우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류의 대체재로도 인식되고 있음. 아시아에서는 버섯이 음식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럽에서는 송이버섯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한 편임
  - 그러나 많은 네덜란드인을 포함한 유럽인의 외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 버섯 무역업자는 양송이버섯을 제외한 대부분의 버섯을 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Oke Trading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버섯 재배 회사는 소비량이 미미한 외국 버섯 재배를 아직은 꺼리고 있음
  - 이는 네덜란드에서의 재배 비용이 9유로인 반면 수입 비용은 4유로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임. 재배량이나 수요 모두 적기 때문에 네덜란드 버섯 회사가 대량으로 재배하지 않음.
- 네덜란드인은 수입버섯의 가격에 익숙해져 있고, 중국의 수입 쿼터 제한이 풀릴 경우 네덜란드 버섯 무역업자의 가격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외국 버섯은 계속 수입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네덜란드가 확실하게 품질과 공급량을 보장할 중국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한국업체의 수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 가능케 함<sup>24)</sup>
- 현재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외국 버섯은 새송이 버섯(Eryngii), 팽이버섯(Enoki take), 갈색 만가닥 버섯(Brown Shimeji), 흰색 만가닥 버섯(White Shimeji), 큰 느타리 버섯(King Oyster Mushroom), 느타리 버섯(Oyster Mushroom), 표고버섯(Shii-take), 나도 팽나무버섯(Nameko), 하타케 만가닥 버섯(Hatakeshimeji), 황금팽이버섯(Golden Enoki) 등임.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네덜란드의 대규모 버섯 회사는 다음과 같음.

24) 네덜란드 버섯 시장동향, KOTRA, 2015

- Banken Champignons, Fresh Mushroom Europe N.V., The Greenery, Westland Mushrooms CNC Exotic Mushrooms, Scelta Mushrooms, Verbruggen Paddestoelen, Haveman Green, Paul Verhoeckx groothandel

□ 생산자중심 버섯 조직구조

-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 내 버섯의 수요는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됨. 버섯 생산량과 아시아 버섯에 대한 수입은 많으나, 이는 대부분 생산 및 수입된 버섯을 주변 유럽국가로 재수출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됨<sup>25)</sup>
- 네덜란드는 퇴비제조와 버섯생육과정이 이원화 및 분업화 되어있으며 자동화 시설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짐
  - 배지 제조과정은 CNC(Cooperation Netherlands Champignon) 등 2~3개의 대규모 전문 배지(양송이 배지) 제조 공장에서 제조하여 생육시설만 갖추고 있는 개별 농가에 분양하여 재배됨
  - 배지제조, 입상, 생육관리, 수확, 폐상 등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음

<그림> 네덜란드 버섯 생산자중심 조직구조



- 버섯을 비롯한 채소 과일의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Greenery(그리너리)는 선도 협동조합형 기업으로 최대 규모의 청과물 생산·마케팅 조직임
  - 지난 1995년부터 구조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 오늘날 유럽 최대 규모의 생산-유통-무역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식품안전, 지속성, 혁신 그리고 운반효율 등 모든 활동 면에서 크게 앞서 있음

25) 네덜란드 내 버섯식품 시장현황', EC21(www.ec21.co.kr)

- 그리너리 조직구조의 핵심은 채소경매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내부에 있던 판매조직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한 것으로, 조합원의 무임승차와 기회주의적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The Greenery International B.V.는 생산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했고 생산자들은 2개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시장지향적 조합회사인 The Greenery International B.V.는 조합원 이외의 상품도 취급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실제로 매출액의 약 60% 정도만이 조합원들이 생산한 물량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과 판매를 수행함

### <그림> Greenery의 역할



#### ① 생산동향

- 농업 통계 사이트 FAOSTAT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네덜란드 버섯 및 송로 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10,000톤 감소된 300,000톤으로 집계됨. 2007년 (240,000톤) 대비 2016년(300,000톤) 생산량은 25%증가하였음
-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량의 약 20%만이 국내에서 유통되며, 생산량의 약 80%는 주변 유럽 국가들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네덜란드 버섯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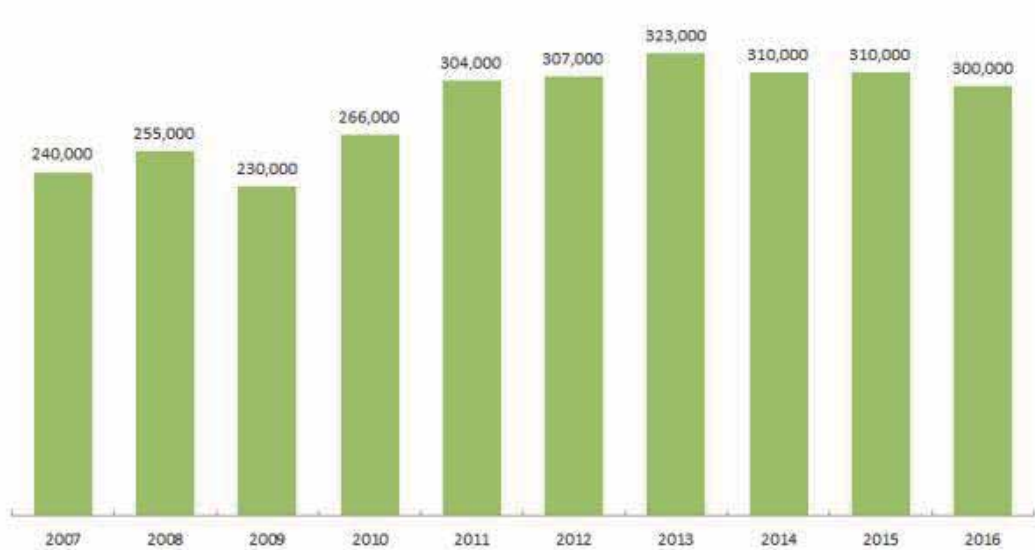
(단위: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40,000	255,000	230,000	266,000	304,000	307,000	323,000	310,000	310,000	300,000

출처: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네덜란드는 열악한 본토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일찍부터 세계적 시설농업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한 네덜란드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과 AI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있음<sup>26)</sup>
- 그 결과 버섯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27%가 증가했으며, 다른 나라가 3.3㎡당 연간 80kg 버섯을 생산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10배 많은 800kg을 생산하는 수준에 이룸

<그림> 네덜란드 버섯 생산 동향



출처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하지만 2014년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05년에 비해 버섯 생산 업체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옴. 2012년에 12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26) AI로 무장한 로테르담항... “세계서 가장 똑똑한 물류허브”, MK News, 2018.12.30.



재배 면적도 계속 감소중임. 또한, 생산 가격(kg 당 유로)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본 동향보고서의 주요 조사 대상인 4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버섯이 네덜란드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는 조사가 불가능했음. 하지만 느타리버섯의 경우 일부 생산되고 있으며 팽이버섯은 네덜란드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 ② 수·출입동향

### □ 글로벌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글로벌 시장 내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수입 규모는 2017년 기준 수입량 5,585톤, 수입액 25,628천 달러로 2017년 수입액 기준 8위를 차지함
  - 네덜란드는 글로벌 수입 비중에서 2017년 기준 수입량, 수입액 각각 2.71%(5,585톤), 3.38%(25,628천 달러)를 차지하였음. 2014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율은 세계평균 증가율이 6.7%인 반면, 네덜란드의 증가율은 19.4%에 이룸

<표> 글로벌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77,432	709,677	192,412	733,687	193,250	723,397	205,820	757,992
1	독일	17,413	89,479	21,069	94,043	23,872	100,418	23,091	95,902
2	프랑스	20,416	79,037	21,809	73,279	19,145	71,770	17,991	71,880
3	이탈리아	10,203	54,933	10,169	52,509	7,313	45,500	7,497	68,664
4	일본	4,289	71,464	3,578	59,121	3,213	60,912	3,108	64,669
5	미국	9,087	27,307	10,139	39,254	9,852	39,139	9,981	45,093
6	영국	18,648	52,581	21,369	54,890	21,613	52,862	19,966	44,404
7	태국	12,502	21,512	16,670	27,098	20,507	32,498	21,047	33,763
<b>8</b>	<b>네덜란드</b>	<b>3,837</b>	<b>21,460</b>	<b>4,113</b>	<b>19,901</b>	<b>4,860</b>	<b>21,721</b>	<b>5,585</b>	<b>25,628</b>
9	오스트리아	5,098	25,336	4,278	23,857	4,416	23,519	4,022	23,229
10	베트남	767	4,845	1,026	6,695	2,095	11,378	13,360	22,529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 수입동향

○ 수입관세는 한-EU FTA 적용으로 관세율은 0%임. Global Trade Atals의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기타 버섯(HS CODE 0709.59)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으로 조사됨. 2017년 기준, 한국은 네덜란드의 총 버섯 수입액 중 51.6%의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함

- 2017년 기준, 네덜란드의 전체 수입은 약 36.1백만 달러로 한국에서 18.6백만 달러를 수입함. 수입량의 경우 전체 6,320톤 중 2,517톤을 한국에서 수입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2,342톤을 수입함

- 기타 버섯은 새송이 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등이 주류를 이룸

<표> 네덜란드의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수입동향

(단위:톤,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4,352	21,125,646	5,271	24,416,373	6,320	36,071,511
<b>1</b>	<b>대한민국</b>	<b>2,180</b>	<b>9,153,118</b>	<b>2,335</b>	<b>9,738,704</b>	<b>2,517</b>	<b>18,608,189</b>
2	중국	1,249	3,935,565	1,608	4,846,762	2,342	6,432,876
3	벨기에	405	2,410,625	420	2,492,862	206	1,585,642
4	독일	33	208,588	196	1,277,359	181	1,231,588
5	미국	-	1,150,447	-	710,083	-	1,115,674

출처:Global Trade Atlas(GTA)

○ 수입 톤 당 가격은 2017년 기준 전체 평균이 5,707.28달러/톤이었는데, 한국의 경우 톤 당 7,993.30달러/톤로 전체 평균 톤 당 가격보다 1.3배,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입 2위 국가인 중국(2,746.37달러/톤)에 비해 2.7배 높은 가격에 수입됨

- 미국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로부터는 고가에 거래되는 송로 버섯과 같은 품목이 주로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 톤 당 가격이 높게 나타남

<표> 네덜란드의 수입 톤 당 가격

구분	톤 당 가격(US\$/t)		
	2015	2016	2017
세계	4,854	4,632.02	5,707.28
<b>대한민국</b>	<b>4,197.78</b>	<b>4,171.41</b>	<b>7,393.3</b>
중국	3,149.77	3,014.32	2,746.37
벨기에	5,956.31	5,932.46	7,682.71
독일	6,288.28	6,523.23	6,821.2
미국	21,512.53	20,036.77	22,4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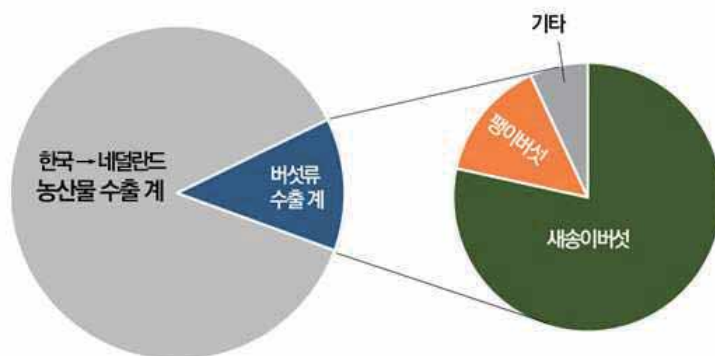
캐나다	17,457.96	18,474.93	16,081.65
코소보	8,560.47	3,302.07	2,569.81
이탈리아	27,910.56	55,786.74	29,782.97
벨라루스	5,637.4	5,907.95	6,580.9
세르비아	12,118.06	6,878.82	9,542.17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로 수출된 전체 농산물 수출액(86,678.9천 달러) 중 농산 버섯의 수출액(11,079.7천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8%로 조사됨

- 농산 버섯류의 네덜란드 전체 수출액 11,079.7천 달러 중 새송이버섯이 8,691.7천 달러로 78.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팽이버섯이 1,614천 달러로 14.6%가 수출됨

- 이를 통해 주로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을 수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우리나라 버섯의 네덜란드 수출 현황(2018)



구분 (단위:톤/천달러)	2018년	
	수출(중량)	수출(금액)
농산물(계)	50,942.7	86,678.9
버섯류(농산물)(계)	2,879.1	11,079.7
새송이버섯(계)	2,146.6	8,691.7
팽이버섯(계)	537.6	1,614.7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 네덜란드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버섯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 2018년의 경우, 네덜란드로 총 11,079.7천 달러의 농산 버섯이 수출됐으며 이는 2016년(7,786.2천 달러)에 비해 42.3%나 증가한 금액임
- 새송이버섯의 경우 2018년 총 8,691.7천 달러가 네덜란드로 수출됐으며 2016년(6,053.1천 달러)에 비해 43.6% 증가함
- 팽이버섯의 경우 2018년 총 1,614.7천 달러가 네덜란드로 수출됐으며 2016년(1,161.8천 달러)에 비해 39% 증가함

<그림> 우리나라 버섯류 수출 현황(네덜란드)



출처 : KATI

<표> 우리나라 버섯류 수출 현황(네덜란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농산물 계	43,690.3	80,357.8	44,176.1	85,380.5	50,942.7	86,678.9
농산 버섯류 계	2,291.1	7,786.2	2,442	8,818.5	2,879.1	11,079.7
새송이버섯	1,647.4	6,053.1	1,784.4	6,856.9	2,146.6	8,691.7
팽이버섯	504.4	1,161.8	515.4	1,343.5	537.6	1,614.7

출처 : KATI

- 본 동향보고서의 주요 조사 품목에 해당하는 버섯들의 경우 B2C채널보다 B2B채널에서의 거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네덜란드가 유럽 농산물 수출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임
- 자체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주요 수입 업체 중 Green Mushroom Farm사의 경우 매년 한국에서 200톤 이상의 팽이버섯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외에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약 640톤 정도의 버섯을 수입하고 있는데 새송이버섯의 경우 연간 5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갈색/흰 만가닥버섯은 약 140톤이 수입됨
- 네덜란드 내 최대 버섯 수입 업체인 MITRO FRESH는 한국에서 주로 새송이버섯(King Oyster mushroom)과 팽이버섯(Enoki mushroom)을 수입하지만 다른 20개 품목도 소량씩 수입함<sup>27)</sup>
  - 팽이버섯의 경우 주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입되며, 새송이버섯은 한 주에 두 번씩 수입이 됨
  - MITRO FRESH에서 수입한 한국산 버섯의 약 90% 정도가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10%는 아일랜드에서 소비되는데 가장 큰 시장은 독일임
  - 한국산 버섯을 유럽 국가 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8년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그 중 1년 동안은 한국산 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타국가의 제품과 비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도 있음
  - 통관이나 검역상 어려운 점은 없지만, 환율 변동성이 기업 매출에 가장 큰 불안요소로 작용함

27)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를 위한 출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09.09

<그림> 네덜란드 MITRO FRESH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산 농산물



출처 :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를 위한 출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지 조사 결과, 네덜란드로 들어오는 버섯은 주로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이 8:2 비율로 수입되고 있으며 항공 80%, 선박 20%로 들여오고 있음
  - 항공의 경우 항공운임이 고가이나 정부의 물류비 지원액과 대한항공 등 과의 정기 노선 지원, 정기적 항공물량 수출의 경우 항공운임 할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항공 운송료를 절감하고 있어 선박 운송보다 약간 비싸게 비용이 발생하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음
  -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기간이 1일 밖에 소요되지 않고, 선박의 경우 35일이 소요되어 항공운송이 신선도 유지에 매우 유리함
- 팽이버섯은 운송 및 보관 여건이 좋아 선박 운송의 경우에도 품위 유지가 간으함로 물류단가 인하를 위해 주로 선박으로 수출되고 있음. 반면, 새송이버섯의 경우 장기 선박 운송을 할 경우 품위 유지가 어려워 주로 항공 운송이 이루어짐

□ 수출동향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버섯류 주요 수출

국은 근접한 유럽 국가들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네덜란드로부터 HS CODE 0709.59에 해당하는 버섯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벨기에로 총 13,583천 달러, 3,687톤에 해당하는 양을 수입함. 그 뒤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으로 수출됨

<표> 네덜란드의 버섯(HS CODE 0709.59) 수출동향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출액 기준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세계	18,891	63,005	19,203	65,878	21,633	81,537
1	벨기에	3,477	12,414	3,758	13,273	3,687	13,583
2	프랑스	6,290	18,836	6,005	13,839	4,491	12,470
3	독일	2,737	8,937	2,561	9,302	3,762	11,870
4	영국	1,436	7,880	1,124	4,802	1,576	6,445
5	아랍 에미레이트	354	1,609	446	1,875	904	4,514

출처: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일반적으로 버섯의 수출은 네덜란드가 일반적인 버섯 품종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신선 버섯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짐
- 네덜란드는 신선 버섯 외에도 가공된 형태의 버섯 제품들을 많이 수출하는데 주로 통조림이나 냉동 형태로 이루어짐. 특히 통조림의 경우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이 있음



<표> 네덜란드의 대표 수출 버섯 가공 제품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0g, 0.65유로</li> <li>▪ Albert Heijn 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g, 2.99유로</li> <li>▪ 말린 버섯</li> <li>▪ Euroma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5ml, 1.33유로</li> <li>▪ 캔 통조림</li> <li>▪ Unox 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g, 3개입, 1.30유로</li> <li>▪ 인스턴트 버섯 스프</li> <li>▪ Unox 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g, 0.94유로</li> <li>▪ 캔 통조림</li> <li>▪ AH Basic 제품 (Albert Heijn의 저가 브랜드)</li> </ul>

### ③ 소비동향

○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버섯은 아가리쿠스에 속하는 버섯으로 양송이 버섯(white and brown mushroom)인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도매업체와 같은 식품 및 버섯 유통 채널의 주요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표고버섯 또한 넓게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버섯의 경우, 느타리버섯이 유일하게 일반적인 슈퍼마켓에서 구매 가능하였고, 팽이버섯의 경우 주요 식료품 체인이나 아시아 식료품 가게에서 구매 가능하였음. 만가닥버섯과 새송이버섯은 주로 아시아 식료품 가게에서만 판매되고 있음

○ 최근 양송이버섯의 수요는 정체된 반면, 아시아 버섯(팽이버섯,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버섯 도매업체에 따르면 현지 슈퍼마켓에서 아시아 버섯의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네덜란드 소비자도 외국 버섯에 익숙해졌다고 전함<sup>28)</sup>

- CNC Exotic Muhsrooms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의 외국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동 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새송이버섯(King Oyster Mushroom)과 맛버섯(Nameko)은 계속 인기가 있을 전

28) ‘네덜란드 내 버섯식품 시장현황’, EC21(www.ec21.co.kr)

망으로 2015년 기준, 5년간 20%이상 성장하였음

- Westland Mushrooms사도 양송이버섯의 수요는 정체된 반면 아시아 버섯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에서 팽이버섯,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식자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함

○ 네덜란드는 대략 10월이나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식료품점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식재료를 많이 들여놓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아시안 버섯을 슈퍼마켓에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음

○ 상품에 대한 인식은 중국산은 가격이 저렴하나 품질이 좋지 않아 중국계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주로 저가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일본산은 한국산 보다도 품질면에서나 브랜드나 포장등에서 매우 우수하여 선호하고 있으나 일본산의 경우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가 많고 수출단가가 중국이나 한국보다 높아 수출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음

-

팽이버섯과 시메지는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으며 시메지에 대해 경쟁력이 강함

- 만가닥은 네덜란드등 생산국이 만하으며 퀄리티가 높은 편으로 한국산의 경우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편임

#### ④ 유통동향

○ 대부분의 신선 과일과 채소들은 슈퍼마켓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며, 신선 과일은 77%, 신선 채소의 89%가 슈퍼마켓에서 판매됨. 이와 더불어 신선 과일과 채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그림> 네덜란드의 신선 과일 유통 채널별 점유율



출처: CBI.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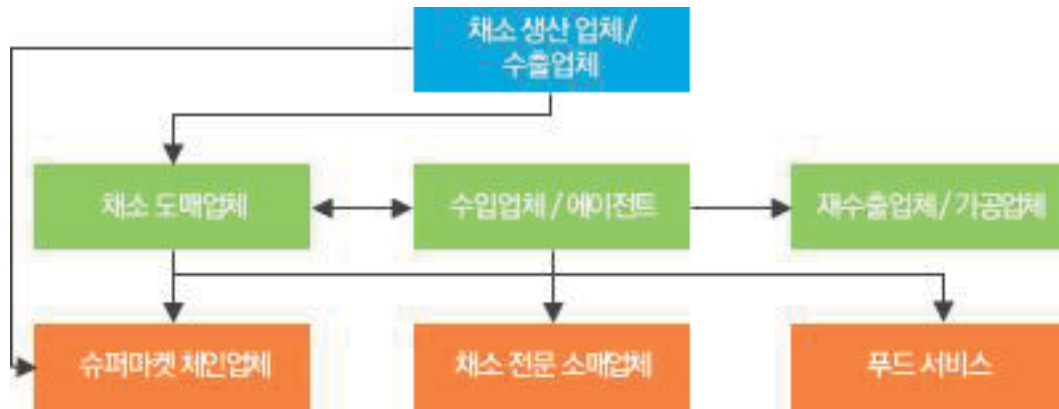
- 따라서, 네덜란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슈퍼마켓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양의 제품과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표> 네덜란드의 소매점 유형별 매장 수

매장 유형	매장 수
편의점	665
슈퍼마켓	3,443
슈퍼스토어	94
도매업체 및 백화점	95

- 네덜란드의 신선 야채의 유통 구조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3단계로 요약될 수 있어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입 야채의 경우 네덜란드산 야채보다 1단계가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네덜란드의 유통 채널



출처:KATI(kati.net)

○ 각 유통 업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에이전트 : 한국 수출업체와 연락을 유지하며 컨테이너를 채우는데 필요한 제품들을 모으는 한편, 네덜란드 도매업체들을 위한 물량을 확보함. 일부 에이전트들은 판매 가격에 대한 커미션을 요구하기도 하며 대체적으로 최대 10%임
- 수입업체 : 수입업체들은 한국 내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으며 통관 및 검역 등의 절차를 처리하고 일부 경우에는 소매업체들을 위한 최종 패키징까지 맡기도 함.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의 마진은 5~10%로 네덜란드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고 도매업체 또는 현지 유통업체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음
- 도매업체 : 도매업체들은 수입업체, 생산업체, 그리고 경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함. 이렇게 구입된 야채들은 야채 전문 소매점, 푸드 서비스업체와 슈퍼마켓으로 공급되는데 최근 직접 수입업체들로부터 야채를 공급받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및 대형 야채 전문 소매점들이 증가하면서 도매업체들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소매업체 : 소매업체들의 가격 지향 특성에 따라 공급량과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으며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음

<표> 네덜란드 소매업체 유형

가격수준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프리미엄
공급량(상대적)	대량	대량	소량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li> <li>- 공급의 신뢰성</li> <li>- 연중 공급가능 시간</li> <li>- 추적가능성</li> <li>- 제품의 균등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li> <li>- 특이성, 유기농, 공정 무역 제품 여부</li> <li>- 성숙도</li> <li>- 추적가능성</li> <li>- 제품 프로모션</li> <li>- 제품의 균등성</li> <li>- 공급의 신뢰성</li> <li>- 지속가능한 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li> <li>- 특이성, 유기농, 공정 무역 제품 여부</li> <li>- 성숙도</li> <li>- 독특한 맛</li> <li>- 추적 가능성</li> <li>- 공급의 신뢰성</li> <li>- 독특한 마케팅 컨셉</li> </ul>

출처 : 네덜란드 신선 표고버섯 시장조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네덜란드의 식품 유통시장은 상위 2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네덜란드의 유통시장 현황(2016)

회사	시장 점유율
Albert Heijn	35.3
Jumbo	18.4
Lidl	10.3
Aldi	7.0
Plus	6.2
기타	31.8


출처:USDA, The Dutch Food Retail Market, 2017

○ 온라인 판매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편하게

집에서 쇼핑할 수 있어 온라인 서비스를 선호함. 최근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인 Picnic이 서비스를 시작함

- 슈퍼마켓 업체들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항상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 네덜란드의 최대 유통사인 A-hold의 계열의 Albert Heijn이 35.3%, Jumbo가 18.4%로 전체 시장의 53.7%를 차지하고 있음
- 독일계 유통사인 Aldi와 Lidl도 각각 10.3%, 7.0%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고 있음

<표> 네덜란드의 주요 유통업체 리스트

	이름	Albert Heijn (알버트 하인)
	매장 수	1,008개
	홈페이지	www.ah.n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기준, 시장점유율 35.3%로 네덜란드의 식품 유통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li> </ul>		
	이름	Jumbo (움보)
	매장 수	585개
	홈페이지	www.jum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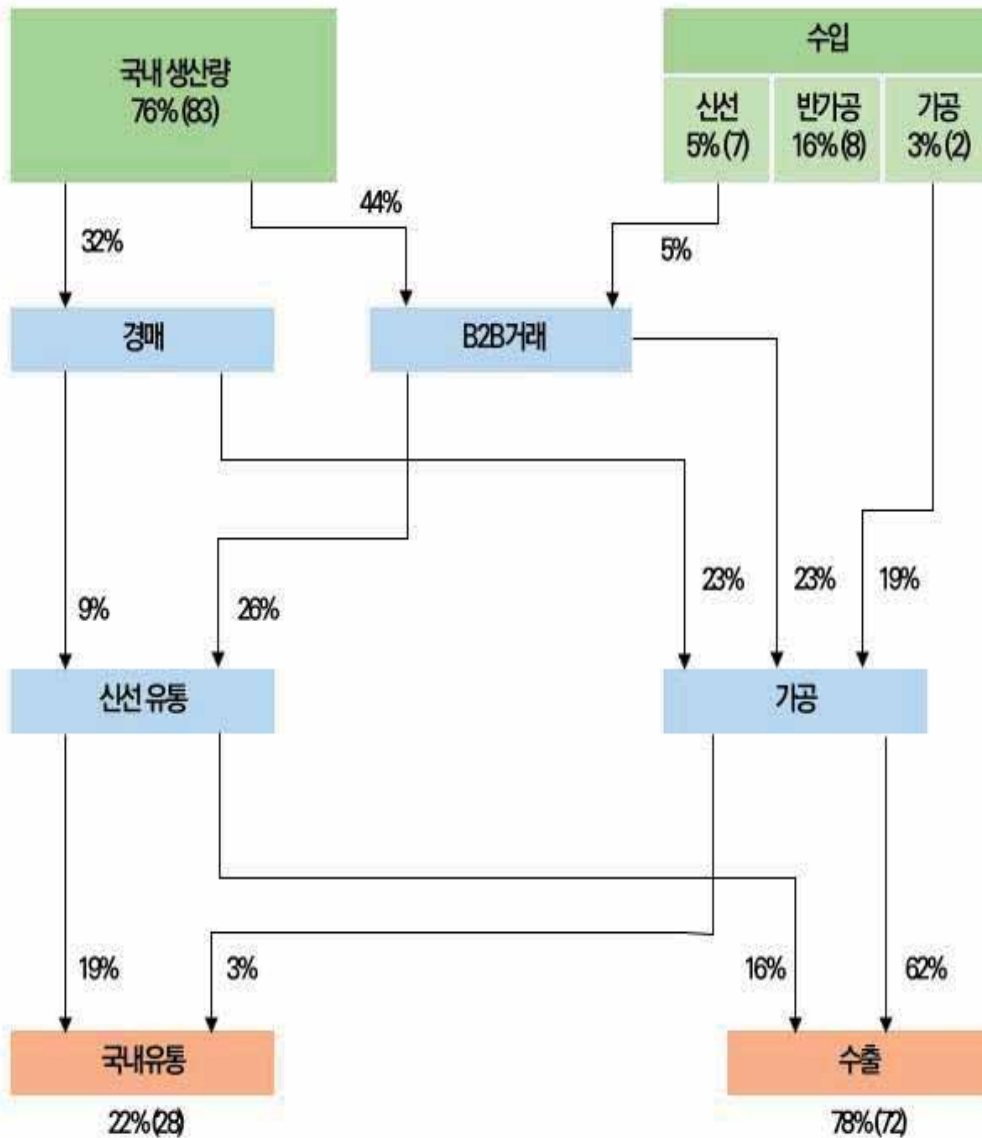


이름	Lidl (리들)
매장 수	417개
홈페이지	www.lidl.nl

출처:업체별 홈페이지

- 일반적으로 버섯은 슈퍼마켓에서 주로 판매되지만 다른 야외 시장에서도 판매중임. 소비자들이 버섯을 구입할 수 있는 주요 슈퍼마켓에는 Albert Heijn(2018년 기준, 시장점유율 35.3%), Jumbo, Plus, Lidl, Aldi, Hoogvliet, Coop이 있음
- 팥이버섯과 같은 특별한 품종의 아시안 버섯들은 주로 아시안 식료품점에서 볼 수 있음. Amazing Oriental은 주요 아시안 식료품점 중 하나임. 다른 지역 식료품점들로는 암스테르담에 Shilla가 있고, Utrecht에 Toko Goedendag, 암스테르담의 Tjin' s Toko가 있음
- 1992년 자료이기는 하나 네덜란드의 Rabo은행이 발간한 ‘전세계 버섯 산업 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절반 보다 약간 못 미치는 양이 신선 버섯으로 유통되었으며, 절반 이상의 버섯이 가공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네덜란드 버섯의 유통 경로(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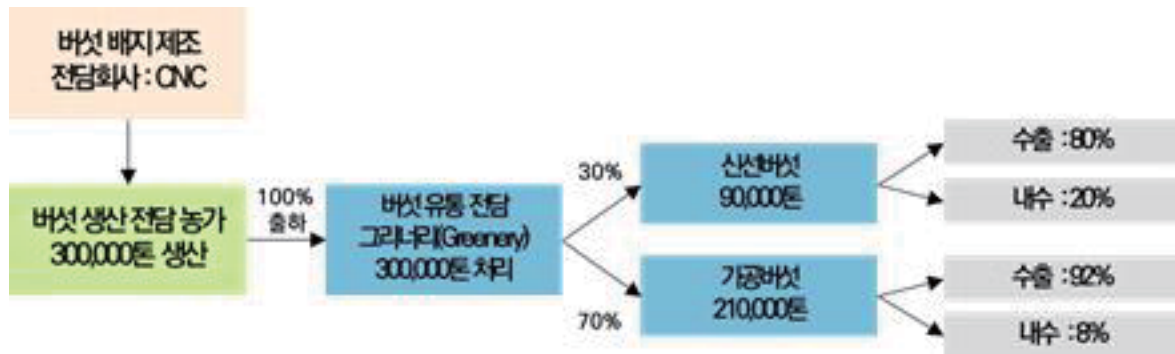


출처 :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ushroom Sector, Rabobank, 1992

- 네덜란드 버섯 산업의 경우, 배지제조는 CNC에서 전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 농가는 CNC의 배지를 100% 활용함. 생산된 버섯(주로 양송이버섯)은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Greenery에서 담당하여 유통이 이루어짐. 전체 생산량 중 약 30%가 신선 버섯으로 유통되며 그 중 약 70%는 가공됨
- 신선버섯의 80%는 수출되며, 가공 버섯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92%가 수출됨

<그림> 네덜란드 버섯의 유통 경로(2009)





- Green Mushroom Farm는 그린합명 40%, SAMI(사미) 51%, 핑지스 도매상 9%가 투자하여 한국산 버섯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할 회사로 한국산 버섯 수입 경력은 10년 정도 됨
- 당초 그린합명의 버섯만 수입하여 유럽지역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지역 총수입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입량의 30%는 영국, 30%는 독일, 40%는 네덜란드 및 프랑스 등으로 판매하고 있음
- GMF는 대형 유통 체인인 Jumbo와 Albert Heijn 등 대형마트에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최근 그린합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독일에 설치한 현지 농장에서 6월부터 약 20톤이 생산될 계획으로 영국 등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계획임
  - 최근 영국 TESCO의 100개 시범 점포에 새송이버섯을 공급할 계획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매일 20톤 규모를 공급할 계획임

GMF 사무실	혼합 세트	물류 센터	홍보 포스터
			
유럽 코소보산 버섯	유럽 코소보산 버섯	유럽산 야생 버섯	유럽산 야생버섯
			
			

- 기타 버섯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유통될 때 B2C채널보다 B2B채널에서의 거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짐. 한국에서 수입되는 버섯의 경우 Green Mushroom Farm과 Mitro Fresh가 B2B유통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및 공급업체인 것으로 조사됨
- 네덜란드의 버섯수입상(Green Mushroom Farm, Westland 등)은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한 다양한 버섯(신선 및 건조)을 취급하며 구매 바이어에게 품목별 가격 오퍼리스트를 제시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짐
- 아시안 버섯은 한국산과 중국산과의 경합이 되고 있으나 시메지(느타리), 시타케(표고)는 중국산이 강세에 있음

**<표> 네덜란드 Westland Mushrooms B.V.의 B2B 가격사례(2018.05.17.)**

<b>Oriental Mushrooms</b>						
Shii-take	Shii-take ( China )	"AIR"	1 ½kg	€ 12,75	China	Enough
Shii-take	Shii-take ( China )	"AIR"	5kg	€ 38,50	China	Limited
Shii-take	Shii-take (China)		5kg	€ xx,xx	China	Not available
Eryngii	King-Oyster	"AIR"	4kg	€ 22,50	Korea	Enough
Eryngii	King-Oyster	"AIR"	1kg	€ 6,50	Korea	Enough
Eryngii	King-Oyster 'Baby-size'	"AIR"	1kg	€ 8,00	Korea	Enough
Eryngii	King-Oyster		4kg	€ 15,00	China	Enough
Enoki	Enoki	"AIR"	10x100g	€ 5,95	Korea	12x100gr = € 7,10
Enoki	Enoki	"Great Brittain"	10x100g	€ 8,25	G.B.	12x100gr = € 9,90
Enoki	Enoki	"AIR"	50x100g	€ 19,50	Korea	Enough
Shimejii	Beukenzwam (Brown)		20x150gr	€ 16,00	China	Limited
Shimejii	Beukenzwam (Brown)		10x150gr	€ 8,75	China	Limited
Shimejii	Beukenzwam (Brown)		7x150gr	€ 6,50	China	Limited
Shimejii	Beukenzwam (White)		20x150gr	€ 16,00	China	Limited
Shimejii	Beukenzwam (White)		10x150gr	€ 8,75	China	Limited

#### ④ 경쟁동향<sup>29)</sup>

##### ○ 송이버섯 시장

-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도 유럽 버섯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는 추세임. 예를 들어 헝가리는 2020년까지 버섯 생산량을 두 배 늘릴 계획이며 우크라이나도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유럽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폴란드로 네덜란드보다 버섯 생산비가 저렴하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Rabobank는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5000㎡ 이상의 생산규모 시설을 갖춘 버섯 재배농장이 100여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 틈새 제품 공급자를 위한 시장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
- 특히 1만5000~2만㎡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춘 재배업자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 외국 버섯 지배를 시도하는 기업

- Mitro Fresh와 Green Mushroom company사는 네덜란드 내 아시아 버섯 수요, 특히 네덜란드 내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

29) 네덜란드 버섯시장 동향. kotra.2014

- 이에 많은 기업이 국내에서의 외래종 재배를 시도하고 있음
- 생산규모를 늘리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아시아 수출업자는 유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네덜란드에서 외국 버섯을 재배, 유통하는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음

<표> 외국 버섯 재배·유통 네덜란드 기업

기업명	홈페이지
Naturespride	<a href="http://www.naturespride.nl/onze-producten/product-detail/paddestoelen/">http://www.naturespride.nl/onze-producten/product-detail/paddestoelen/</a>
Vanilla Venture	<a href="http://www.vanillaventure.nl/">http://www.vanillaventure.nl/</a>
Paddestoelenrijk	<a href="http://www.paddestoelrijk.nl/">http://www.paddestoelrijk.nl/</a>
Van Gelder Groente en Fruit	<a href="http://www.vangeldernederland.nl/blog/tag/seizoen-agf/">http://www.vangeldernederland.nl/blog/tag/seizoen-agf/</a>
Oke Trading	사이트 없음.
Paul Verhoeckx groothandel	<a href="http://www.verhoeckxenzn.nl/">http://www.verhoeckxenzn.nl/</a>
Champoord	<a href="http://www.champoord.nl/">http://www.champoord.nl/</a>
The Greenery	<a href="http://www.thegreenerymushrooms.com/home">http://www.thegreenerymushrooms.com/home</a>
Westland Mushrooms	<a href="http://www.westlandmushrooms.com/NL/contact.htm">http://www.westlandmushrooms.com/NL/contact.htm</a>
Verbruggen Paddestoelen B.V.	<a href="http://www.oesterzwam.nl/visie/list?page=1">http://www.oesterzwam.nl/visie/list?page=1</a>
Kooelen Champignons	<a href="http://www.koolen-champignons.com/media/koolen_productleaflet1.pdf">http://www.koolen-champignons.com/media/koolen_productleaflet1.pdf</a>
CNC Grondstoffen B.V.	<a href="http://www.cnc.nl/nl">http://www.cnc.nl/nl</a>
Van Asseldonk Champignons	<a href="http://www.vanasseldonkchampignons.nl/">http://www.vanasseldonkchampignons.nl/</a>
Scelta Mushrooms	<a href="http://www.sceltamushrooms.com/">http://www.sceltamushrooms.com/</a>
King of Mushrooms	<a href="http://www.kingofmushrooms.com/Default.asp">http://www.kingofmushrooms.com/Default.asp</a>
Braneco B.V.	<a href="http://www.braneco.nl">www.braneco.nl</a>
Meat the Mushroom	<a href="http://www.meatthemushroom.nl/">http://www.meatthemushroom.nl/</a>
Hollander spawn	<a href="http://hollanderspawn.com/index.php/">http://hollanderspawn.com/index.php/</a>
Prochamp	<a href="http://prochamp.nl/home/">http://prochamp.nl/home/</a>
Dollevoet Shii take	사이트 없음.
Kanters	<a href="http://www.jkanters.nl/">http://www.jkanters.nl/</a>
Heme Sales	사이트 없음.
Lekkamp sales	<a href="https://www.facebook.com/LekkampChampBV">https://www.facebook.com/LekkampChampBV</a>
Naturelle	<a href="http://www.natuurlijknaturelle.nl/home">http://www.natuurlijknaturelle.nl/home</a>
Rotterzwam	<a href="http://www.rotterzwam.nl/">http://www.rotterzwam.nl/</a>
Banken Champignons	<a href="http://www.bankenchampignons.com/">http://www.bankenchampignons.com/</a>
Lutece	<a href="http://www.lutece.nl/lutece/indexnew.php">http://www.lutece.nl/lutece/indexnew.php</a>
CNC Exotic Mushrooms	<a href="http://www.cncexoticmushrooms.com/en">http://www.cncexoticmushrooms.com/en</a>
Haveman Groen	<a href="http://www.havemangroen.nl/">http://www.havemangroen.nl/</a>
Ruyken Groente en Fruit	<a href="http://www.ruyken.nl/">http://www.ruyken.nl/</a>
Asia express Food	<a href="http://www.asiaexpressfood.nl/">http://www.asiaexpressfood.nl/</a>
P. Mets en Zn	<a href="http://www.psmets.nl/nl">http://www.psmets.nl/nl</a>
Asian Vegetables and Fruit	<a href="http://www.adsbv.com/home.aspx">http://www.adsbv.com/home.aspx</a>
Fresh Mushroom Europe N.V	<a href="http://www.fme-nv.com/nl/">http://www.fme-nv.com/nl/</a>
Mitrofresh	<a href="http://www.mitrofresh.nl/">http://www.mitrofresh.nl/</a>

□ 소매가격동향

- 2019년 3월 기준 일반적인 흰 양송이버섯의 경우 0.79유로~1.29유로 사이의 가격대를 보여줌(250g 또는 400g 기준). 갈색 양송이버섯의 경우 살짝 높은 1.28유로~1.99유로임(250g 또는 400g 기준)
- 유기농 버섯이라고 표기된 경우 가격은 더 높게 책정됨
  - 또한 최근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잘린 버섯도 많이 판매되는데 이러한 제품의 경우 250g에 1.95유로 정도의 가격임
- 느타리버섯의 경우 150g에 1.79유로로 AH에서 판매됨. 비슷한 타입의 다른 상품인 경우 150g에 1.77유로에 판매되었고, 건조 느타리 버섯의 경우 20g에 1.99유로에 판매됨
- 팡이버섯의 경우 150g에 2.99유로로 AH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다른 아시안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네덜란드 식료품 점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음
- 주목할 점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신선 버섯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 그 원인으로서는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버섯의 양이 증가하면서 시장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임. 또한, 버섯 소비가 신선 버섯이 아닌 피자용 토핑과 같은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이 증가함

점보 매장	점보 매장 양송이	점보매장 느타리	점보매장 양송이혼합
			
알버트 매장	알버트 버섯	알버트 느타리	알버트 양송이
			



양송이 포장	커팅 양송이	전처리 혼합 야채	혼 합 버섯
			
	혼합 버섯	커팅 버섯	
			

### ⑤ 통관절차

- EU 회원국 밖에서 네덜란드로 유입되는 물품은 통관이 돼 자유 물품(free goods)이 된 후 EU 내 판매가 가능함. 통관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류 창고(T1)로 옮겨진 후 통관되는 경우로 구분됨

- 직송 통관(Custom Clearance 절차 흐름도

: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침

- 보세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 물류 창고로 보세 운송(T1) → 창고보관 → 세관 신고 및 통관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검사 → 수입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침

### □ 소요 시간 및 제출 서류

-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하여 창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함

-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됨
- EDI를 통해 통관 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는 보관하고 있어야 함

#### □ 통관주체 설정(Fiscal Representative)

- EU 해당국가(네덜란드) 내에 법인이나 지사설립이 없는 기업이 창고사에 위임권(Power of Attorney)를 제공하여 이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창고사에서 책임을 지고 통관대행을 진행할 수 있음. 위임 방법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음
  - a. Limited VAT Representative : Fiscal Representative 대행업체(창고사)가 자체 VAT 번호를 이용해서 유럽 내 수입관련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통관을 진행하는 방법
  - b. General VAT Representative : 유럽 내에 법인이나 지사 설립이 없다 해도 Fiscal Representative 대행업체(창고사)가 해당기업을 대신해서 유럽국가(네덜란드)에 VAT번호를 신청해 이 VAT번호로 유럽 내 수입관련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통관을 진행하는 방법

#### □ 컨테이너 비용

-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20" 컨테이너와 40" 컨테이너 모두 같으며(서류를 기준으로 통관),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은 약 170유로(아시아 운송), Security Charge(ISPS) 15유로,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로테르담 또는 암스테르담 지역)는 약 170~260유로가 소요
- 2012년 9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물량을 한국에서 로테르담 물류창고까지



운송할 경우 해상운임, 통관비용,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 관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200유로~1,300유로 가량 소요 (단, 물류사별 비용 차이가 있음)

## □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분류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됨.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됨.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음.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함.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함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임.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음
- 관세 부가 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음.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함.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21%가 적용됨) 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와 소비세가 부과됨. 물품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www.belastingdienst.nl](http://www.belastingdienst.nl))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음

- EOIR 번호(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 2011년 1월 1일부터 EU 국가간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EU 내 사업자가 자국이 아닌 타 국가와의 수출입을 하기 위해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번호로 이전의 VAT 번호와 유사하나 EOIR 번호에는 앞에 국가를 표기한 약어가 있음 (예 : 네덜란드 NL0000000000, 독일 DE0000000000)

□ 통관거부 사례 및 주의사항

- RASFF, 유럽 긴급정보시스템

날짜	품목	처리	사유	수출국	수입국
2017.1.4	팬이버섯	추가정보 요청	리스테리아균 검출 (1100 CFU/g)	한국	네덜란드
2015.1.18	통조림	경고	유리조각검출	중국	네덜란드
2015.10.14	황금팽이버섯	철수	리스테리아균 검출 3 out of 5 samples/25g	한국	네덜란드

⑥ 네덜란드 검역정보

- 수입 검사기관

- FVO (식품 수의청 : Food and Veterinary Office)

- 감독범위 : 식품위생 / 동식물 검역 / 동물의 복지

- 담당업무

-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3국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감독
- EU회원국의 식품 안전, 동물의 복지 및 동식물 검역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 회원국들과 연계

- 식품위생에 관한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개발
- 수산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 담당

## ○ 식품 안전 관리 제도

- GAP 관련 정책 : 유럽 농업정책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식품안전」, 「환경」, 「동물복지」 등을 위하여 농민은 우수농산물 생산기준 (good farming practice)을 실천하도록 유도
- 수입식품 관리제도 : 유럽연합 규정(Reglement CEE No.802/68)에 따라 둘 또는 여러 국가가 개입된 경우 생산된 상품의 원산 국가는 최종공정이 이뤄지거나, 입증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국가 그리고 신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생산 공정을 실시한 국가로 규정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수입 검사 제도 : 식물, 즉 곡물, 과일·채소, 포도주 등은 유럽연합차원에서 단일화 된 적용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건강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육류와 유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마다 각자의 규정과 시행방법을 부가하여 엄격하게 적용
- 식물 검역 제도 :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역외 국가들의 모든 식물류에 대한 통제를 규정한 기본 지침으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0/29/EC
- 수산물 검역제도 : 유럽연합은 수산물의 수입과 관련한 제조건을 규정한 법규 (Directive No. 91/493/EEC)를 제정하여 운영
-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정책 : 유럽연합은 식품위생 및 안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법규 제정운용(새로운 식품들과 새로운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Reglement No. 258/97/EEC, 식품의 라벨 및 전시 그리고 광고와 관련한 유럽연합 국가별 제규정들의 통합규정, Directive No. 97/1 2/EEC, 쇠고기 식별 및 관

리기록 체제 구축과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식품의 라벨표시 관련규정, Reglement No. 820/97)

- 원산지 명칭 보호 및 품질인증제도 : 농산품과 식품의 품질 향상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대한 시장가치의 보장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투명한 식별을 보장하기 위해 지리적 원산지 표시제도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Traceability : 「식품, 사료,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 및 식품이나 사료에 혼입되는 것이 의도되고 또는 예상되는 물질의 traceability는, 그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 있어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해 모든 식품에 대한 traceability 확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 ○ 수입 승인 절차

-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식품안전기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수출을 위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청서에는 EU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모든 관련 법적 조항을 이행한다는 식품안전기관의 확인이 들어 있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질의서 작성 후 식품 수의청에도 송부
- 질의서의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 식품 수의청은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
- 이 단계에서 수출국에 대한 잔류 농약 모니터링 계획이 반드시 제출되고 승인 받아야 함 (아직 승인을 안 받은 경우)
- EU 집행위원회는 수출국에게 수입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든 EU 회원국 대표들과 논의
- 식품수의청의 업무 결과와 수입국의 보증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인증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 회원국들의 의견이 긍정적이면, EU 집행위원회는 그 기준을 채택함. 적합시설에 대한 리스트는 수출국의 요청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공

개할 수 있음

- EU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관련 담당기관에 요청하여 상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⑦ 수출관련 특이동향

### □ 라벨링

- 네덜란드의 라벨링 관련 법규로는 영양성분 라벨링과 기타 라벨링 조건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식품 및 소비자 제품 안전청(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VWA)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네덜란드 라벨링 관련 법규 체계

영양성분	Decision No.438 of 1993
기타 라벨링 조건	Decision No. 14 of 1991

- 일반 제품의 라벨 의무 표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선 과일 및 야채의 경우는 성분 및 성분함량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버섯의 라벨링은 다른 제품보다 매우 단순한 편임

<표> 네덜란드 라벨링 의무 표기 사항

1. 제품이름	5.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2. 성분 및 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6. 순중량(Net Quantity)
3. 알레르기 유발 성분	7. 영양성분
4.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8. 원산지

### <그림> 네덜란드 버섯 라벨링 예시



출처 : Greenery 홈페이지

#### □ 인증제도

- 유럽연합의 유기농 식품 인증인 Euro-leaf는 제품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사용해야 하고,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EU 모든 회원국에서 영향력을 가지며 비유럽 국가에서도 유기농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인증 내용으로는 농작물의 생산 및 제조과정의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명시하는 것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제조자가 유기농 경작이나 유기농 식품 제조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EU회원국에 의해 인가받은 유기농 인증시험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함. 제조자의 농지와 제조 공정은 시험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농장은 반드시 최소 2년 동안 유기농 농지로의 전환기를 거쳐 경작 후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음

<b>인증설명</b>	EU 유기농 농작물 관련 법적 규정인 EG Nr.834/2007를 준수해 제조되거나 가공되고 수입된 제품에게 부여하는 인증
<b>발행기관</b>	EU Organic Farming
<b>성격</b>	선택 인증
<b>발급절차</b>	인증 신청→수수료 합의→자료 심사→현장 검사→인증서 발급→사후 관리
<b>유의사항</b>	제조자가 유기농 경작이나 유기농 제품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EU 회원국에 의해 인가받은 유기농 인증시험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함
<b>인증마크</b>	

- EU 유기농 인증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본정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IMPORT OF PRODUCTS FROM ORGANIC PRODUCTION INTO THE EUROPEAN COMMUNITY**

1. Issuing body or authority (name and address)	2.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rticle 33(2) <input type="checkbox"/> or Article 33(3) <input type="checkbox"/> or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Article 19 <input type="checkbox"/>	
3. Serial number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4. Reference No authorisation under Article 19	
5. Exporter (name and address)	6. Control body or control authority (name and address)	
7. Producer or preparer of the product (name and address)	8. Country of dispatch	
	9. Country of destination	
10. First consignee in the Community (name and address)	11.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12. Marks and numbers. Container No(s). Number and kind. Trade name of the product	13. CN codes	14. Declared quantity
	<p>15. Declaration of body or authority issuing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box 1.</p> <p>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ertificate has been issued on the basis of the checks required under Article 13(4)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and that the products designated above have been obtained in accordance with rules of production and inspection of the organic production method which are considered equival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EC) No 834/2007.</p> <p>Date</p> <p>Nam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person</p> <p align="right">Stamp of issuing authority or body</p>	



○ 포장이 파손되거나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특별히 인 증은 없음. 네덜란드 슈퍼마켓의 대부분은 Global GAP인증을 통과한 제품만을 유통시킴.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 원예산업은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이에 네덜란드 버섯 산업은 ‘공정 생산’ 인증을 도입하고, 노동법을 준수해 생산된 버섯 제품을 인증하기로 함

- 네덜란드 버섯 재배업체의 약 90%가 동 마크를 획득함

<그림> Global G.A.P. 마크

<그림> 네덜란드의 공정 생산 마크



출처 : [www.globalgap.org](http://www.globalgap.org)



출처 : [www.fairproduce.nl](http://www.fairproduce.nl)

### 3) 수출 확대 전략

#### ① 3C분석

01	<b>Custome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 잡힌 요리 문화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유럽인들 중 비만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li> <li>▶ 대형 유통업체보다 근접한 슈퍼마켓을 선호하고, 할인 쿠폰을 선호함</li> <li>▶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이국적인 맛에 대한 높은 선호도</li> <li>▶ 건강과 영양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li> <li>▶ 인구 구성이 다양해짐에 다문화 음식이 유행하고 있음</li> <li>▶ 한국산 버섯의 요리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li> <li>▶ 가공버섯에 비해 신선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음</li> </ul>
02	<b>Competitors : 중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국가인 중국의 경우, 현재 수출량은 우리나라에 이어 2,342톤을 네덜란드로 수출하며 2위임</li> <li>▶ 하지만 수입액의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산 버섯의 차이가 매우 큰 편으로 우리나라 버섯에 비해 품질 및 가격이 낮음</li> <li>▶ 중국은 세계 최대의 버섯류 생산국이자 수출국임</li> <li>▶ 정부에서 재정보조, 기술지원, 세금면제 등 여러 우대 정책으로 버섯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음</li> </ul>
03	<b>Company : 한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로 기타 버섯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임</li> <li>▶ 한국산 버섯의 경우 네덜란드로 수출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li> <li>▶ 경쟁국인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가격 모두 높게 인정받고 있음</li> <li>▶ 하지만, 바이어와 소비자들이 한국산 버섯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li> </ul>

② SWOT 분석 최적전략

강점 (Strength)	기회(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대비 우수한 품질</li> <li>▶ 현지산 및 일본산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버섯 수입량</li> <li>▶ 건강과 영양에 대한 높은 관심</li> <li>▶ 지리적 이점과 항구 인프라 등 수출입에 적합한 최적의 물류 설비</li> <li>▶ 유럽과의 FTA로 관세 0%로 제약 요인 없는 편임</li> <li>▶ 가공버섯보다 신선버섯을 선호함</li> </ul>
약점(Weakness)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 버섯에 대한 수요 증가</li> <li>▶ 높은 가격 경쟁</li> <li>▶ 낮은 인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인구 잠재력</li> <li>▶ 양송이 버섯 위주의 소비 습관</li> <li>▶ 자국산 버섯과의 신선도 경쟁에 약함</li> <li>▶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 약함</li> <li>▶ 최근 유럽 내 폴란드의 주요 생산자로 떠오름</li> </ul>

### ③ Marketing Mix 전략

<b>SO전략 (강점-기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과 영양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소비자에게 한국산 버섯을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li> <li>▶ 네덜란드 현지재배 버섯보다 한국산 수입버섯이 가격경쟁력 우위 (한국버섯, 네덜란드에서 재배시 9유로 원가 반면 한국 수입할 경우 4유로 소요)</li> </ul>
<b>WO전략 (약점-기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산 버섯의 우수한 품질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li> <li>▶ 유기농 버섯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네덜란드로 수출 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여 차별화 전략 마련</li> </ul>
<b>ST전략 (강점-위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품질·저가격의 중국산 버섯에 대비한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파워를 형성</li> </ul>
<b>WT전략 (약점-위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버섯과의 가격 경쟁보다는 고품질 시장으로의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li> <li>▶ 중국산의 수입쿼터 제한이 풀릴 경우 수입산 시장 확대로 가격경쟁력 저하우려</li> </ul>

## ⑤ 시사점(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인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버섯 시장이 이미 크게 형성되어 한국버섯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 이점과 항구 인프라 등 수출입에 적합한 최적의 물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임. 같은 종류의 버섯을 네덜란드에서 재배하면 9유로인데 반해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4유로 밖에 들지 않아 수입산 버섯의 경쟁력이 우위의 위치임
- 네덜란드 소비자는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근접한 슈퍼마켓을 선호하고, 할인 쿠폰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덜란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춘 마케팅이 필요함
-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이국적인 맛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을 고려한 시장 진출이 필요함. 특히 유기농버섯에 대한 버섯 유통상의 관심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버섯 수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네덜란드 내에서 기타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버섯 제품들은 양송이류가 대부분임.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새송이버섯이나 팽이버섯과 같은 한국산 버섯은 다소 생소하여 현재 시장 확대의 어려움이 있음
- 새송이는 유럽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품목으로 주 수출 품목임. 특별한 맛이 없어 다양한 요리에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샐러드에 여러 야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며 영국 테스코에서는 새송이버섯을 넣은 샌드위치가 판매되기도 함 유럽시장에 적합한 품목임
  - 새송이버섯의 경우 한국산이 품질이 좋고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음
- 팽이버섯은 주로 일본이나 중국요리. 한국의 찌개요리에 많이 사용되어지며 현지 유럽인에게는 생소한 품목으로 현지 시장 판매에는 아직까지는 한계에 있음
  - 팽이버섯은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나 한국산의 품질이 좋아 가격이 다소 비

싸더라도 한국산을 선호하는 편임

- 표고는 향이 강하여 메인 요리에 사용이 어려움 있고 시메지도 향이 큰편으로 주재료사용에 어려움이 많음
- 또한 바이어의 경우 버섯 품종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한국산 버섯의 품질이나 특징점에 대해 알지 모르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한국산 버섯을 활용한 맞춤 레시피 제작, 한국산 버섯의 우수성에 대한 자료를 소비자 및 바이어에게 제공하여 한국산 버섯류에 대해 알리고 친숙하게 하여 수요를 형성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검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출 시 한국 측 생산업체에서 철저한 검역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를 포함한 EU 국가에서는 리스테리아가 발견되면 수입이 중단되어 향후 수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 유기농버섯은 유럽 내 유기농 버섯인증절차가 까다롭고, 인증에 따른 비용 등의 부담으로 현재 유기농 버섯의 수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유기농 인증 시 시장의 수요는 크고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음

## [별첨] 버섯 유통 관련 주요 행사 및 주요 사이트

---

- 버섯의 날 (2019년 5월 22~24일)  
The International Trade show for the Mushroom industry
    - <https://www.champignondagen.nl/>

---

  - 최대 종합식품박람회 ANUGA (2019년 10월 예정)
    - <https://www.anuga.com>

---

  - 유기농 전문 Biofach 박람회
    - <https://www.biofach.de/en>

---

  - 신선 농산물 전문 Fruit Logistica 박람회
    - <https://www.fruitlogistica.de/en/>

---

  - 유럽균류학협회  
(EUROPEAN MYCOLOGICAL ASSOCIATION)
    - <https://www.euromould.org/>

---

  - 국제 신선농 산물 전문지
    - <https://www.freshplaza.com>
-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어명: Bundesrepublik Deutschland)
수 도	베를린(Berlin)
인 구	8,274만 명(독일인 88.4%, 외국인 11.6%)(17년 9.30일 기준,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
면 적	35만 7,386km <sup>2</sup>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기 후	온대성, 연간 섭씨 -1.7~18.1도 (2017년 연평균 9.6도)
주요 도시	베를린(371만 명), 함부르크(183만 명), 뮌헨(154만 명), 쾰른(108만 명), 프랑크푸르트(74만 명) (2017년 12.31일 기준, 함부르크는 2017년 9월 30일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종 교	카톨릭(28.6%), 개신교(26.6%), 이슬람(5.2%), 무교 및 기타(39.6%)
화폐 단위	유로(Euro)
GDP	3조 1,441억 유로(2016년), 3조 2,634억 유로(2017년), 8,259억 유로(2018년 1분기)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CIA The World Factbook(www.cia.gov)

## 1) 산업동향

### ① 국가개황

- 독일은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나라로 정식 국가 명칭은 독일 연방 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며, 수도는 베를린으로 총 인구는 약 8,274만 명임. 영토는 한반도의 약 1.6배인 35만 7112km<sup>2</sup>에 달하며, 행정구역은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독일의 지역구분



-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 바이에른 주
-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주
- 브레멘 주
- 함부르크 주
- 헤센 주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 니더작센 주
- 노트르라인 베스트팔렌 주
- 라인란트 팔츠 주
- 자를란트 주
- 작센 주
- 작센 안할트주
-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 튀링겐 주

출처 : 위키백과

- 독일은 높은 기술 수준 및 생산성, 축적된 사회간접자본, 전문직업인력을 양산하는 효율적 직업교육 훈련 체제, 안정적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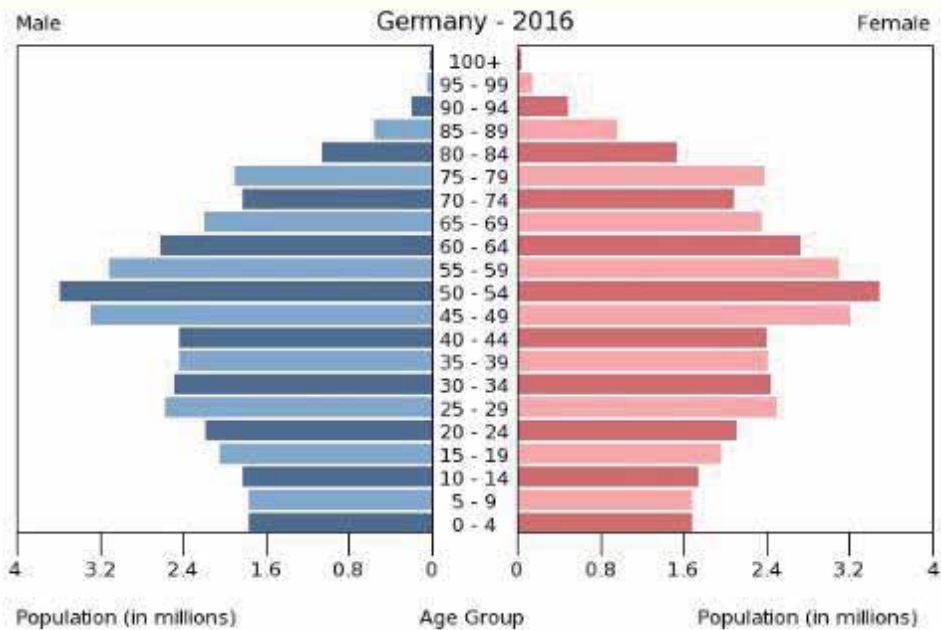
-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주요 상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30) 2017 독일 개황, 외교부



- 독일의 인구구성은 2017년 기준 독일인 87.2%, 터키인 1.8%, 폴란드인 1%,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독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됨
- 독일의 인구는 지난 1970년대 이후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정체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및 2007년 EU의 동구권 확대와 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동구권 출신 이민자의 증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지 정책 및 난민 유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인구 성장률이  $\Delta 0.17\%$ 로 감소하였음<sup>31)</sup>
- 독일 또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인구의 약 22.36%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독일의 인구 구조



출처 : The World Factbook 2018, CIA

## ② 경제

- 독일은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인 EU 내수시장에서 2016년 기준 EU 전체 인구

31) 2017 독일 개황, 외교부

16.1%, GDP 21.1% 비중을 차지하며 유럽 내 최대경제국 지위를 유지함

- 독일은 전통적인 지방분권체제 등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전문산업기계·부품 등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 경제기반이 매우 견실함
- 독일은 전통적으로 높은 생산성 및 탁월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의 최대 산업 분야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 산업 등을 들 수 있음
- 독일 경제의 특징으로는 수공업, 제조업, 도소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활동 중이며, 이들 중소기업 중 다수는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독일 경제의 ‘히든 챔피언’ 이라고도 불림

<표> 독일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0.61	2.18	1.48	2.16	2.46
GDP(백만 USD)	3,752,514	3,890,607	3,375,611	3,477,796	3,677,439
1인당 GDP(USD)	46,530.91	48,042.56	41,323.92	42,232.57	44,469.91
물가상승률(%)	1.61	0.77	0.14	0.39	1.70
이자율(%)	1.9473	0.5384	0.6318	0.2074	0.4296
실업률(%)	5.24	5.01	4.63	4.15	3.75

출처 : 세계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③ 무역

- 독일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수출 강국으로 글로벌 시장 내 독일 중견 기업의 활약과 비교적 안정된 내수 시장, 견고한 고용 시장을 토대로 유럽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독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GDP 창출의 45.9%, 전체 고용시

장의 25%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함

- 특히 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금속 부문에서 수출 비중은 66%(2015년 기준)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독일 무역수지

(단위 : 억 유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누계
수출	11,335	11,958	12,075	12,794	4,383
수입	9,166	9,480	9,546	10,346	3,575
무역수지	2,169	2,478	2,529	2,449	808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④ 물류

- 독일의 경우 북부 지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있으며, 바다와 연결된 내륙의 길이는 400km 정도임. 함부르크, 브레멘, 빌헬름스하펜의 경우 독일의 대표적인 항구이며 그 외 유럽의 발틱해(Ostsee) 접경인 Rostock, Luebeck 등이 있으며, Duisburg는 대표적인 내륙 항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음

<b>함부르크 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유럽 3위의 물류 항구인 동시에,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항구임</li> <li>▪ 2017년 기준 약 1억 3,650만 톤 무게의 제품의 함부르크 항구를 통해 선적/도착함</li> </ul>
<b>브레멘 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2대 항구이며, 2017년 기준 약 7,328만 톤의 제품이 선적 또는 도착함</li> </ul>
<b>빌헬름스하펜 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북서부 니더작센주(Niedersachsen)에 속하며, 네덜란드 접경 지역과 북해 지역에 위치한 독일의 3대 항구</li> </ul>

- 운송기간의 경우, 대표적인 함부르크 항을 기준으로 평균 항만 대기기간 5일, 선박항해기간 30일, 통관 7일 정도가 소요됨

- 신선 버섯의 경우 제품의 신선도와 유통기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독일 수출시 항공으로 운송됨

<그림> (수출)박스안 버섯 포장 모습



출처 : 자체 해외시장 조사

## ⑤ 식품산업동향

- 독일은 요리에 대한 전통이 깊고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로 Bio, 채식주의 같은 식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임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채식’, ‘유기농’은 독일 식품 시장에서 떠오르는 주요 키워드로 독일 소비자들은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래를 생각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구함
- 최근 독일 식품 시장 내에서 50세 이상 소비자들의 높은 구매력으로 인해 주요 타겟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최근 간단하게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전 세대에 걸쳐 인기를 끌고 있음
- 기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이민자들의 증가 또한 독일 식품 업계의 트렌드를 바꿔놓고 있음. 이들은 독일산 제품을 선호하며 이러한 소비자를 위한 아시안, 중식, 일식 등 다양한 문화의 요리를 반영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음
- 2016년 독일 채식주의자협회(VEBU, German Vegetarian Union)의 발표에 따르

면, 독일의 채식 인구는 전체 인구의 9%인 약 800만 명으로 추정됨. 이는 인도, 이스라엘, 대만, 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5위의 수치임

- 독일 채식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5% 이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기와 생선은 물론 유제품과 달걀, 꿀 등을 전혀 먹지 않는 비건(vegan) 채식주의자들은 버섯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함

## 2) 버섯 시장 동향

### □ 독일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독일이 속해있는 유럽 연합의 버섯에 대한 HS CODE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러나 국가별로 HS CODE가 일곱 번째 자리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 통계는 같은 품목의 상위 범주인 HS CODE 0709.59(Fresh or chilled edible mushrooms and truffles (excluding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으로 조사함

<표> 독일 내 버섯 HS Code 분류

HS CODE	품명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b>0709.59</b>	<b>기타</b>
0709.59.10	살구버섯
0709.59.30	플랩버섯
0709.59.50	송로
0709.59.90	기타

출처:관세법령정보포털(www.customs.go.kr)

### ① 생산동향

- 농업 통계 사이트인 FAOSTAT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독일 버섯 및 송로 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된 9,547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07년 (55,000톤) 대비 2016년 (72,141톤) 생산량은 31.2% 증가하였음

<표> 독일 버섯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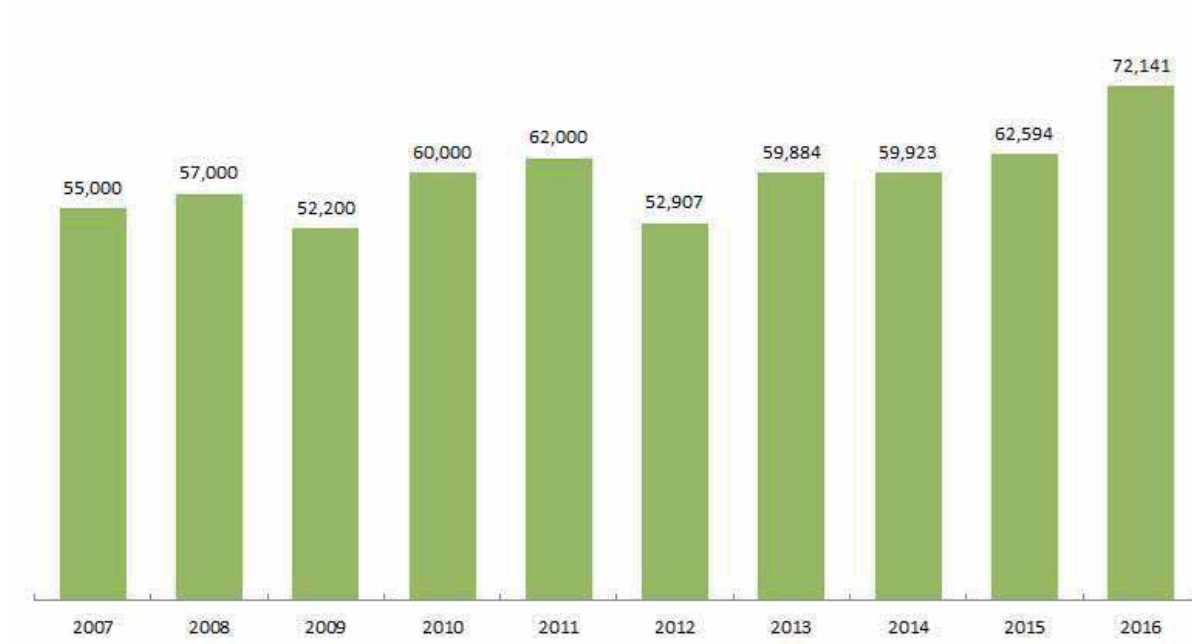
(단위: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5,000	57,000	52,200	60,000	62,000	52,907	59,884	59,923	62,594	72,141

출처: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2017년 기준, 독일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이어 3번째로 버섯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랭크됐지만, 생산량이 큰 차이가 나며 매년 약 7만 2천 톤의 버섯을 생산함

<그림> 독일 버섯 생산량



출처: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독일 통계청에 의하면 독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버섯은 양송이버섯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생산량의 98.2%에 해당하는 72,162톤이 생산됨
- 기타 버섯의 경우 새송이, 느타리, 표고버섯이 생산되고 있으며<sup>32)</sup>, 주로 생산되는 품종은 표고버섯으로 매년 약 2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음

32) State of the German Mushroom Industry, WSMBMP, 2014

<표> 독일의 버섯 생산 업체 수 및 품종별 생산량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업체 수	생산량	업체 수	생산량	업체 수	생산량	업체 수	생산량	업체 수	생산량
전체	35	59,884	34	59,923	36	62,594	37	72,141	34	73,454
양송이	31	59,193	29	58,445	31	61,559	32	70,603	30	72,162
표고	4	185	4	208	4	216	4	225	3	-
느타리	3	-	3	-	2	-	3	-	4	-
기타	3	-	5	-	5	-	4	-	4	-

출처:독일 통계청

○ 독일의 BDC 및 헤센주 버섯 농장 협회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새송이 버섯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생산량이 증가함

<표> 독일 내 버섯 생산 동향

(단위 : 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체	66,500	70,800	79,100	79,300
양송이(Champignon)	64,000	68,000	70,000	76,000
새송이버섯(kraeuterseitling)	1,000	1,000	1,300	1,600
느타리버섯(Austernseitling)	700	900	900	700
표고버섯(Shiitake)	700	800	800	850
기타	100	100	100	150

출처 : BDC 및 헤센주 버섯 농장 협회

○ 유기농 생산을 위해 농법 역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버섯생산기업 필츠가르텐(Pilzgarten)사는 톱밥, 밀기울, 각종 곡식 및 석회 등을 이용한 농법으로 버섯을 생산하고 있음

<참고> 독일의 최대 양송이 생산지 중 하나 (번호:버섯농장)

<b>참고사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버섯 배양(49429 Visbek-Rechterfeld)</li> <li>1.1, 1.2, 1.3, 1.4 버섯배양지</li> <li>2. North mushroom GmbH</li> <li>3. 양송이버섯 농장</li> <li>4. 양송이버섯 배양지</li> <li>5. 버섯농장</li> <li>6. 유기농버섯 생산</li> <li>7. 유기농버섯 배양</li> </ol>	
-------------	--	---

② 수·출입 동향

□ 글로벌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수입 시장

○ 글로벌 시장 내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수입량 23,091톤, 수입액 95,902천 달러로 2017년 수입액 기준 1위를 차지함

- 독일은 글로벌 수입 비중에서 2017년 기준 수입량, 수입액 각각 11.2%(23,091톤), 12.7%(95,902천 달러)를 차지하였음

<표> 글로벌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77,432	709,677	192,412	733,687	193,250	723,397	205,820	757,992
<b>1</b>	<b>독일</b>	<b>17,413</b>	<b>89,479</b>	<b>21,069</b>	<b>94,043</b>	<b>23,872</b>	<b>100,418</b>	<b>23,091</b>	<b>95,902</b>
2	프랑스	20,416	79,037	21,809	73,279	19,145	71,770	17,991	71,880
3	이탈리아	10,203	54,933	10,169	52,509	7,313	45,500	7,497	68,664
4	일본	4,289	71,464	3,578	59,121	3,213	60,912	3,108	64,669



5	미국	9,087	27,307	10,139	39,254	9,852	39,139	9,981	45,093
6	영국	18,648	52,581	21,369	54,890	21,613	52,862	19,966	44,404
7	태국	12,502	21,512	16,670	27,098	20,507	32,498	21,047	33,763
8	네덜란드	3,837	21,460	4,113	19,901	4,860	21,721	5,585	25,628
9	오스트리아	5,098	25,336	4,278	23,857	4,416	23,519	4,022	23,229
10	베트남	767	4,845	1,026	6,695	2,095	11,378	13,360	22,529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 수입동향

- 2017년 수입액 기준 5대 수입국으로는 폴란드, 네덜란드,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순이며 그 중 대한민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78.1%(2,538톤), 수입액의 50.1%(5,971천 달러)를 차지함
-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타 버섯의 수입액은 1,639천 달러로 1.71% 밖에 안되지만, 인근국가로부터 건조버섯류 및 찌꺼리버섯, 그물버섯, 야생버섯, 새송이버섯, 나메코, 만가닥버섯 등 많은 물량의 버섯을 인근국가를 대상으로 수급 판매가 많다.
  - 독일 내 버섯 유통업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독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버섯은 주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같은 EU국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은 같지만 독일에서는 통관절차와 검역 등을 더 까다롭게 진행하여 보다 수월한 네덜란드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를 통해 수입된 제품은 육로를 통해 독일로 운송되는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호주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폴란드로 2017년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44%(10.153톤), 수입액의 29.7%(28.472천 달러)임

<표> 독일의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구분	2014	2015	2016	2017
--------------	----	------	------	------	------

기준 순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7,413	89,479	21,069	94,043	23,872	100,418	23,091	95,902
1	폴란드	7,327	24,746	7,814	19,873	8,908	24,324	10,153	28,472
2	네덜란드	3,807	13,491	6,715	23,747	6,600	23,011	4,864	15,711
3	벨라루스	2,150	15,619	1,334	9,224	2,530	14,583	2,563	14,420
4	리투아니아	887	7,041	632	4,250	1,451	7,716	1,349	7,358
5	러시아	456	3,709	1,676	10,061	1,516	8,023	1,438	7,290
<b>10</b>	<b>대한민국</b>	<b>230</b>	<b>1,399</b>	<b>210</b>	<b>1,058</b>	<b>196</b>	<b>1,013</b>	<b>318</b>	<b>1,639</b>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 수출동향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버섯류 주요 수출국은 호주 및 근접한 유럽 국가들로 조사됨

- 2018년 기준, 독일로부터 HS CODE 0709.59에 해당하는 버섯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호주로 총 4,417천 달러, 659톤에 해당하는 양을 수입함. 그 뒤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으로 수출됨

<표> 독일의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출국 및 수출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출액 기준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세계	1656	14033	1977	13533	1799	12245	1476	11881
1	호주	739	5909	764	5109	763	5066	659	4417
2	프랑스	315	2622	480	2850	555	3058	462	3127

3	이탈리아	35	271	73	550	27	201	112	1026
4	스위스	313	1752	334	1654	217	1293	40	715
5	미국	1	828	1	790	2	968	1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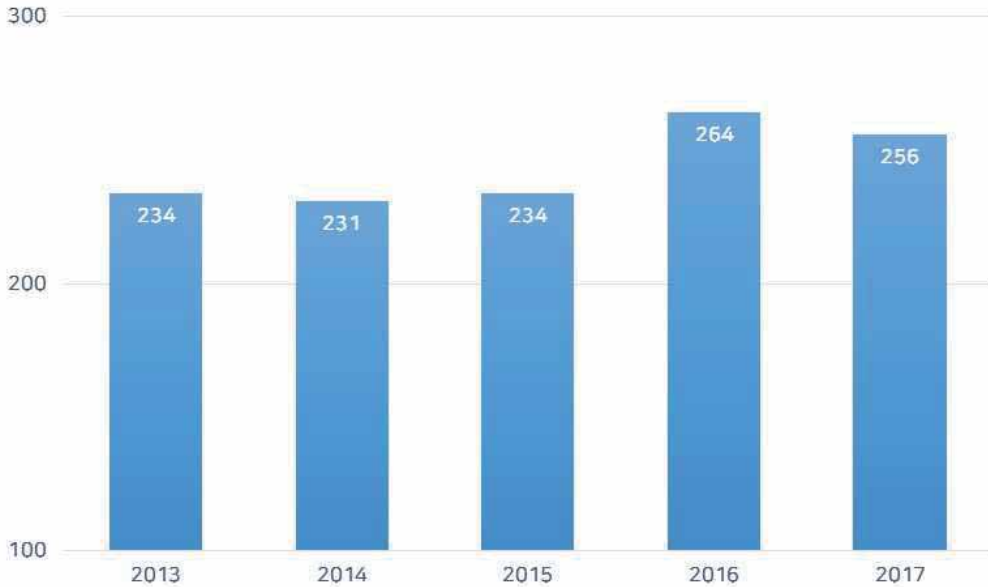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③ 소비동향

- 독일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버섯 품종으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흰/갈색 새송이버섯과 찌꼬리버섯(chanterelles)를 주로 소비하며, 느타리버섯과 그물버섯(procini mushroom)도 많이 이용됨
- 소비연구협회 GfK(Gesellschaft für Konsumforschung)에 따르면 버섯은 2016년에는 한 가정당 연간 소비하는 야채류 소비량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1.8kg으로 집계되어 2단계 오른 8위를 차지
  - \* 1위 토마토(11.6kg), 2위 당근(8.6kg), 3위 양파(7.7kg), 9위 애호박(1.7kg), 10위 브로콜리(1.6kg)
- 지난 5년간 독일의 버섯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버섯(신선, 가공, 냉동, 건조버섯 포함) 소비량은 256천 톤으로 9.4% 증가하였음
  - 버섯 소비 증가의 이유 중 하나는 빠른 인구 성장률에 따른 것으로 2017년에는 2.6% 증가하였음. 연간 1인당 버섯 소비량의 경우 5년 전인 2012년에는 1인당 총 2.9kg의 버섯을 섭취하였음

**<그림> 독일의 전체 버섯(신선, 가공, 냉동, 건조버섯 포함) 소비량**

(단위 : 천 톤)



출처 : Mushroom in Germany Market Research, EDA

- 독일의 1인당 연간 버섯 소비량은 전체 버섯(신선, 가공, 냉동, 건조 버섯 포함)의 경우 3.1kg으로 조사되었고, 신선 버섯의 경우 연간 1.8kg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소비량 중 신선버섯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가공 버섯이 40%를 차지하며, 신선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더 차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표> 독일의 버섯 1인당 소비량**

(단위:kg)



연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소비량 (kg)	2	1.9	1.9	1.9	1.9	1.8

출처: The Statistics Portal(www.statista.com)

- 신선 버섯 소비량 증가는 버섯의 효능(다양한 비타민/미네랄, 칼로리가 낮음)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가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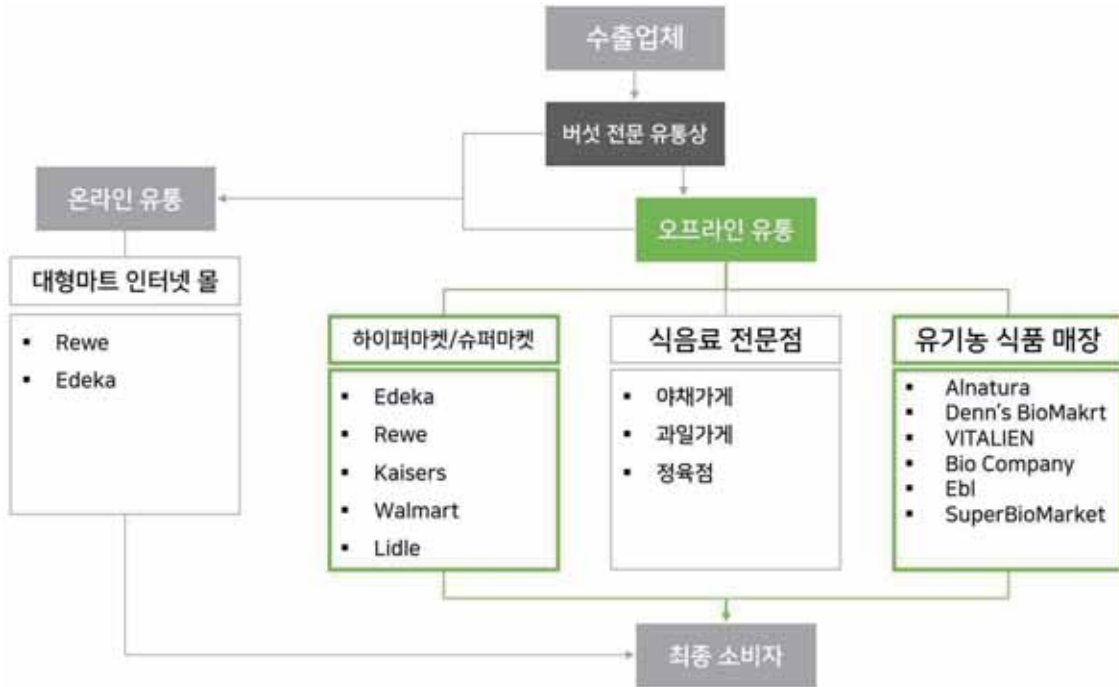
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임. 가공버섯의 경우 소비가 정체 되어 있음

- 가공버섯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는 건조 버섯 형태로 가격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맛이 농축되어 스프나, 스투, 소스 등 요리에 이용했을 때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함. 그물버섯(procini mushroom) 과 표고버섯의 경우 건조 버섯의 형태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음
- 독일에서 한국산 버섯의 인지도가 아직은 낮은 편이지만, K-푸드가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버섯류가 들어간 한식이 여러 요리전문 사이트나 현지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어 점차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요리전문 블로그에 소개된 버섯 전골	독일 TV방송에서 소개된 비빔밥
 <p>KOREANISCHER HOT POT MIT PILZEN UND TOFU Koreanisches Rezept - dachhaus</p> <p>Canastreatfood</p> <p><b>DAS REZEPT</b></p>	 <p>Michaelas koreanische Reisschüssel</p> <p>drehscheibe</p> <p>Michaelas koreanische Reisschüssel</p>

④ 유통동향

<그림> 독일의 유통 채널



출처 : KATI (kati.net)

- 독일 내 가장 보편적인 수입 버섯 유통 방법은 현지 전문 유통상, 혹은 과채류 수입상이 버섯을 수입한 후 도매상에 납품하여 2차 수요처인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식당 등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됨
- 독일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장은 슈퍼마켓·하이퍼마켓 및 유기농 식품 매장으로 전체 식품 유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기농 버섯과 수입산 버섯 등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는 슈퍼마켓·하이퍼마켓의 경우 진출하기에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조사됨
- 대형 슈퍼마켓 및 야채전문상점에서 아시아 품종의 버섯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럽국 외에도 아시아산 버섯이 수입되고 있음을 확인함
-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쪽에서 수입되는 버섯 중 OEM의 경우, 독일로 들여온 뒤 포장을 새로 하여 독일제품으로 판매됨

- 유기농 식품 매장의 경우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버섯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슈퍼마켓·하이퍼마켓의 차선책으로 적합한 유통채널로 조사됨

**<표> 프랑크푸르트 한국 상인마트 방문 인터뷰 내용 (19. 01. 08)**

Q: 한국산 버섯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나요?  
 A: 요즘 팽이버섯 수요가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새송이버섯은 그에 비해 찾는 사람이 없어 자주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Q: 그리고 보니 최근 몇 년 전 만해도 독일 대형 마트나 아시아 마트에 새송이버섯은 거의 한국산이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요즘은 독일에서도 새송이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산과 비교하였을 때 크기도 작고 모양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독일산과 한국산 또는 다른 국가의 버섯과 비교했을 때 가격에도 별 차이가 없고 한국산 버섯만의 특징이 독일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한국산 버섯을 구매해야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 포장을 조금 달리하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독일로 들어올 때도 개별 포장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고 kg그램으로 오기 때문에 독일에 도착하면 각 매장에서 다시 나눠 재포장을 하거나 그냥 포장없는 상태로 팔고 있습니다

**□ 소매가격동향**

○ 대형마트

품종	내용			
새송이 버섯		정보없음/새송이 버섯 1kg/한국산		12.90
		DPV Dohme Pilzvertrieb		2.79 (18.6/kg)

		GmbH/새송이버섯 150g/독일산		
느타리버섯		정보 없음/느타리버섯 1kg/폴란드산		9.99
		DPV Dohme Pilzvertrieb GmbH/느타리버섯 20g/독일산		1.99 (10/kg)

○ 아시안 소매상



만가닥 버섯		정보 없음/ 흰색 만가닥버섯 150g/ 정보 없음		1.99 (13.3/kg)
		Mitrofresh B.V./ 갈색 만가닥 버섯 150g/ 중국산	Yuan Fa Asia Market	2 (13.33/kg)
		Mitrofresh B.V./ 흰색 만가닥 버섯 150g/ 중국산	Yuan Fa Asia Market	2 (13.33/kg)
팽이버섯		MX fruit & vegetable (malaysia) sdn bhd/ Golden Mushroom(Enoki)10 g/ 중국산		0.99
		MitroFresh BV/ Enoki Mushroom 20g/ 한국산	Yuan Fa Asia Market/ 신세계한국식품 점	2 (10/kg)

⑤ 통관절차

## 가. 사전준비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대금 영수 방법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함. 양송이버섯의 경우 수입에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모든 수출 제품은 세관의 수출통관 절차를 밟아야 함. 수출통관 절차는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임

### Step 01. 통관서류 준비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통관 절차 역시 EU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EU 규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통관 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이 없음. 제조 기업이 독일 수출 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는 수출면장(Ausfuhrhandelbestaetigung), EC 역내(EX-1)27,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상품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이 있음
- 독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은 통관 서류상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됨. 독일 역시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수입 재화 분류 시 EU 일반 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 of EU-CCT)를 기준으로 과세함. EU의 경우 8자리의 복합품목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28. 코드가 적용되며, 앞의 6자리는 국제공통 6자리와 같으므로 이를 통해 세부 코드를 확인하면 됨

### Step 02. 고유번호 발급

- 준비한 통관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을 해야 함.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는 ZAPP(Zoll-Ausfuhr im Paperless Port) 혹은 B-number(Bearbeitungs-Nummer Zoll)라고 불리는 고유번호를 발급받게 됨

### Step 03. 운송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해상. 혹은 항공편을 통해 운송함. 독일의 경우 북부 지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 있으며, 바다와 연결된 내륙의 길이는 약 400km 임. 해상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독일의 대표적 항구인 함부르크항, 브레멘 항과, 네덜란드 접경 지역과 북해 지역에 위치한 3대 항구인 빌헬름스하펜항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Step 04. 검역

- 독일 수입관리 제도는 살아있는 식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함. 버섯류도 살아있는 식품에 포함됨. 독일은 EU 식품검역지침에 따르며, 국경검역소에 소속된 세관사무소에서만 통관 절차를 진행함. 통관은 원칙적으로 세관 처리 이전에 이루어지며, 세법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검역 결과에 따라 결정됨

#### Step 05. 수입승인 및 수입품 반입

- 독일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보통 현지 수입통관 대행업체와 진행함. 수하인은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번호와 함께 위임장을 송부함. 그리고 수입통관 대행업체는 구비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시스템에 등록함
  - 세관 통관시스템 등록을 거치면 수입통관 대행업체는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고 수입품을 반입할 수 있음. 운송과정을 포함한 통관 절차는 통상 4~5일 (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약 40~45일)이 소요됨

#### ⑥ 독일 검역정보<sup>33)</sup>

- 독일은 EU 식물검역지침에 따라 살아 있는 식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함

#### 가. 독일 수입관리 제도

- 살아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검역 실시를 원칙
- 대부분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프랑

33)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스에서의 검역을 면제하고 있음

-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EU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진백, 장수매, 수사해당, 모과, 오염 송, 해송 등

#### 나. EU회원국의 식물검역 법령 체계

- EU 전 회원국에 적용하는 식물검역 규정 : EU 식물검역지침
- 개별회원국의 식물검역규정 모든 EU회원국은 “EU식물검역 지침“에 정해진 규정에 맞추어서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을 제정해야 함.

#### □ EU식물검역지침 요약

- 용어의 정의
  - a. 식물(Plant) : 살아 있는 식물 및 그 일부분을 말하고, 종자를 포함하며, 살아 있는 식물의 일부분에는 다음 물품도 포함됨.
    - 과실 : 식물학적 의미의 과실(다만, 냉동처리된 과실은 제외됨)
    - 괴경, 구겨, 구근, 근경, 절화, 잎이 있는 가지, 잎이 있는 절지, 식물조직 배양체
  - b. 종자(Seed) : 식물학적 의미의 종자로서 비재식용 이외의 것
  - c. 식물성 산물(Plant Intended for Planting)
    - 이미 재식되어 있고 수입 후에도 계속해서 재식한 상태로 두거나 다시 재식될 예정인 식물
    - 수입시에는 재식되어 있지 않지만 수입후에 재식될 예정인 식물
  - d. 유해생명체(Harmful organisms) : 동물계나 식물계에 속하거나, 바이러, 마이코플라즈마 또는 병원체인 병충해
  - e. 공공진술(Official Statement) : 식물보호기관에 의한 진술
  - f.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 IPPC양식과 일치하는 증명서
  - g. 식물통행증(Plant Passport) : EU내에서 생산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이 EU

내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식물위생증명서

- h. 보호지역(Protected Zone) : 특정 유해생명체가 분포하지 않고, 그 생명체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가 실시되는 EU 내 어떤 지역

○ EU의 식물검역 개요

a. EU내에서 생산되어 EU내로 이동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

- 생산지에서 식물통행증만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 반입될 때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EU내 모든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음. 하지만, 반입 조건이 다른 보호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보호지역의 반입조건을 따라야 함

b. EU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

- EU내 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으로 반입될 때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EU내 모든 국가로 이동될 수 있음. 하지만, 보호지역으로 반입될 때에는 보호지역의 반입요건에 따라서 검역을 받은 후 반입됨
- 금지식물

a. 모든 회원국이 금지시켜야 하는 물품

일부 재식용 식물, 일부 목재의 수피, 감자, 흙 등

b. 특정회원국(보호지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감귤류 :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령의 CORSIA지역

화상병의 기주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스페인, 프랑스(일부지역),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일부지역)

-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될 수 있는 물품

a. 모든 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물품

많은 식물류가 여기에 해당됨.

조건 : 특정병해충 없는 지역에서 생산, 소독처리, 공식진술 등

- 수출국의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 하는 물품

a. 모든 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품목

모든 재식용 식물, 일부 식물의 종자, 일부 과실, 감자괴경, 분리된 수피, 일부 목재 등

b. 특정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품목

일부 식물, 사탕무우 등

- 금지유해생명체(검역대상 병해충)

a. 모든 종류의 식물에 부착되었을 때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모든 회원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b. EU내에 미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 c. EU내에 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특정회원국(보호지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d. 특정 식물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모든 회원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e. EU내에 미분포하는 유해생명체 중 일부 유해생명체
- f. EU내에 분포하는 유해생명체 중 일부 유해생명체

### ⑦ 수출관련 특이동향

#### □ 라벨링<sup>34)</sup>

- 라벨링의 경우 반드시 독일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식품 라벨링과 관련된 조항인 Regulation no.1169/2011을 따르고 있음. 해당 규정은 온라인 판매 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34) 2017년 해외시장맞춤보고서(독일, 버섯), aT

<표> 독일 라벨링 표기사항 상세

	항목	설명
1	표기 언어	독일어
2	제품명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명칭 표시
3	제품성분 리스트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4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명확하게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기 위해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인자 성분을 표기
5	유효기간	국가표준 규정 또는 년, 월, 일 순으로 표기
6	보관방법	부패 혹은 손상 방지를 위한 방법
7	사용법	조리예시가 없는 경우, 적절한 식품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법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함
8	실 중량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히 기재
9	영양성분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 기록
10	원산지	원산지 국가명 반드시 기재

출처 :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조사(독일, 버섯), aT



<그림> 독일 버섯 라벨링 예시



□ 인증제도

- 유럽연합의 유기농 식품 인증인 Euro-leaf는 제품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사용해야 하고,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EU 모든 회원국에서 영향력을 가지며 비유럽 국가에서도 유기농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인증 내용으로는 농작물의 생산 및 제조과정의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명시하는 것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제조자가 유기농 경작이나 유기농 식품 제조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EU회원국에 의해 인가받은 유기농 인증시험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함. 제조자의 농



지와 제조 공정은 시험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농장은 반드시 최소 2년 동안 유기농 농지로의 전환기를 거쳐 겨작 후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음


<b>인증설명</b>	EU 유기농 농작물 관련 법적 규정인 EG Nr.834/2007를 준수해 제조되거나 가공되고 수입된 제품에게 부여하는 인증
<b>발행기관</b>	EU Organic Farming
<b>성격</b>	선택 인증
<b>발급절차</b>	인증 신청→수수료 합의→자료 심사→현장 검사→인증서 발급→사후 관리
<b>유의사항</b>	제조자가 유기농 경작이나 유기농 제품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EU 회원국에 의해 인가받은 유기농 인증시험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함
<b>인증마크</b>	

- EU 유기농 인증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본정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IMPORT OF PRODUCTS FROM ORGANIC PRODUCTION INTO THE EUROPEAN COMMUNITY**


1. Issuing body or authority (name and address)	2.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rticle 33(2) <input type="checkbox"/> or Article 33(3) <input type="checkbox"/> or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Article 19 <input type="checkbox"/>	
3. Serial number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4. Reference No authorisation under Article 19	
5. Exporter (name and address)	6. Control body or control authority (name and address)	
7. Producer or preparer of the product (name and address)	8. Country of dispatch	
	9. Country of destination	
10. First consignee in the Community (name and address)	11.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12. Marks and numbers. Container No(s). Number and kind. Trade name of the product	13. CN codes	14. Declared quantity
<p>15. Declaration of body or authority issuing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box 1:</p> <p>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ertificate has been issued on the basis of the checks required under Article 13(4)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and that the products designated above have been obtained in accordance with rules of production and inspection of the organic production method which are considered equival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EC) No 834/2007.</p> <p>Date</p> <p>Nam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person</p> <p align="right">Stamp of issuing authority or body</p>		

- Bio-Siegel인증은 일반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하기 용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만든 인증으로 발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부착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음

<b>인증설명</b>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식품을 일반적인 식품들과 구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인증될 수 있는 유기농 인증마크 실시
<b>발행기관</b>	독일 농식품연방사무소
<b>성격</b>	선택 인증
<b>발급절차</b>	인증 신청→자료 검수→현장 검사→샘플 검사→결과 발표→계약 체결→사후 관리
<b>인증마크</b>	

- ISO 22000은 식품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인증제도로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상호 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선행요건 프로그램(PRP ‘s) 및 HACCP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ISO 22000은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및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두 인증의 통합으로 식품안전을 강력하게 보장함

<b>인증설명</b>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식품공급사슬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됨
<b>발행기관</b>	한국규제규격인증원에서 취득 가능
<b>성격</b>	선택 인증
<b>비용</b>	종업원 수에 따라 상이함
<b>소요기간</b>	종업원 수에 따라 상이함
<b>갱신기간</b>	3년
<b>발급절차</b>	인증 신청→자료 심사→인증등록심의회 및 등록→인증서 발급→사후 관리 →갱신심사
<b>유의사항</b>	매년 사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유효기간이 3년임
<b>인증마크</b>	

- ISO 22000은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심사 절차보다 심사 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통 국제인증 취득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전문 컨설팅업체와 상의할 것을 권장함

<표> ISO 22000 심사 전 시스템 구축 절차(HACCP 7원칙과 12절차)

절차		특징
1	HACCP팀 구성	제품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
2	최종 제품의 기술 및 유통방법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 기재
3	용도 확인	제품의 소비자 분석
4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의 흐름도 그림으로 작성
5	공정흐름도 현장검증	공정의 흐름도가 실제 작업과 일치하는지 확인
6	위해분석(원칙1)	원료, 제조공정 등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7	CCP 결정(원칙2)	HACCP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 및 제거하거나 안정성 확보
8	CCP에 대한 목표·한계기준 설정(원칙3)	위해요소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판단
9	각 CCP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설정(원칙 4)	CCP 관리가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관찰
10	개선조치 방법 설정(원칙5)	모니터링 후 CCP 관리기준에서 벗어날 경우를 대비한 방법 강구
11	HACCP 시스템 검증방법 설정(원칙6)	HACCP 시스템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음을 검증하는 절차 설정
12	서류 기록 유지 및 문서화(원칙 7)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여 매뉴얼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결과 기록

### 3) 수출 확대 전략

#### ① 3C분석


01	<b>Custome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큰 시장에 속하며 독일 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li> <li>■ 많은 독일 소비자들은 건강 유지에 대한 의식이 강하여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함</li> <li>■ 자연적이고 덜 가공된 식품을 선호하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li> </ul>
02	<b>Competitors</b> : 중국,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팡이버섯의 유통이 확인되었으며 가격 또한 큰 차이가 없었음</li> <li>■ 폴란드산 버섯의 경우 독일이 수입하는 양도 점차 많아지고 있음</li> </ul>
03	<b>Company</b> :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로 직접 수출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지만 네덜란드로 수출된 양이 독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됨</li> <li>■ 과거 독일에서 유통되는 새송이 버섯의 대부분은 한국산이었음</li> <li>■ 독일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음</li> </ul>

② SWOT 분석 최적전략

강점 (Strength)	기회(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품질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li> <li>■ 새송이버섯 시장 초기 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인의 요리 방식에 적용하기 용이</li> <li>■ 많은 인구, 특히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다양한 인종의 분포</li> <li>■ 유기농 제품의 소비 증가</li> <li>■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li> </ul>
약점(Weakness)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송으로 인한 가격 상승</li> <li>■ 가공식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음</li> <li>■ 한국산 버섯에 대한 낮은 인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란드와의 수출 경쟁 가능성</li> <li>■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 약함</li> <li>■ 양송이 버섯 위주의 소비 습관</li> </ul>

### ③ Marketing Mix 전략

SO전략 (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채식주의 인구가 많은 독일 소비자들에게 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확보</li> <li>■ 현지 생산 제품 및 인근 유럽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을 통한 마케팅 전략</li> </ul>
WO전략 (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버섯의 우수한 품질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낮은 인지도 회복</li> <li>■ 유기농 제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기농 인증 취득을 통한 중국산과의 품질 차별화 전략</li> <li>■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한 기타 버섯류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li> </ul>
ST전략 (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은 중국산보다 우수하고 가격은 현지 생산 및 인근 유럽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보다 저렴한 이미지로 제품 포지셔닝 전략</li> </ul>
WT전략 (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버섯과의 가격 경쟁보다는 고품질 시장으로의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li> </ul>



---

#### ④ 시사점(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큰 시장에 속하며 독일 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과거 신선 버섯보다 버섯 가공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였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독일 내 채식이 인기를 끌면서 신선 버섯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독일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쳐진 크기를 갖고 있으며, 이민자 인구(수입제품에 대한 잠정적 소비자)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잠재력을 가진 시장임
- 독일은 버섯의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버섯 수입량은 증가하고 수출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독일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고가에 속하는 버섯일수록 유기농(Bio)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III 해외시장동향 06 : 프랑스, 영국

#### □ 프랑스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프랑스의 기타 버섯에 대한 HS CODE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러나 국가별로 HS CODE가 일곱 번째 자리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 통계는 같은 품목의 상위 범주인 HS CODE 0709.59(Fresh or chilled edible mushrooms and truffles (excluding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으로 조사함

<표> 영국 내 기타 버섯 HS Code 분류

HS CODE	품명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b>0709.59</b>	<b>기타</b>
0709.59.10	살구버섯
0709.59.30	플랩버섯
0709.59.50	송로
0709.59.90	기타

출처:관세법령정보포털(www.customs.go.kr)

#### ① 생산동향

- 농업 통계 사이트인 FAOSTAT에 의하면, 2017년 기준 프랑스 버섯의 버섯 및 송로 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된 99,096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08년 (138,783톤) 대비 2017년 (99,096톤) 생산량은 약 28.6% 감소하였음

<표> 프랑스 버섯 생산량

(단위: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38,783	114,054	119,373	115,696	116,602	104,461	108,671	101,135	101,949	99,096

출처: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2017년 생산량은 FAO의 추정치



	세계	177,432	709,677	192,412	733,687	193,250	723,397	205,820	757,992
1	독일	17,413	89,479	21,069	94,043	23,872	100,418	23,091	95,902
2	<b>프랑스</b>	<b>20,416</b>	<b>79,037</b>	<b>21,809</b>	<b>73,279</b>	<b>19,145</b>	<b>71,770</b>	<b>17,991</b>	<b>71,880</b>
3	이탈리아	10,203	54,933	10,169	52,509	7,313	45,500	7,497	68,664
4	일본	4,289	71,464	3,578	59,121	3,213	60,912	3,108	64,669
5	미국	9,087	27,307	10,139	39,254	9,852	39,139	9,981	45,093
6	영국	18,648	52,581	21,369	54,890	21,613	52,862	19,966	44,404
7	태국	12,502	21,512	16,670	27,098	20,507	32,498	21,047	33,763
8	네덜란드	3,837	21,460	4,113	19,901	4,860	21,721	5,585	25,628
9	오스트리아	5,098	25,336	4,278	23,857	4,416	23,519	4,022	23,229
10	베트남	767	4,845	1,026	6,695	2,095	11,378	13,360	22,529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 수입동향

- 2017년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 수입액 기준 5대 수입국으로는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순임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및 수입액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량은 205톤으로 1.1%, 수입액은 953천 달러로 1.3%에 해당함
  - 경쟁상대국 중 하나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량은 75톤으로 0.4%, 1,723천 달러로 2.4%에 해당함
- 2017년 기준 프랑스의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 최대 수입 상대국은 폴란드로 2017년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36.3%(6,528톤), 수입액의 18.5%(13,280천 달러)임

<표> 프랑스의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순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20416	79037	21809	73279	19145	71770	17991	71880
1	폴란드	6346	15239	7180	13394	6898	14164	6528	13280
2	스페인	2061	15745	2287	14265	2040	15755	1774	18128
3	네덜란드	7019	19511	6774	16352	5942	14731	5395	12912
4	이탈리아	175	3540	217	3880	226	3066	499	3476
5	벨기에	2011	5289	1968	4990	1542	4133	1570	4283
...									
11	중국	24	663	58	696	66	1239	75	1723
17	한국	70	456	133	624	190	895	205	953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농식품유통공사의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수출되고 있는 새송이 버섯과 팡이버섯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새송이 버섯은 112.4천 달러 수출됐으며, 팡이버섯의 경우 6.4천 달러가 수출됨

구분	2017년		2018년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버섯계	85.1	355.7	29.9	155.1
새송이	84.6	354.5	26.5	112.4
팡이버섯	0.5	1.2	2.5	6.4

### ③ 유통동향

- 버섯은, 최근 가장 신장이 높은 품목이었으며 향후 수출 전망이 높은 품목으로 주 시장은 영국과 독일 시장이며 다음이 파리시장이고 유럽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수출이 되고 있음

- 품목은 새송이버섯이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팽이버섯이 많고 만가닥과 표고버섯이 소량수출 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로테르담 항구로 수입되어 유럽 전역으로 배송되고 있으며, 항공으로 수입되어도 유럽각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적고 네덜란드로 수입되어, 여러 물류가 합쳐져 다시 유럽으로 유통 되는 형태임. 따라서 각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대부분 항공 물량으로 수출금액도 적은 편임
- 유럽 현지 버섯시장은 양송이 시장이 거의 전부이며 일부 표고와 만가닥 등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은 미흡한 편임
- 한국산 팽이와 새송이버섯과 만가닥버섯, 느타리버섯 등은 대부분 한국식품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고 일부 중국계 화교시장이나 일본계시장에서 일부 유통되고 있으며 현지유통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임 최근 한국산 새송이 버섯 등을 대형 마트에 시범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향후 판촉 홍보의 확대 여부에 따라 시장수요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프랑스는 직접 수입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물량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소요물량의 파악이 어려움
- 버섯유통은 네덜란드의 GMF 출자자인 형지스 도매상인 마크가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직접수입하는 경우 주로 항공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극히 미약함

□ 소매가격동향

품명	원산지	용량	가격	마트명	비고
시메지	네덜란드	150g	2.98	K 마트	만가닥
시메지	한국	팩	2.5	Hi 마트	만가닥
느타리	프랑스	팩	3.5	Hi 마트	(plerote)
표고	프랑스	팩	3.5	Hi 마트	Shiitake
새송이	한국	3개	4	K 마트	
팽이	한국	100g	1.55	K 마트	

○ 한국식품점 버섯 판매현황

- 한국식품점 마켓의 경우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만가닥버섯, 팽이버섯, 만가닥버섯, 표고버섯이 유통되고 있으나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의 경우 경쟁상품이 없음.

한국산 시메지(그린)	한국산 새송이	영국산 표고버섯	한국산 미니 새송이
			
한국산 버섯 모듬	한국산 팽이버섯	중국산 표고버섯	현지산 양송이
			
한국산 시메지(흰색)	한국산 시메지(갈색)	K - 마트 전경	Hi 마트
			
한국산 팽이 버섯	현지산 시메지	한국산 새송이 버섯	중국산 표고버섯
			
한국산 느타리 버섯	프랑스 느타리와표고	현지산 양송이	한국산 시메지표기

○ 현지마트 버섯 판매현황

까르프 매장 전경	현지산 양송이	소형 현지 마트	현지산 양송이
			
고급 현지 마트	현지산 양송이	현지산 양송이	현지산 양송이
			

## 2) 버섯 시장 동향

### □ 영국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시장

- 영국의 기타 버섯에 대한 HS CODE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러나 국가별로 HS CODE가 일곱 번째 자리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 통계는 같은 품목의 상위 범주인 HS CODE 0709.59(Fresh or chilled edible mushrooms and truffles (excluding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으로 조사함

<표> 영국 내 기타 버섯 HS Code 분류

HS CODE	품명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b>0709.59</b>	<b>기타</b>
0709.59.10	살구버섯
0709.59.30	플랩버섯
0709.59.50	송로
0709.59.90	기타

출처:관세법령정보포털(www.customs.go.kr)

- 영국은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소비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접근 할 수 있는 크고 구조화된 유통 네트워크가 강점임
- 그러나 건강과 건강 제품을 향한 관심이 아직 낮고, 소비와 생산이 낮아 버섯 시장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타 국가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됨

#### ① 생산동향

- 농업 통계 사이트인 FAOSTAT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영국의 버섯 및 송로 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된 99,652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08년 (70,200톤) 대비 2017년 (99,652톤) 생산량은 약 42%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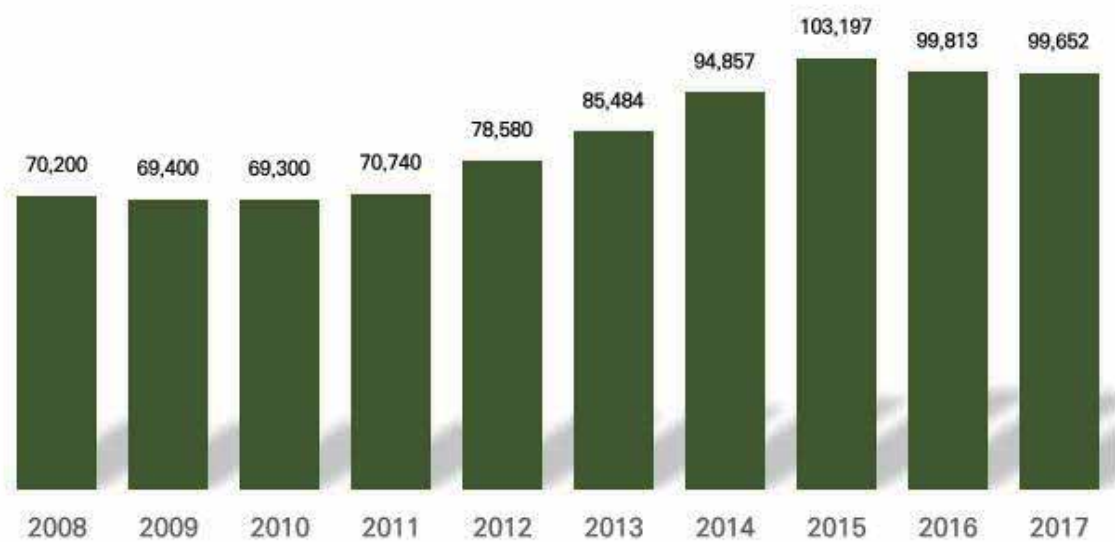
<표> 영국 버섯 생산량

(단위: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70,200	69,400	69,300	70,740	78,580	85,484	94,857	103,197	99,813	99,652

출처: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그림> 영국 버섯 생산량



출처: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② 수·출입 동향

□ 글로벌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수입 시장

○ 글로벌 시장 내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수입량 19,966톤, 수입액 44,404천 달러로 2017년 수입액 기준 6위를 차지함

- 영국은 글로벌 수입 비중에서 2017년 기준 수입량, 수입액 각각 9.7%(19,966

톤), 5.9%(44,404천 달러)를 차지하였음

<표> 글로벌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77,432	709,677	192,412	733,687	193,250	723,397	205,820	757,992
1	독일	17,413	89,479	21,069	94,043	23,872	100,418	23,091	95,902
2	프랑스	20,416	79,037	21,809	73,279	19,145	71,770	17,991	71,880
3	이탈리아	10,203	54,933	10,169	52,509	7,313	45,500	7,497	68,664
4	일본	4,289	71,464	3,578	59,121	3,213	60,912	3,108	64,669
5	미국	9,087	27,307	10,139	39,254	9,852	39,139	9,981	45,093
6	영국	18,648	52,581	21,369	54,890	21,613	52,862	19,966	44,404
7	태국	12,502	21,512	16,670	27,098	20,507	32,498	21,047	33,763
8	네덜란드	3,837	21,460	4,113	19,901	4,860	21,721	5,585	25,628
9	오스트리아	5,098	25,336	4,278	23,857	4,416	23,519	4,022	23,229
10	베트남	767	4,845	1,026	6,695	2,095	11,378	13,360	22,529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수입동향

○ 2017년 기타 버섯류(HS CODE 0709.59) 수입액 기준 5대 수입국으로는 폴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순임. 전체 수입액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85천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0.19%로 매우 적음

-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물량 및 금액은 ITC 홈페이지에 집계가 안됨

○ 2017년 기준 영국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폴란드로 2017년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12.22%(9,769톤), 수입액의 44.62%(19,812천 달러)임

<표> 독일의 기타 버섯(HS CODE 0709.59)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톤, 천 달러)

2017년 수입액 기준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세계	18,648	52,581	21,369	54,890	21,613	52,862	19,966	44,404
1	폴란드	8,603	20,648	9,059	20,795	12,503	24,577	9,769	19,812
2	네덜란드	2,445	8,888	4,675	12,244	3,484	11,920	3,132	8,882
3	아일랜드	4,948	11,966	4,543	10,665	3,598	7,735	4,824	7,828
4	벨기에	1,880	4,961	1,978	4,662	1,311	3,265	1,261	2,877
5	프랑스	570	4,061	768	4,146	538	3,276	485	2,961
...									
10	중국	4	51	12	115	13	131	11	85
18	한국	-	0	10	21	4	11	-	0

출처: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농식품유통공사의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새송이 버섯과 팡이버섯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새송이 버섯은 3백 달러가 수출됐으며, 팡이버섯의 경우 12.9천 달러가 수출됨

구분	2017년		2018년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버섯계	2.8	8.1	5.9	15.5
새송이	0.7	2.3	0.1	0.3
팡이버섯	1.9	5.4	5.1	12.9

### ③ 소비동향

- 최근 많은 영국 소비자들이 경제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 업체 내에서도 가성비 좋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확대를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식품 소비에 있어서는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유기농식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등을 중요시하여 윤리적 소비를 선호하며, 이민자 증가로 인해 에스닉 푸드가 유행을 이끌고 있음

#### ④ 유통동향

- 영국의 버섯류시장은 2018년의 경우 영국으로 직접 수입된 물량은 약 6톤에 15.5천 달러 정도로 수입시장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나 실제 수요는 네덜란드등에서 수입된 물량을 합치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 중 팽이가 12.9천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새송이가 0.3천 달러, 나머지 품종이 2.3천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팽이는 중국계와 일본계에서 다소 인기가 있으나 새송이는 생소하여 판매물량은 매우 적은 편임
- 유럽의 물류는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인접하여 물류시간이 3시간이면 런던에 도착하는 수준으로 늦어도 1일 내 물류 유통이 가능함
- 영국은 대부분 양송이가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표고버섯이 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음
- 한국과의 FTA 체결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은 관세가 없으며 버섯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EU내에서 유통의 경우에도 관세는 없으며 한나라에 통관되어 수입되면 또 다른 통관절차가 없이도 유럽 내에서 유통이 가능함



- 런던 시내의 여러곳에서 파마스 마켓이 형성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민자가 많은 동네에 개설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같이 일주일에 1~2회 장이 서는 곳도 있음

□ 소매가격동향

- 팡이버섯의 경우 한국산과 경쟁관계가 없는 상태이며, 새송이버섯은 폴란드산과 경쟁내지 경합관계에 있으며 소매가격은 거의 동일한 수준임

품명	원산지	용량	가격	마트명	비고
새송이	폴란드	kg	8.99	서울플라자	
표고버섯	폴란드	kg	12.99	서울플라자	
팡이	한국	100g2개	1.2	서울플라자	
표고	중국산	kg	12.99	H 마트	
느타리	영국산	kg	4.99	H 마트	OYester Zwammen
느타리	폴란드			H 마트	
미니새송이	영국산	kg	12.99	H 마트	
팡이	한국산	1개	0.89	H 마트	
새송이	한국산	팩(4개)	3.59	H 마트	
새송이	한국산	kg	8.99	K 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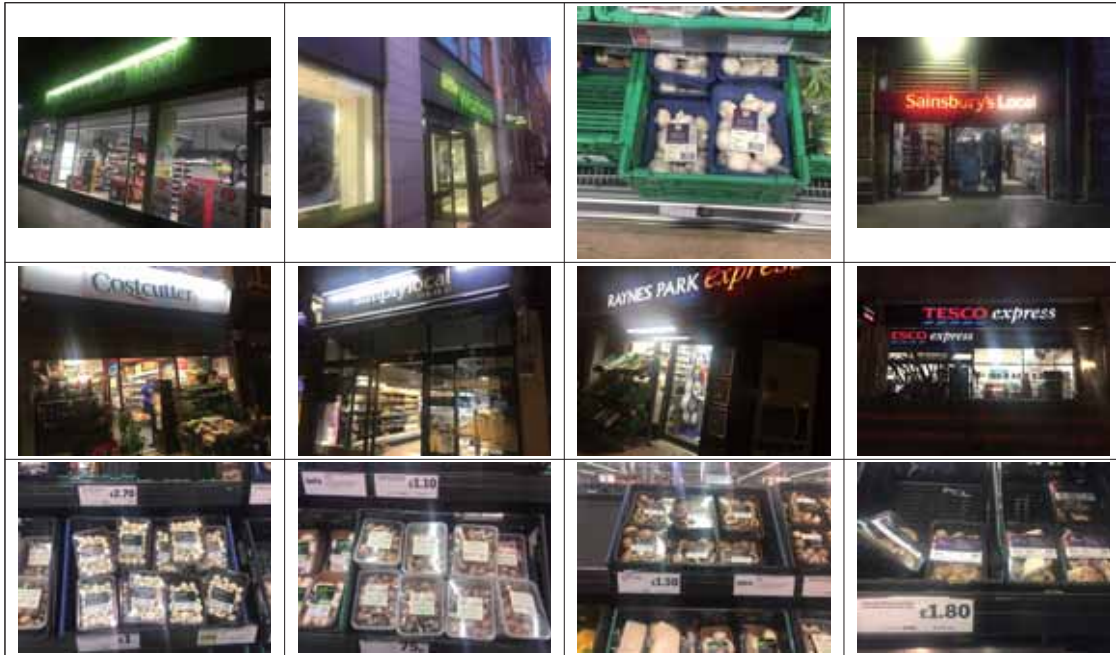
- Korean- Food 버섯 판매현황

<b>마트 전경</b>	<b>새송이 판매 현황</b>	<b>한국산 팥이 버섯</b>	<b>Korean- Food 매장</b>
			
<b>중국산 표고</b>	<b>한국산 느타리버섯</b>	<b>중국산 표고버섯</b>	<b>현지산 양송이</b>
			
<b>물류창고</b>	<b>물류창고</b>	<b>물류창고</b>	<b>물류창고</b>
			

○ H 마트 판매현황

<b>H - 마트 전경</b>	<b>중국산 표고버섯</b>	<b>영국산 느타리 버섯</b>	<b>폴란드 산 양송이</b>
			
<b>영국산 새송이</b>	<b>한국산 팥이 버섯</b>	<b>한국산 새송이</b>	<b>폴란드 폴리쉬버섯</b>
			
<b>중국산 표고 버섯</b>	<b>영국산 느타리</b>	<b>폴란드 양송이</b>	<b>영국산 양송이</b>

○ 영국현지 마켓 버섯 판매현황





버섯 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 Cream Of Mushroom(Organic)</li> <li>▶ 브랜드 : Amy's Organic Soups</li> <li>▶ 원산지 : 미국</li> <li>▶ 중량 : 400g</li> <li>▶ 가격 : 6.95 SGD</li> <li>▶ 판매처 : Fairprice</li> <li>▶ 제품특징 : 통조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 Kallo Organic Mushroom Stock Cubes</li> <li>▶ 브랜드 : Kallo</li> <li>▶ 원산지 : 독일</li> <li>▶ 중량 : 66g</li> <li>▶ 가격 : 4.9 SGD</li> <li>▶ 판매처 : Fairprice</li> <li>▶ 제품특징 : 조미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 Sliced mushroom</li> <li>▶ 브랜드 : Essential eday</li> <li>▶ 원산지 : 미국</li> <li>▶ 중량 : 4.5oz</li> <li>▶ 가격 : 2.9 SGD</li> <li>▶ 판매처 : Market Place by Jasons</li> <li>▶ 제품특징 : 통조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 mushroom soup</li> <li>▶ 브랜드 : Yorkshire</li> <li>▶ 원산지 : 영국</li> <li>▶ 중량 : 600g</li> <li>▶ 가격 : 52.9 SGD</li> <li>▶ 판매처 : Market Place by Jasons</li> <li>▶ 제품특징 : 통조림 수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 Whole Button Mushrooms</li> <li>▶ 브랜드 : Sainburys</li> <li>▶ 원산지 : 네덜란드</li> <li>▶ 중량 : 290g</li> <li>▶ 가격 : 25.4 SGD</li> <li>▶ 판매처 : Market Place by Jasons</li> <li>▶ 제품특징 : 통조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 Porcini Mushroom Oil</li> <li>▶ 브랜드 : Drogheria &amp; Ali</li> <li>▶ 원산지 : 이탈리아</li> <li>▶ 중량 : 80ml</li> <li>▶ 가격 : 34 SGD</li> <li>▶ 판매처 : Market Place by Jasons</li> <li>▶ 제품특징 : 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 Mushroom &amp; Tarragon Soup</li> <li>▶ 브랜드 : Sainburys ttd</li> <li>▶ 원산지 : 영국</li> <li>▶ 중량 : 400g</li> <li>▶ 가격 : 49 SGD</li> <li>▶ 판매처 : Market Place by Jasons</li> <li>▶ 제품특징 : 통조림 수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 Mushroom &amp; Cream Snack</li> <li>▶ 브랜드 : Marello</li> <li>▶ 원산지 : 이탈리아</li> <li>▶ 중량 : 70g</li> <li>▶ 가격 : 2.3 SGD</li> <li>▶ 판매처 : Isetan Supermarket</li> <li>▶ 제품특징 : 제과류</li> </ul>







제2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버섯 수출연구사업단**